

법상 스님(조계종 포교원 연구실장)
"본래 하나…
현재에 집중하라
구면


#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2월 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79호 2016년 1월 13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습한 땅에 잡초가 무성하듯
애욕의 습지에는 번뇌의 잡초가 무성하다.
애욕은 꽃밭에 숨어 있는 독사와 같다.

# 법난 사업 보장 등 '성과' 전통사찰 규제 철폐 '과제'

## 19대 국회, 법난법·정신문화진흥법 등 제·개정

새해를 맞아 국회에서 불교계 현안이었던 각종 법령 개정되고 불교문화 진흥책이 마련됐다. 제19대 국회는 구랍 31일 본회의에서 총 21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개정되거나 신설된 불교관련 법안이 상당수 포함됐다.

### 10·27법난 사업 연속성 보장

먼저 이번 국회에서는 불교계 현안이었던 10·27법난특별법이 개정돼 올해 6월 30일 활동 만료로 명시됐던 유효기간 조항이 삭제됐다. 그동안 10·27법난법은 유사 과거사 법률인 제주 4·3사건법, 민주화운동보상법 등과 달리 유효기간을 명시해 '정부가 일시적 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불교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 연속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정작 사업을 주관할 기념재단에 관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앞서 제주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한 기념재단이 설립돼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대조된다.

이 밖에 법난특별위원회의 사실상 종료된 업무인 피해자 신고 및 심사 부분이 법 조항에서 삭제되고 위원회와 사무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보도자료를 통해 "10·27법난 기념사업은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불교계 명예를 회복하는 특수경우로 유사 과거사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념재단이 설립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 정신문화 관련 사업 본격 진행

이와 함께 이번 국회에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법'이 통과됐다. 이는 과학기술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인문학과 정신문화 역량 확대를 위한 기반법이다. 이에 따라 인문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정신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정부와 인문정신문화 관련된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 진행된다. 주무부처는 교육부와 문광부로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미 올해 3월까지 총 예산 600억원 규모의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ER)을 진행한다. 1월 동안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거쳐 3월 주관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동국대 등 종립대학이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관계자는 "대학 간 경쟁으로 신청여부를 밝힐 수 없지만, 기획처 내 TF팀을 구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이번 국회에서 새로 입법된 '공공디자인진흥법' 또한 불교계가 눈여겨 볼 만한 법안이다. 이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의 전반적인 공공문화시설 디자인 개편 방안을 담고 있다. 불교계는 전통문화에 기반한 사찰의 다양한 시설물 디자인 개편

**10·27법난법 유효기간 삭제**
**재단 설립근거 미비 비판성명**

**문화재 연구기관에도 정부지원**
**사찰 시설물 디자인 개혁 시작**
**"전통사찰 규제 아직 중구난방"**

을 준비 중에 있었다. 정유탁 조계종 문화부 팀장은 "2014년부터 문화재청과 사찰안내판 및 문화재해설판 등의 개선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문화재 관련 정부지원 활성화

또 '문화재 관련법 보호법'과 '수리법, 보호기금법'의 3개 법안도 개정됐다. 주요 골자는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문화재 수리에 대한 능력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와 문화재 연구 및 환수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다.

먼저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에는 문화재 수리 능력평가, 수리·감리보고서 제출 의무화, 문화재수리의 부정청탁 방지 등이 담겼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의 관련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에도 문화재 보수와 복원, 긴급매입 등에만 활용됐던 문화재 보호기금을 관련 연구단체의 경비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문화유산, 자연환경유산 내 환경훼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규정을 명시한 '문화유산 국민신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밖에 학술 지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연구자나 대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학술진흥법' 개정안도 개정됐다.

### 전통사찰 관련법 정비 과제로

하지만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전통사찰과 관련된 법령은 정비돼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 전통사찰보존지 중 지정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전통사찰 주거 목적으로 전용한 농지에 대한 '농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이 밖에 공원 내 문화재의 기여도 평가 후 비용을 지원하는 '자연공원법', 문화재 및 전통사찰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방안을 담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협의 중에 있다. 종교시설용 농지전용 허용면적을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전통사찰 건폐율 완화 등을 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등도 조계종 측과 정부가 논의 중에 있다. 전통사찰의 증축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입법예고된 상태다.

법안 외에도 인사혁신처에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공휴일 규정을 변경하는 건이 요청된 상태며, 10월 15일을 '호국의승의날'로 제정하는 건도 청원운동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전통사찰에 대한 관련법령을 정리하고, 규제를 철폐하는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청정수행으로 한해를 보내겠습니다"** 조계종이 1월 5일 대구 동화사에서 개최한 신년하례법회에서 대중 스님들이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한 종단 원로 스님들에게 하례를 올리고 있다. 이날 법회에서 진제 스님은 "금생(今生)에 이 견성법(見性法)을 성취하지 못하면 어느 생에 이 고귀한 불견성법(佛見性法)을 또 만나겠느냐"며 수행정진을 당부했다.
대구 동화사=노덕현 기자

# 韓불교 일제 탄광 희생자 위로나선다

## 종단협, 1월 30일 日 죠세이 탄광 추모비서 위령재 봉행

일제강점기 죠세이탄광으로 강제동원됐다 수몰사고로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하는 위령재가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는 1월 30일 일본 야마구찌현 우베시에 위치한 죠세이 탄광(長生) 추모비 및 피아(해저 환기구) 앞서 '일제강점기 죠세이 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수몰희생자 위령재'를 개최한다. '죠세이탄광 희생자 유족회' 및 '죠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 등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강제징용 조선인을 포함한 수몰사고 희생자 183명의 영령들을 위로하고, 민족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주최측은 일본 우베시에 탄광수몰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매몰된 유골 발굴 촉구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일본 히로시마서 열린 제18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서 한 외교부 관계자가 죠세이탄광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추모 위령재를 종단협 측에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져 행사가 성사 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종단협 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부회장 춘광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등 각 종단 대표자들과 시모노세키 및 히로시마 총영사부 관계자, 일본 시민단체 및 후원회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죠세이탄광은 시모노세키 남쪽 61킬로미터 지점 야마구찌현 우베시에 있는 해저탄광으로 1942년 2월 3일 갱도붕괴로 탄광이 수몰되면서 183여명이 모두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난 곳이다. 이 사건의 희생자 가운데 136명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조선인 징용자들이었으며, 이들을 관리감독하던 일본인 47명도 함께 수장됐다. 희생자들은 오늘날까지도 수몰된 갱도에 수장된 채로 유골조차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죠세이탄광은 '조선탄광'을 일본인이 부르던 호칭으로 채탄광부의 대부분이 조선인 징용자들이었기에 붙은 명칭이다. 또한 죠세이탄광은 사고위험이 너무 높고, 하루 12시간씩 2교대의 높은 노동강도와 해저탄광의 높은 온도, 비좁은 갱도 등 최악의 노동조건으로 유명해 일본인 광부들조차 외면하던 장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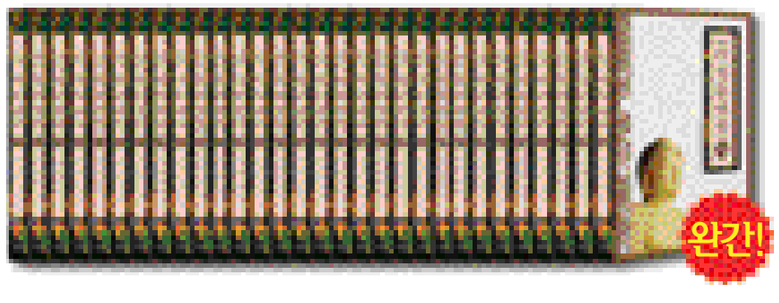
아픈 역사 속에 묻혔던 죠세이탄광 수몰사고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故 야마구치 다케노부 우베여고 교사가 1976년 탄광 사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조선인 희생자의 존재가 드러났다. 이후 1991년 일본시민단체인 '죠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 결성됐다. 이 모임은 지속적인 연구조사로 희생자 유가족들을 찾아내고, 추모비 건립을 위한 성금모금 및 사고현장서 유가족들과 1993년부터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죠세이탄광이 있던 곳은 현재 한적하고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변해있다. 추도비는 약 70여평 바닷가 주택을 매입해 2013년 2월 건립했으며, 관련 유적으로는 현재 추도비서 200m 떨어진 지점에 해저탄광 배수 및 환기구(피아) 등이 남아있다.

한편 이번 위령재는 바닷가 수몰 현장서의 헌화, 장엄염불, 유족제사, 위령재 순으로 진행된다. 김주일 기자


목각불
목각 천불전
만불전 건립
대 공덕을
발원하시는 사찰
연락 요망
010-8617-5357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선문염송 30권, 15년만에 완간하다!!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칙에 공안의 참뜻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안의 교과서!!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바른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을 바르게 참구하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도서출판 문젠 031-534-3373 / 010-4520-7963
www.zenparadise.com

화엄경 81권 출간 불사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 각 권과 각 품마다 토끼뿔 자문자답으로 선미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전자출판으로 1, 2, 3권을 무료로 선공개할 예정이니, 읽어보시고 불법의 정신자로서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각대조사 탄신 104주년 법회

## 7일 구인사 광명전서…2만여 명 동참



천태종은 1일 7일 단양 구인사에서 2만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4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한국 천태종을 창종한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4주년을 맞아 대조사의 유훈을 되새기는 법회가 열렸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1월 7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서 도용 종정 스님, 춘광 총무원장 등 2만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4주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모든 천태불자는 천 개의 강에 천 개의 달로 뜨고, 만 개의 강에 만 개의 달로 뜨는 지혜를 증득해 활달 자재한 공덕을 베풀며 만생명의 행복을 선도해 나가자"며 "이 법석을 계기로 인류 평화와 국민화합에 더욱 기여하고 공헌하는 천태불자들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민족의 암흑기에 태어나셔서 중생구제의 큰 원을 세우시고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대조사님은 천태종을 실천종단으로 건실히 발전시킨 등불이 됐다"며 "앞으로 천태종이 창의적이고 공익적인 종교 문화적 토대를 넓혀가면서 국민 행복과 화합의 중심이 되어달라"고 격려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도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천태종의 선대 스승이신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원력을 수행의 지표로 삼아 함께 정진하고 함께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는 박제국 행정부지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대조사님의 거룩한 세계가 녹아있는 이곳 구인사는 충청북도의 자랑이요 위대한 자산이자 불자들의 수행성지로 우뚝 솟았다"며 원각대조사의 중생 구제 원력을 칭송했다.

이언구 충청북도의회 의장도 "이 시대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숭고한 정신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며 "오늘의 봉축법요식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조계종 연수교육 2016년도 '풍성'

조계종 소속 스님들의 재교육을 위한 연수 교육이 2016년에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10년 시작 이래 꾸준한 성장세에 있는 연수 교육의 올해 프로그램도 매우 다양하고 풍성하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6년 연수 교육 일정과 계획 등을 발표했다.

올해 연수 교육은 오는 2월 23일 진행되는 '종단리더십실무과정'과 '사찰경영지도자과정'으로 시작한다. △'법계과정' 5개 강좌 △'사찰경영과정' 1개 강좌 △'경전과정' 6개 강좌 △'인문·과학·문화과정' 6개 강좌 △'전법과정' 7개 강좌 △'순례과정' 국내 3곳, 해외 5곳 등 총 44개 강좌가 개설·운영된다.

또한 올해에는 〈원각경〉, 〈십지경〉 교학 강의를 비롯해 △철학으로 그림 읽기 △원효와 하이데거의 대화 △신경과학에서 만나는 통찰의 세계 △양명학과 불교의 마음이론 △혜국 스님과 함께 하는 수행과 법담 △호남불교답사 △캄보디아, 라오스 성지순례 △부탄, 태국 성지순례 등 10개 강좌를 새롭게 개설됐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부문으로 사찰종무행정 이해 및 지역사회 대중들과 소통을 향상시키고자 구성한 사찰경영과정의 '사찰경영지도자과정'이 4박 5일에서 3박 4일로 변경된다. 연수교육 부여 점수 60점은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원, 연수 일정 및 계획 발표**
**강의·순례 등 총 44개 강좌**
**봉사활동 年 60점까지 확대**
**전문성 강화 '심화과정' 개설**
**매년 4000여 명 이수 '안정화'**

자비나눔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 128개 기관, 교구본사 법인 산하시설 33개 기관, 종단 산하 및 기타 시설 3개 기관으로 총 164개 기관에서 시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봉사활동 시간에 따라 4시간당 10점씩 년간 60점까지 연수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법계 과정으로 개설된 '종단리더십실무과정'은 3급 승가고시를 응시하시는 스님이, '종단리더십심화과정 Ⅰ, Ⅱ'는 2급 승가고시를 응시하시는 스님이, '종단지도자과정'은 1급 승가고시를 응시하는 스님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정이다

스님들의 전법역량을 증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준비한 전법 과정 중 '불교생활의례', '대중을 감동시키는 스피치 기술' 등 2개 강좌는 지난해에 이어 심화과정으로 개설됐다.

연수 교육 참가 스님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연수 장소인 한국문화연수원 이외에 총무원 국제회의장(서울 종로), 제19교구본사 화엄사(전라도), 통도사 연수원(경상도), 경주 경주 골굴사(경상도) 등 연수교육 장소를 확대해 시행한다.

교육원 연수국장 석중 스님은 "2010년 1,600명으로 시작해 2015년 4,300명으로 증가했다. 시행 7년을 맞이한 연수교육은 불교와 사회 분야별 전문성을 깊이 연찬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전법 역량을 증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정착되도록 교육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원은 스님들의 교육비 절감을 위해 2013년부터 강좌형 연수 교육비 20만원 중 '승납 10년 미만 스님'의 교육비 50%(10만원)를, 일반 스님들은 25%(5만원)를 종단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단, 사찰경영지도자과정과 순례연수는 연수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불자와 국민들에게 유익함 전하는 한 해로"

**조계종, 태고종 등 불교계**
**신년하례·시무식 잇달아**

불교 각 종단과 단체들이 잇달아 시무식을 열고 불기 2560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조계종은 1월 5일 대구 동화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열었다.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조계종 종정인 진제 스님은 "금생(今生)에 이 견성법(見性法)을 성취하지 못하면 어느 생에 이 고귀한 불견성법(佛見性法)을 또 만나리오"라며 대중들이 수행에 정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은 이에 앞선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중앙종무기관 시무식을 열고 종무행정을 시작했다.

시무식에는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과 종무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종무원들의 노력이 종도와 불자들의 희망으로 이어진다는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으며 교육원장 현응 스님도 신년덕담을 통해 종단 발전에 모두가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유탁 종무원조합 위원장의 발원문 낭독과 함께 신년 하례, 떡 절단식,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



조계종 중앙 종무기관 시무식에서 조계종 스님들과 종무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새해 업무시작을 알리고 있다.

태고종은 1월 5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겸한 시무식을 열고 참회와 화합을 기반으로 종단 안정에 노력할 것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의장 설운, 전 총무원장 인곡 스님과 지방교구 종무원장 등 1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어 6일 순천 선암사에서 종정 혜초 스님을 친견하는 신년하례법회도 개최했다.

태고종 승정이자 정상화추진위원장을 맡은 인곡스님은 '당부의 말씀'을 통해 종단 구성원 간 대화와 화합을 강조했다. 인곡스님은 "앞으로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대화와 화해, 화합해야 한다"면서 "종정예하의 명예와 존엄에 대한 종단 위계질서를 전 종도가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태종도 1월 2일 단양 구인사에서 신년하례법회와 함께 시무식을 개최했다. 먼저 설법보전에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에는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춘광 스님,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종정 도용 스님은 "귀하게 만난 인간의 몸과 부처님 법에 감사하며,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나누자"고 신년법어를 내렸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자리이타의 정신에서 인류의 공익과 공존이 성취된다는 진리를 명심하고, 천태불자들이 앞장서 구현해 나가도록 하자"며 "항상 서로 존경하고, 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한해를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창종 70주년을 맞는 진각종은 이에 앞선 1월 2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신년하례법회를 연데 이어 4일부터 10일까지 새해불공을 올리고 11일 업무를 시작했다. 진각종은 매년 새해를 맞아 국내외 심인당에서 일주일간 서원불공을 올리고 있다.

전국비구니회도 1월 6일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신년법회와 시무식을 열고 11대 집행부 업무를 시작했다. 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비구니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보여줄 때 비구니스님들이 우리에게 더욱 큰 힘이 되어 줄 것임을 잊지 말고 일하는 비구니회가 되도록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겠다는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11대 집행부 소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주일·노덕현 기자**

# 한국비구니복지실천가회 21일 출범

## 비구니 복지시설장 40여 명 뭉쳐

한국불교 복지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비구니스님들이 전문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할 단체를 조직한다.

한국비구니복지실천가회(이하 한비복실회)는 1월 2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운영회칙 제정·회장단 인준·2016년도 수입 및 사업예산 수립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비복실회는 복지 전문 비구니스님들이 모여 각 기관별 노하우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비구니 관장 위상 정립 및 권익보호에 힘써 불교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비복실회는 이날 초대회장에 상덕스님(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부회장 정관(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희유(서울노인복지센터장) 스님을 회장단으로 인준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부회장은 △서울 지완(신사종합사회복지관장) △강원 묘근(속초시노인복지관장) △충청 동준(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장) △부산경남 선공(영도구노인복지관장) 스님 등이 맡는다.

부회장 정관 스님은 "비구니스님들이 불교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서로의 역량을 한 데 모아 사회를 맑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비구니스님들이 걸어갈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 종단 사찰, 스님, 전국 불자를 위한 법률상담

불교조계종 종단법률고문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찰소송 | 형사소송 | 민사소송 | 가사소송 | 세무관계



김영규 구성원 변호사

학력
1982 진주고등학교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1992 제 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제 2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수료(헌법전공)
2009 중국 북경 정법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국제통상법 전공)

경력
1995-1999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9-20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2 중국 청화대학교 대학원 교수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 법무법인 한승 구성원 변호사, 중국 상해대표처 대표
2009-2010 법무법인 추정, 법무법인 지평지성 구성원 변호사
2010-2012 법률사무소 행복세상 구성원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법원
박일환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김동건 전 서울고등법원장
강병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영애 전 춘천지방법원장, 18대 국회의원

검찰
정동기 전 대검 차장
문성우 전 대검 차장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법무법인(유한) 바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010-5769-7071

불교조계종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4 2층) TEL 02)511-2026

깨달음 논 쟁

# “ ‘이해’ 인식작용도 깨달음의 방해꾼”

## 서재영 박사, 성철 스님 논지로 현응 스님 깨달음론 비판

새해 들어서도 깨달음 논쟁이 식지 않고 있다. 서재영 박사〈사진〉가 해인사 백련암이 발행하는 선 전문지 〈고경〉 1월호의 글을 통해 현응 스님의 깨달음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열린 〈깨달음과 역사〉 발간 25주년 기념세미나에서 현응 스님의 “깨달음은 이해의 영역”이란 주장이후 깨달음 논쟁이 촉발된 바 있다.

서재영 박사는 ‘깨달음에 대한 두가지 해석’ 글에서 “현응 스님은 ‘깨달음은 이해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설법, 토론,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깨달음은 말을 떠난 언어도단의 세계이며, 마음의 작용이 사라진 심행처멸의 경지다”고 논지를 펼쳤다.

서 박사는 이어 “현응 스님이 ‘잘 이해함’에 대해 스승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대화와 토론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성철 스님의 주장으로 보면 언어적 범주에 불과해 표피적 인식작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 박사는 성철 스님의 입장에서 현응 스님의 주장을 비판했다. 서 박사는 “선가의 전통적 입장이나 현대를 대표하는 수행자였던 성철 스님의 입장은 깨달음의 장애물로 인식작용 뿐만 아니라 마음을 구성하는 8식 전체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깨달음이란 잘 이해함과 같은 6식의 작용을 넘어서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서 박사는 “따라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6식 차원의 ‘인식’이 아니라 제8아뢰야식 차원으로 내려가 무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 “깨달음은 8식, 이해는 6식”

서 박사는 성철 스님이 8아뢰야식 단계에서 근본무명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 ‘구경각’설과 현응 스님의 ‘잘 이해함’을 컴퓨터의 메모리인 롬(ROM)과 램(RAM)으로 설명했다.

롬은 컴퓨터를 켤 때마다 변함없이 작동하는 BIOS라는 가장 기본정보를 담고 있는 메모리이며 램은 컴퓨터가 작동할 때마다 변하는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는 메모리다.



〈고경〉 1월호 기고글에서
“이해, 언어범주 불과” 주장
선행교설 우선검토 제시도

서 박사는 “유식학에 근거해 적용한다면 롬은 자기정체성의 뿌리가 되는 제8아뢰야식에, 램은 금생에서만 작동하는 제6식에 각각 비유할 수 있다”며 “6식이 눈이나 귀와 같은 감각기관의 정보에 근거해 작동하지만 삶이 끝나는 순간 램에 저장된 정보처럼 모두 사라진다”고 말했다.

### “선행 교설있어, 교설 검토부터”

서 박사는 “(성철 스님이) 〈백일법문〉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유식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경각을 성취해야만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깨달음이란 일상 속에서 법문을 잘 듣거나 문자를 해독하여 머리로 잘 이해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이해의 기억들이 삶이 지속되는 순간에는 작동하지만 죽음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 박사는 “생사윤회는 불교의 기본적인 전제에 해당한다. 해탈은 그와 같은 근원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성철 스님이 말한 구경각은 제6식 차원에서 나타나는 인식의 변화, 이성적 차원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스님이 말하는 깨달음은 유식의 심의식설을 수용해 근원적 무명의 단절, 생사의 종언, 윤회전생의 종결이라는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박사는 “깨달음에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은 있지만 그 논의는 이미 오랜 역사과정에서 축적된 풍부한 교설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제기가 유의미한 논쟁이 되려면 선행하는 교설에 대한 검토와 비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노덕현 기자

특별기고



중국 난징의 위안소 진열관 내 한국 위안부 사진이 보인다. 시대의 아픔을 중국인들이 기억하고 있다.

# 日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2015년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간 합의를 목표로 회담한다는 정보가 흘러 나왔다. 구랍 26일 나는 불교 수행자의 입장에서 이 가능성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결론은 한일 간 합의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한일 불교 교류를 통해 한국의 사정을 배운 만큼, 어중간한 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랍 28일 한일 외무장관 회담은 ‘돌이킬 수 없는(不可逆的)’ 합의를 표명한 아베 총리가 ‘사과’와 ‘일본군 관여’를 밝혔다. 말그래로 ‘날벼락’이었다.

### 위안부 할머니들의 분노와 슬픔

회담 결과를 놓고 한국에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다. 특히 할머니들의 목소리이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과 일체 상의하지 않고 외교 정치 수준에서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한일 합의 후 그 배경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일본 측은 “사과와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 했으니, 일본 대사관 앞 ‘평화 소녀상’을 이전 또는 철거 해 주었으면 한다. 이것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한국이 설립한 재단에 약속 10억 엔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조건을 붙이고 있다. 이건 아베 총리가 하고도 남을 짓이다. 즉, 할머니들의 상징인 ‘평화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던 것이다. 이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크게 전진했다고 기뻐했던 일본 시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 나도 그 중 한 사람이다.

### 中 난징의 위안소 박물관

아베 총리의 역사를 무시한 강경 태도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중국 남경에서는 ‘남경 대학살 추도식’이 개최되었다. 이날은 지난해부터 중국의 '국가 애도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추도식과 관련 2개의 큰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대학살 기념관 신관’ 완공이고, 다른 하나는 남경시의 위안소 흔적을 리모델링한 ‘남경 이제항 위안소 구지 진열관’ 준공이다.

전자는 파시즘과의 싸움을 주제로 한 것이고, 후자의 A관은 역사적 해설, B관은 위안소 복원관이다. 이 외에 무려 4동의 전시관이 있는데, 그 중 1개는 한국관이며 총 8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세계 최대의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이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크게 취급하고 있다.

### 불교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한일 외무장관 합의 이 후 어떤 국면을 맞을 것인가? 이제 결코 낙관 할 수 없다. 시민이 반성하고 개개인이 엄격히 감시하고 한 목소리를 유지해야 한다. 물론 우리 불자들 역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불교 신자는 불교적 생각을 하고, 불교적으로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간의 흥정은 국가에 맡기면 된다.

‘사무량심’에 그 열쇠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자(慈)의 마음’=할머니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비(悲)의 마음’=할머니들의 슬픔을 나누어 가짐 △희(喜)의 마음=할머니들과 기쁨을 나누는 것 △‘사(捨)의 마음’=이러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수행하는 것이다.



이치노헤 쇼코(일본 조동종 운상사 주지)

## 일반포교사 자격고시 2월 20일 전국 시행

제21회 일반포교사 자격고시가 오는 2월 20일 전국 8개 고사장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직무대행 송묵)이 실시하는 이번 자격고시는 △동대부여고(서울 · 경기 · 인천) △금정중학교(부산 · 울산 · 경남) △광주불교대학(광주 · 전남) △명륜고교(강원) △보문고교(대전 · 충청) △능인고교(대구 · 경북) △화엄불교대학(전북) △서귀포불교대학(제주) 등 8개 고사장에서 오후 2시 동시에 시작된다.

응시 자격조건은 조계종 재적사찰에서 신도오계를 수지하고, 신도등록을 필한 자로서 포교원 인가 전문교육기관(불교대학)에서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동국대 불교대학 · 불교대학원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다. 2016년 전문교육기관 졸업예정자는 포교원에 1월 29일까지 졸업보고를 해야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월 15일까지이며 각 신도전문교육기관 교학처와 조계종 포교원에 접수하면 된다. 전형료는 1인 5만원. (02)2011-1894 윤호섭 기자

# 출가는 행복입니다

## 조계종 교육원, 출가 진흥 포스터 6종 발표

출가자 감소 현상이 눈에 띄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출가 진흥을 위해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한다. 특히 출가는 ‘어렵고 고되다’는 세간의 편견에서 벗어나 ‘자유와 행복의 여정’이라는 이미지를 전하기 위한 사업이 주요 골자로 이뤄진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가진흥을 위한 사업의 첫 포문으로 출가 홍보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는 일반 전단용 포스터 총 6종(2종씩 3세트)과 온라인 배포용 3종이다.

현재 출가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49기 행자교육원에서는 처음으로 100명 이하인 96명이 수계교육을 수료했다. 이런 추세라면 1년에 200명 출가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교육원이 올해를 ‘출가 진흥의 원년’으로 삼고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종단 사상 최초로 현대적 감각의 출가 홍보 포스터를 제작 · 배포하는 것도 출가를 대중들이 쉽게 다가오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첫 홍보 포스터의 1호 모델로는 비구 세진 스님(성남 연화사 주지)과 비구니 우담 스님(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연구과정)이 선정됐다.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스님들의 모습에서 출가자의 삶이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이루는 것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담고 있다.

6종의 포스터는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사찰 및 전국 대학으로 한 세트씩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출가 진흥을 위해 ‘출가 홈페이지’ 리뉴얼과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출가콘서트’(가칭)를 진행한다. 또한 불교 종립고등학교 대상으로 출가의 의미와 방법,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할 수 있는 ‘종립학교 강연회’(가칭)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원은 “2016년 출가진흥 사업을 교육원의 주요 종책 사업으로 삼고 양질의 출가 수행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인터뷰 4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강남 생활권 제2종 주거지역 및 2차선에 접한 과천토지 매각!

-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제2의 강남인 과천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 -

과천시 2020핵심전략 1순위 -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그린벨트 규제완화 최대 수혜지 예상지-과천”




국토부, GB 해제 집단취락지역 실태조사 실시!
재산권 행사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개발 탄력 받을듯...

- 국토부, 주민 실태조사 중으로 개선안 마련계획 (2015-05-21 한국경제)
- 30만㎡이하 지역에 대한 해제 권한, 국토부에서 지자체장에게 이관
-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절차 진행중 (7곳 해제, 12곳 용역 검토중)







과천 강남벨트화 구상

●과천 “강남벨트 조성” 구상으로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IC역 또는 3호선 양재역 연결 추진 등 개발제한구역에 신시가지 조성 구상으로 강남을 연계한 One-Set City조성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상태
●과천시-경기도시공사와 지역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글로벌 비즈니스타운 조성계획(주암동,과천동/ 약 800,000㎡)
▶지식정보타운 주택지구 및 지하철역사/ 과천화훼종합센터 추진
▶과천시-경기도시공사, 체계적 지역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동산 매각개요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일대(도시지역 자연녹지) - 그린벨트

| 구 분 | 공급면적 | 매각가 |
|---|---|---|
| A블럭 | 330㎡ | 1억 2천만원 |
| B블럭 | 330㎡ | 1억 1천만원 |
| C블럭 | 330㎡ | 1억원 |

■ 청약금: 100만원 ▶농협 355-0038-4227-43 (주)경기토지개발

※인접 토지의 경우, 1,500~3,000만원의 시세가 형성중 (공시지가 : 700~800만원)

3.3㎡당 100~120만원
(분양단위 : 330㎡)

시행사 (주)경기토지개발 ■소유권 등기: 법무사

청약신청 (현장관리자) 02)2058-0132

## 일 주 문



**행복한주말만들기 법문**

옹산 예산 수덕사 선덕 스님은 1월 17일 예산 수덕사 대웅전서 열리는 '행복한주말만들기' 법회에서 특별법문한다.



**2016 심심학교 개강**

도법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스님은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20강에 걸쳐 '2016 심심(尋心)학교'를 실시한다.



**신도들과 선원 대중공양**

원명 강남 봉은사 주지 스님은 1월 14일 오전 6시 30분 봉은사를 출발, 신도들과 월정사 · 상원사 선원 대중공양에 나선다.



**조계사 33관음성지 순례**

지현 조계사 주지 스님은 1월 25일 영천 은해사로 33관음성지 순례를 진행한다. (02)768-8520



**피라미타 정기총회**

정여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스님은 1월 29일 오후 5시 30분 서울 국도호텔 2층 연회장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법천 스님 제65주기 추모다례재**

원경 공주 마곡사 주지 스님은 1월 2일 마곡사 연화당에서 용음당 법천 스님 제65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베트남 이주민 태아 영가 천도재**

탄웅 서울 국제선센터 주지 스님은 1월 2일 베트남 이주민들의 태아 영가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템플스테이 문체부장관상**

계호 서울 진관사 주지 스님은 1월 4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템플스테이 모범 운영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중앙신도회 61주년 기념식**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1월 26일 오후 6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61주년 기념식'을 봉행한다.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

신외균 국제포교사회장은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9회 어린이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를 개최한다.

# "출가 진흥에 작은 힘 보탰으면"

### 출가 홍보 포스터 1호 모델 세진 · 우담 스님 '화제'

조계종이 종단 사상 처음으로 출가 홍보 포스터를 제작 · 배포했다. 포스터 1호 모델로 비구 스님으로는 성남 연화사 주지 세진 스님이, 비구니 스님으로는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연구과정의 우담 스님이 선발됐다.

1월 7일 출가 홍보 포스터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만난 두 스님은 포스터와 같이 환한 웃음으로 그간의 소회를 풀었다.

가장 먼저 종단의 첫 출가 홍보 포스터의 1호 모델로 선발된 소감을 물었다. 출가 진흥을 위해 동참한 뜻을 같았지만 과정은 좀 달랐다.

우담 스님은 "그간 종단 학인 습의사로 활동한 것을 좋게 평가해준 것 같다. 얼굴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출가자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진 스님은 "저는 단번에 수락했다. 귀중한 인연이라 생각했다"면서 "포스터를 보고 대중들이 출가가 진정 행복한 여정임을 알았으면 했다"고 말했다.



**세진 스님**

**"출가는 행복의 여정 대중에 널리 알려지길"**



**우담 스님**

**"4시간 촬영 힘들었지만 출가 진흥 도움돼 기뻐"**

포스터 모델로 선발된 스님과의 촬영은 강남의 스튜디오에서 이뤄졌다. 스님들은 최대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한 장면에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다.

세진 스님은 "사진이라고는 승려증에 올릴 증명사진밖에 안 찍어봤다. 스튜디오 촬영을 하려니 어색하기만 했다"고 머리를 흔들었다. 우담 스님은 "4시간 동안 촬영했는데 계속 웃고 있으니 힘들었다. 그래도 종단 출가 종책에 도움이 됐으면 해 기쁘게 촬영했다"고 웃어보였다.

출가에 대한 이미지가 포스터 발표로 대중에게 '어려움과 고행'이 아닌 '자유와 행복의 길'임이 알려졌으면 했다.

세진 스님은 "저 역시 진정 위대한 여행이자 훌륭한 길이라고 생각해 출가하게 됐다. 부처님의 바른 법이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우담 스님은 "고등학교 2학년 당시 출가의 마음을 굳혔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출가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면서 "다행히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해 출가 인연을 닿았다. 출가 종책도 대중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 "조계종, 국가브랜드 향상에 앞장"

### 자승 스님, 6일 김종덕 문광부 장관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김종덕 문광부 장관의 1월 6일 신년인사차 진행된 예방에서 국가브랜드 향상에 종단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사진〉

이날 김 장관은 먼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7대 종단을 잘 이끌어줘 종교화합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앞으로도 원장 스님을 도와 종단간 불협화음이 없도록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올해 국민화합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사업에 문광부가 앞장서려고 한다. 종단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그동안 문광부도 열정적으로 종교간 화합에 힘써줬다. 문화 창달을 통한 갈등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이후 예방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총무부장 지현 스님과, 사서실장 심경 스님, 기획실장 일감 스님, 문화부장 혜일 스님, 나종민 문광부 종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 무주상보시 이명기 할머니 별세

### 방직공장서 모은 재산 14년간 기부



90대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동국대에 기증하고 생을 마감했다. 척박한 현대사회에서 보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게 하는 귀감이 되고 있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2002년 당시 2억5천만 원 상당 33평 아파트를 기부한 이명기 할머니가 구랍 25일 향년 93세의 일기로 별세했다"고 1월 7일 밝혔다.

독신으로 평생을 지내온 故이명기 할머니〈사진〉는 젊은 시절부터 방직공장에서 비단 짜는 일을 하며 근검절약을 일생의 신조로 삼고 생활했다. 독실한 불자였던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러 절을 찾을 때에도,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약 1시간 20분 거리를 걸어서 다녔다.

그렇게 아껴 마련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아파트를 이 할머니는 2002년 동국대에 기부했다. 기부 당시 이 할머니는 "죽기 전에 불교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불교학 발전을 위해 동국대에 아파트를 기증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이 할머니는 일정 금액이 모이면 동국대에 꾸준히 기부하며 14년에 걸쳐 선행을 이어왔다.

한편, 동국대는 진정한 나눔의 정신과 보시행을 보여준 이 할머니의 위패를 총장 보광 스님이 주지로 있는 정토사(경기도 성남)에 모시기로 했다. **신성민 기자**

## 세계불교미래법왕청 평화대법회

### 청주 용호사서… 호국평화대상 수여도



세계불교미래법왕청은 구랍 24일 청주 용호사에서 교단용화불교 총무원 주관 하에 법왕 즉위 12주년 기념 국태민안 평화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왕청은 법회와 함께 광복 70주년 기념 제1회 호국평화대상 시상식을 열고 오제세 국회의원, 박희도 前 육군참모총장, 가수 박승희 씨, 유옥자 교단용화불교 이사장, 석보당 불교법사사회교육원 법계고시 최고위원장, 석법륜 세계불교미래법왕청 충남지청장에게 상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관내 불우이웃성금 및 포교대상, 표창장 전달도 진행됐다. 또 이날 450여 종단 대표들은 2017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자천강 법왕을 추천했으며 백용화를 황모로 추대했다. **노덕현 기자**

## 생명나눔, 1월 지원환자 김영일 씨

### 유전성 희귀난치병 '폰 히펠 린다우 증후군'



생명나눔이 2016년 첫 치료비 지원 환자로 김영일(남 · 27) 씨를 선정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은 1월 4일 "1월 치료비 지원 환자로 '폰 히펠 린다우 증후군'을 앓고 있는 김영일 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폰 히펠 린다우 증후군'은 희귀난치병으로, 중추신경계와 신장에 종양이 발생하는 병이다.

생명나눔은 "김 씨는 같은 병을 앓던 아버지와 남동생을 간호하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며 병원비를 벌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와 남동생은 세상을 떠났고, 김 씨마저 같은 병에 걸리게 됐다"면서 "김 씨가 사회에 복귀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 법주사 불교대학, 어르신 대중공양



보은 법주사(주지 현조)는 새해 첫 행사로 1월 5일 보은교사2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대중공양을 진행했다. 이날 대중공양에는 법주사 불교대학 재학생 및 보은포교원 신도 50여 명이 참여해 지역어르신 100여 명에게 떡국 등을 보시했다. **노덕현 기자**


도경스님의 실전 영반 靈盤 구성학 공개강좌 및 수강생모집

기(氣)와 영(靈)을 실어서 점단하는 영반구성학!

점사 볼때 구성학을 숫자로만 통변 하십니까?
구성통변! 들을때 뿐 통변이 안됩니까?
점사에 말문이 막혀 자신이 없습니까?
손님이오면 무슨말을 해야할지 모른다구요?
구성학의 맹점을 해결한 **영반**구성학은!!!
문여는소리,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가능합니다.
전화가 오는순간 통변이 가능하고 잘 맞습니다.
문점자를 보는순간 말문이 열립니다.
교육 수료 후 바로 창업이 가능 합니다.

교육대상
각 사찰 스님들의 불사및 포교에 최고입니다.
온라인상담, 철학관, 사주까페 개업하실 분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통변이 안되는 분
무속인, 점사가 안 나오거나 말문이 막히는 분
인재채용 및 영업직에 계신분,사교나 서비스직에 계신 분
문화센터나 교육원에서 공부했으나 점사풀이가 잘 안되는 분
수료후 수료증, 협회 회원등록 학술회원 위촉 및 협회자격증 수여

특전:30년 경력의 명리학 해강선생 초청 무료강의 준비중(스님만)...
본 협회에서는 CD 및 동영상 제작을 일체 하지않습니다.

교재용 비매품



강의 일정표
정규반
스님특별반
일반인반
속성반
스님특별반
일반인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선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한영반구성학 협회장
대한선보신문 대표
서울 고해사 주지
부산 도경사 주지
묘법사 3년 하안거
마니산 토굴 2년 기도정진
대둔산 토굴 3년 기도정진
그 외 기도, 명상,참선, 기공, 선법,등
수회 수련및 기도정진

■ 구성점사를 단순히 숫자로만 점단 한다면 전문 통변가가 되지 못한다.각 궁에는 기가있고 영체가 있으며 들고 나는 숫자역시 영성에 의해 움직이므로 단순히 수의 자리이동이라 생각 한다면 점사가 막힌다. 영성의 감각 기관을 깨우는 수련을 하루 3~10분 명상으로 심신의 변화와 영성을 키워 훌륭한 통변가가 될 수 있도록 관리와 지도를 병행 해 나아갈 것입니다.

■ 본 종단과 뜻을 함께할 종도님을 모십니다.
전화 하시면 입종안내 및 입종서류 보내 드립니다.
종단 입종 서류접수 심사 후
승려증,사찰등록증,임명장을 드립니다
본 종단과 함께 할 법사님도 환영합니다

■ 출가(법사나 스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분)에 뜻이 있는 분은
본 종단에서 시행하는 승려 교육과정을 거친후
승려증 발급과 사찰이나 포교원을 개원 하고자
하는 분은 종단에서 적극 후원 지원함..
할 일이 많습니다.사찰,포교당운영,기도,명상,참선,기공등..

오시는 길. 주소: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55길9 (삼익아파트 상가 2층)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하차 1번출구나와서 왼쪽 계단올라오면
공개강좌 : 1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삼익아파트가 보입니다.) 도보 5분거리

禪大韓佛教曹溪宗
선대한불교조계종
(02) 959-1825

선대한불교조계종 부설. 구성학 등록번호제00189호
대한靈盤구성학협회
대한영반구성협회
(02) 962-3467

# 화엄의 원력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법공양

## 대만 원도선원, 4일 韓 문수선원에 〈화엄경〉 보시

검정 법복을 입은 대만 불자들의 두 손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화엄경〉이 단아하게 올려 있다.

이들은 손에 든 〈화엄경〉을 한국의 200여 명의 스님들을 찾아 조용하고 정중하게 법공양을 올렸다. 합장을 하고 절을 올리며 스님에게 법공양을 올린 대만 불자들은 환희심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불교 대표 강백 무비 스님이 이끄는 문수경전연구회 〈화엄경〉 강의 첫 수업은 매우 특별했다. 1월 4일 청룡동 문수선원에서 열린 수업에 대만 원도선원에서 온 불자 60여 명이 참석해 스님들에게 〈화엄경〉 법공양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양한 수량은 '81 화엄 1세트' 200질이다. 대만원도불교문화교류협회 이사장 전진 스님, 원도선원 주지 견휘 스님, 견윤 스님도 재가 불자들의 공양 자리에 함께 참석했다.

### 〈화엄경〉으로 이어진 法緣

대만 원도선원과의 한국불교의 첫 인연은 지난해 8월 문수경전연구회원 스님들이 대만의 공승법회에 참석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원도선원은 〈화엄경〉 1만 2천부를 제작해 대만 북부, 중부, 남부 3곳에서 열린 국제 공승대회에 참석해 대만의 모든 스님과 도량에 〈화엄경〉을 공양했다.

원도선원의 〈화엄경〉 탑 사진을 본 무비 스님은 〈화엄경〉 가운데 한 권은 가져왔는지 진담 반 농담 반으로 회원 스님들에게 문의를 했고, 대만 원도선원 불자들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후 대만 원도선원은 화물선을 이용해 〈화엄경〉을 배송하려했으나 무비 스님의 〈화엄경〉 강설과 문수선원 및 염화실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한국을 직접 찾아 법공양을 하기로 결정했다.

대만 원도선원은 한국의 문수선원과 마찬가지로 〈화엄경〉으로 이어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만 원도선원은 2012년부터 화엄경을 독송하는 수행을 진행 중이며 2014년부터는 〈화엄경〉 81권 가운데 1권을 독송하고 1년에 〈화엄경〉 전체를 4번 독송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 정진하고 있다. 최종 목표는 25년 간 〈화엄경〉 100독이다.

### "자비로써 응당 공양 받으소서"

대만 불자들의 〈화엄경〉 법공양은 가장 먼저 부처님께 봉정하며 시작했다. 봉정은 대만 원도선원 주지 견휘 스님과 견윤 스님이 진행했다. 이어 대만원도불교문화교류협회 이사장 전진 스님은 무비 스님에게 〈화엄경〉을 법공양 했다.

무비 스님은 "경전 가운데 최고의 경전인 〈화엄경〉을 공양 받는 것은 곧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법공양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자기의 생업을 미루면서까지 신심을 내서 타국에 스님들을 위해 경전을 가지고 와서 공양했다. 대만 불자들이 얼마나 부처님 법을 존중하는가를 알게 됐다. 큰 감동이다"고 인사를 전했다.

**〈화엄경〉 100독 원력 대만 불자들**
**'81화엄 1세트' 200질 보시 '귀감'**
**"스님들 공부에 필요하다" 소식에**
**경전 마련해 직접 전달코자 한국행**
**무비 스님 "대만불교 배워야" 격찬**

이에 대해 전진 스님은 "자비로써 응당히 공양 받으시고 열심히 배우고 수행해주시길 바란다"며 "이 경전을 통해 큰 도를 깨달으시고 갖가지 형상으로 이끌어주시며 〈화엄경〉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유통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무비 스님은 화엄경 공양에 대한 화답으로 자신의 저서인 〈대방광불화엄경 강설〉과 문수경전 염화지, 친필로 쓴 '화엄' 족자 그리고 후원금을 대만 불자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대만 불자들 가운데 7살, 9살, 11살인 어린이들이 나와 〈보현행원품 예경찬탄원〉을 직접 외워 많은 한국 스님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법공양 의식을 마친 후 대만 불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무비 스님의 〈화엄경〉 강의에 참석했다. 강의 가운데 게송을 읽을 때는 함께 입을 맞춰 독송하며 합장하고 화답했다.

원도선원 주지 견휘 스님은 "한국어를 잘 이해하고 알아듣는다면 이곳에 와서 스님의 법을 계속해서 듣고 싶을 정도"라며 "부처님께서 수승한 법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주셨다. 가피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감복했다.

### 오직 법공양의 일념으로

대만 불자들은 한국 스님들에게 법공양을 올리기 위해 직장과 학교를 쉬면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오직 부처님 법을 공양하고 수승함을 널리 알리겠다는 원력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대만 불자 가운데 법공양을 위해 미국에서 참석했다는 앤디(53) 씨는 "10년 전 한국에 방문했을 때 거리의 십자가를 보고 망연자실했다"고 술회하면서 "하지만 오늘을 계기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면모를 보았다. 앞으로 한국의 불자와 스님들을 위한 〈화엄경〉 법공양에는 책의 권수에 상관없이 모두 보시 할 것"이고 밝혔다.

낙상으로 인해 갈비뼈 골절이라는 중상에도 공양을 위해 참석한 불자도 있었다. 죽군(60) 씨는 "참석하기 전 넘어져 갈비뼈 두 개가 금이 가는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법공양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 아픔을 무릅쓰고 왔다"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인연이 너무나 소중하고 무비 스님의 〈화엄경〉 강의를 듣고 스님들과 함께 합송하니 아픔도 사라졌다. 환희심만이 가득하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무비 스님은 2016년 새해를 맞아 한국의 불자들을 향해 "신행 생활에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만불교가 한국불교의 모델이며 답"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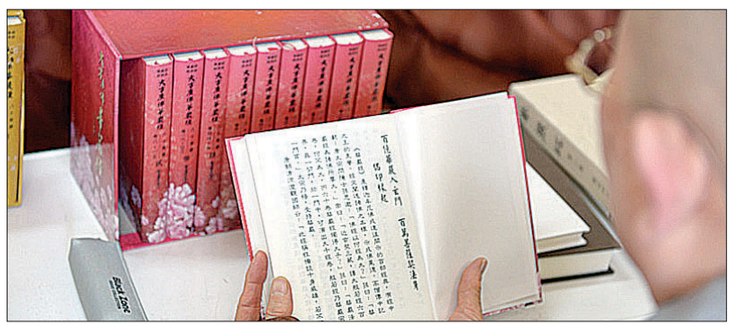
스님은 "대만 불광선원의 활동과 자비행으로 중생을 살피는 자재공덕회의 보살행과 봉사 이야기는 익히 알 것"이라며 "올 한 해 한국의 불자들도 이 같은 대만 불자들의 모습을 닮고 배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만 불자들은 1월 4일 범어사, 문수선원을 거쳐 홍법사에서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했으며, 5일에는 통도사를 거쳐 해인사를 방문했다. 6일 송광사, 7일 천곡사와 불국사 석굴암을 거쳐 8일 대만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오신채를 먹지 않는 계율에 따라 사찰에서 숙식을 하며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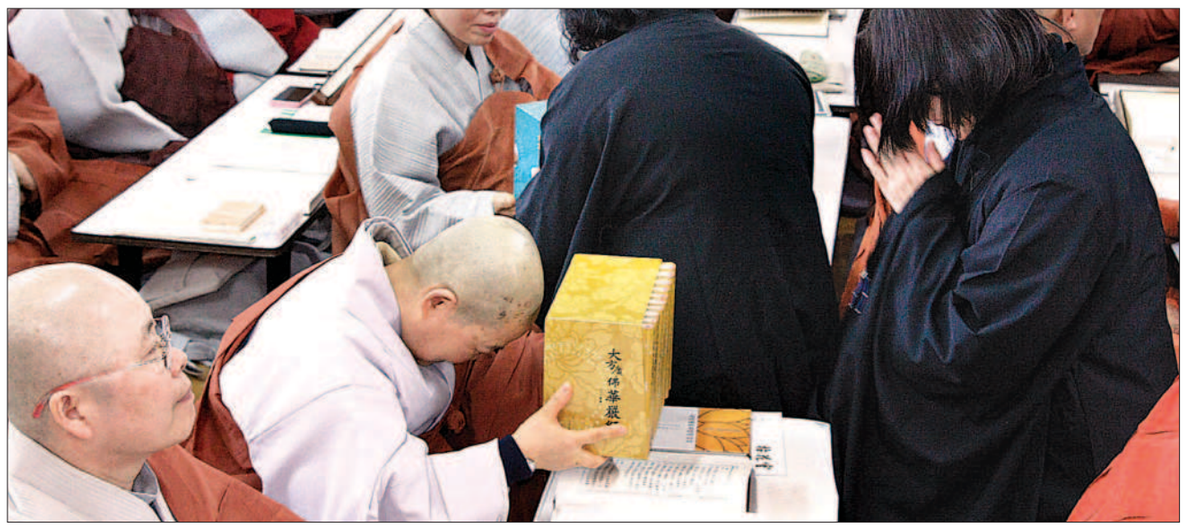
하성미 기자


대만원도불교문화교류협회 이사장 전진 스님이 무비 스님에게 〈화엄경〉 법공양을 올리고 있다.


무비 스님이 어린 불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화엄경〉 법공양을 받은 스님이 경전을 읽고 있다.


대만 동자승이 법공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만 원도선원 불자들이 1월 4일 부산 문수선원에서 200명 스님들에게 〈화엄경〉을 공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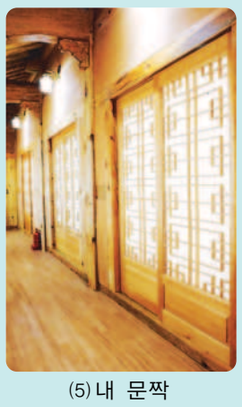


(1) 마을 전경


(2) 정원 전경


(3) 거실


(4) 주방시설


(5) 내 문짝


(6) 욕실


(7) 툇마루

스님!

우리절도 신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세요...

기도 명상 휴양 야외법회 펜션

1차 6개동 분양

강원도의 수려한 명산 치악산 자락에 국내 처음으로
나무와 흙으로 빚은 '붓다한옥마을'을 탄생시켰습니다.

특 징

❶ 부처님, 산신을 모실 수 있는 법당 (별채)
❷ 야외법회를 할 수 있는 넓은 잔디공간
❸ 신도 가족을 위한 펜션
❹ 건강을 위한 찜질방

※ 평일에는 일반인들을 위한 펜션 대여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통편 (찾아오시는 길)

■ 2016년 고속철 완공으로 서울에서 30분 소요
■ 새말 IC에서 5분거리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589-1)

분양 면적

대지 500평 한옥 44평 별채 10평
대지 300평 한옥 44평 별채 10평
대지 430평 한옥 44평 별채 10평
대지 200평 한옥 23평 (은행 융자 가능)

(주) 태백산업
직접분양 상담문의 010-5530-6814

# 보리수 아래 깨달음… 우리도 부처님처럼

## 전국 사찰 성도절 맞아 기념행사 '다채'

### 16일부터 참선 · 독경 철야정진
### 부처님 수행과정 되새겨 발심
### 소외이웃 지원 및 장학금 전달도

불교 4대 명절 중 싯타르타 태자가 정각을 이룬 날을 기념하는 성도재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음력 12월 8일(올해 양력 1월 17일)인 성도재일은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불교명절 중 사월초파일 부처님오신날 다음으로 큰 행사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도재일은 그 의미에 있어 부처님오신날보다 더욱 중요하다. 범인이었던 싯다르타가 부와 명예를 뒤로한 채 출가한 후 6년간 고행 끝, 보리수 아래에서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이 된 날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만 중생을 위해 진리를 설한 일은 바로 성도에서 비롯됐다. 그렇기에 대부분 사찰에서는 성도재일에 대대적인 외부행사보단 수행을 강조한 정진과 법회 등을 실시한다.

불기 2560년 성도재일에도 여느 해와 다름없이 각 사찰에서 수행주간 선포와 철야정진, 성도재일법회 등이 열린다.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는 1월 10일부터 성도재일까지 정진주간을 선포하고, 매일 사시예불 때 집중 정진을 실시하고 있다. 성도재일 전날인 16일에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참선을 위주로 한 철야정진에 들어간다. 또한 성도재일 당일엔 일요법회를 겸한 성도재일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남양주 봉선사(주지 일관)는 〈금강경〉 독송 정진법회를 봉행한다. 11일 시작된 정진법회는 17일까지 이어지며 매일 오전 10시 경내 청풍루에서 〈금강경〉 3회 독송을 한다. 기도 집전은 봉선사 포교국장 혜공 스님이 맡는다.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성도재일 3일 정진 기도에 들어간다. 15일 오전 10시 2층 큰법당에서 입재해 3일간 다라니 및 축원 · 주지스님 법문 · 108배 · 퀴즈 '범종을 울려라' · 참선 · 사경(1배 1자) · 새벽예불 등이 진행된다. 자정에는 유미죽을 공양하는데 이는 고행으로 쇠약해진 싯다르타를 본 수자타가 유미죽을 공양한 것에서 유래했다. 싯다르타는 유미죽을 먹고 보리수 아래서 선정에 들어 정각을 이뤘다고 전해진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6일 오후 9시부터 신묘장구대다라니 독경 · 발원문 · 법문 · 108배 · 참선 · 유미죽 공양 · 촛불명상 · 걷기명상 등을 진행하며, 17일 성도재일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 스님 법문이 열린다.

양산 통도사(주지 영배)는 16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3시까지 철야정진을 실시한다. 참선이론에 대한 법문을 시작으로 참선 수행,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 절 수행 등 진행된다. 또한 참가자들을 위한 차량도 운행하며, 16일 오후 8시 동래구 온천장역 앞에서 출발한다.

서울 강북구사암연합회(회장 수암)는 14일 오후 2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성도절 연합법회'를 봉행하고, 소외이웃을 위한 쌀 20kg 350포를 강북구청에 전달한다. 이날 행복선원 선원장 월호스님의 법문과 가수 진성 씨의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한편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는 10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관 3층 5A홀에서 '제5회 성도재일 기념대법회 및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대전 비구니청림회(회장 효경)는 9일 청림회문화회관에서 '성도절 문화예술재'를 봉행, 혜민 스님 초청 법문과 보문중고교 학생 및 파라미타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등을 진행했다.

윤호섭 · 박아름 기자

**성도재일 정진 · 법회 일정**

| 사찰명 | 행사내용 | 일 시 | 연락처 |
|---|---|---|---|
| 서울 봉은사 | 철야정진기도 | 16일 오후 9시~익일 오전 4시 | 02-511-6070 |
| 서울 진관사 | 다라니 1000독 | 16~17일 매일 오전 9시 | 02-359-8410 |
| 서울 길상사 | 철야정진기도 | 16일 오전 9시~익일 오전 4시 | 02-3672-5945 |
| 예산 수덕사 | 철야정진기도 | 15~17일 매일 오후 7시 | 041-330-7700 |
| 경주 불국사 | 성도재일 법회 | 16일 오후 7시 | 054-746-9912 |
| 김천 직지사 | 성도재일 기도 | 10~17일 매일 오후 7~9시 (*17일은 익일 오전 3시까지 철야정진) | 054-429-1700 |
| 장성 백양사 | 철야정진기도 | 16일 오후 7시~익일 오전 3시 | 061-392-2081 |
| 구례 화엄사 | 3천배 철야기도 | 16일 저녁예불 후 | 061-783-7600 |
| 강원 신흥사 | 철야정진기도 | 16일 저녁예불 후 | 033-636-7393 |

# 육군 50사단 낙동강연대 신축법당 기공

## 2012년부터 불사기금 1억1000여만 원 모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1월 5일 육군 50사단 낙동강연대에서 신축법당 기공법회를 봉행했다.

경북 구미소재 육군 50사단 낙동강연대에 신축법당이 들어선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1월 5일 육군 50사단 낙동강연대에서 신축법당 기공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해 남화사 성화 스님, 구미사암연합회장 보광 스님, 제2작전사령부 보봉 정인성 법사, 50사단장 서정천 소장, 낙동강연대장 이병필 대령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낙동강연대는 지난 2006년 지역 스님들과 포교사단이 연대 예비군 식당에서 처음 법회를 봉행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2012년부터 구미사암연합회원 스님들이 불사기금을 모연, 현재까지 25개 사찰에서 1억1000여만 원을 모금했다.

이날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신축법당이 군장병들의 마음에 평화와 용기를 주는 의지처가 될 것"이라며 "낙동강연대 불자장병들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부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천 사단장은 "연대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와 심신 안정,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포교 중심도량이 될 수 있도록 사단정과 전 장병들은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섭 상병은 불자장병을 대표해 "부처님의 자비와 은덕으로 불사가 원만히 회향돼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참다운 불자가 되겠다"고 발원했다.

신축법당은 올해 부처님오신날 전 완공 예정이다. 건축면적 40평 규모에 약 5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단열 판넬 형태로 건립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 성북장애인복지관, 새해맞이 '떡국 나눔'

## 1월 6일 홈플러스 월곡점 함께해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선재)은 1월 6일 '따뜻한 떡국 한 끼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홈플러스 월곡점이 지원하고, 다솜모아봉사단 · 행복나누미봉사단이 조리 및 배식 봉사를 함께했다.

복지관 이용 장애인 김 모씨는 "절기마다 소외계층을 위해 특식을 제공하는 복지관이 올해도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마련해줘 감사하다"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맛있게 식사하니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아름 기자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선재)은 1월 6일 '따뜻한 떡국 한 끼 나눔' 행사를 열었다.

# 동행, NGO · 복지단체 지원 2016년에도 지속

## 1월 7일 수여식 개최… 종로복지관 외 8곳 선정
## 네팔지진피해 구호단체 지원 등 신설분야 '눈길'

아름다운동행이 2016년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단체 및 기관들을 지원함으로써 아름다운 사회 구현에 앞장선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이하 동행)은 1월 7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2016 NGO 및 복지단체 지원 공모사업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는 동행이 지난해 11월 9일~12월 4일 NGO 및 사회복지단체 ·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 지원 공모사업을 실시, 선정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52곳 신청기관 중 9곳이 선정돼 총 1억 원 지원금을 조달받았다. 선정기관 9곳은 △소외계층지원분야-종로종합노인복지관, 전북불교네트워크, 증평종합사회복지관, 광주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칠원지역아동센터 △환경지원분야-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국제개발 및 구호분야-젊은부처들 △기획지원분야-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미추홀공덕회 등이다.



(재)아름다운동행은 1월 7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2016 NGO 및 복지단체 지원 공모사업 수여식'을 진행했다.

올해로 6회째 맞는 NGO 및 복지단체 지원 사업은 기존 지원분야인 △소외계층 지원 분야 △환경 분야 △국제개발구호 분야 등서 범주를 넓혀, 이혼 · 취업난 · 실직 등 사회분야 활동단체와 네팔지진구호단체를 새롭게 선별했다.

이에 따라 네팔지진피해지역 공동체 복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단체 '젊은부처들'은 3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젊은부처들 회장 탄경 스님은 "그동안 많은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았지만 지원금이 모자랐다. 이번에 동행에서 마련해준 지원금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피해를 입은 각 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원활한 피해복구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 심사위원단은 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이 심사위원장으로 나선 가운데, 최영신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해영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기출 한국국제문화교류원 대표, 추교선 양재종합사회복지관장 등으로 구성됐다. 심사기준은 사업계획의 적합성 · 타당성 · 창의성 · 지속성 등 고려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7박8일 면벽수행하며 화두 참구

## 행복공장, 24일부터 홍천서 금강 스님 지도로

재가자들을 위해 1평 남짓한 독방서 화두에 드는 수행법이 마련된다.

(사)행복명상(이사장 권용석)은 1월 24일부터 7박8일간 행복공장 홍천수련원에서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지도로 '무문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무문관은 중국 남송의 선승 무문 혜개가 지은 불서로 48개의 공안을 풀이한 책 〈선종무문관〉을 지칭한다.

4회째 맞는 이 프로그램은 출가자를 위해 실시됐던 수행법을 일반인들에게 확대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수행기간동안 1.5평의 독방서 폐관 수행을 한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무문관〉에 대한 금강 스님 방송강의가 진행되고, 오후 3~6시까지는 1층 강의실서 초심자를 위한 금강 스님 강의 및 수행문답이 이뤄진다. 참가자가 강의 및 수행문답 참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엔 7박8일간 독방에서 나오지 않고 정진할 수 있다.

수행 일정은 1일차 오후 2시 OT 및 입문강의를 시작으로 오후 8시부터 폐관 수행에 들어간다. 매일 오전 6시 기상해 108배 · 강의 · 수행문답 · 폐관 수행을 이어가며 마지막 날인 31일 회향한다. 선착순 25명에 마감하며 참가비는 50만원이다. 행복공장은 1월 외에도 8월 21일~28일 무문관 수행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사)행복공장은 '성찰과 나눔을 통한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목적으로 2009년 12월 설립했다. 다양한 성찰 프로그램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캄보디아 도시 빈민가정 교육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출강 및 통신 2016학년도 제25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불교 법사 신입생 모집

뛰어난 불교교육과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 25년의 법사 교육에 전통과 신뢰는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에 또 하나의 자랑과 긍지입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 |
|---|---|
| 모집과정 |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
| 모집학반 | · 출강반 · 통신반 |
|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6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 ·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02)733-1959 720-1836

福 謹賀新年

대한불교천태종
포항 황 해 사
종 정 효 담
총무원장 정 관
주 지 이문덕
신도회장 최병렬
국내최초
「관음33응신불」봉안
■ 경북 포항시 북구 학잠동 169-3
TEL 054)277-3611~3
FAX 054)277-3644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대구 운불련 호출택시
(한국 운전기사 불자연합회 대구지회)
제 14대 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회 장 조신제
■ 대구광역시동구 용계동 763-11
053)766-7777,053)323-7777
053)566-7777,053)744-8888
053)764-0763~4
FAX 053)764-0766

# “우주와 나 본래 하나… 현재에 집중하라”

## 서울 조계사 미타재일법회

### 조계종 포교원 연구실장 법상 스님

인간을 비롯한 생명은 모두 나고 죽는다. 만남과 이별이 불가분의 관계이듯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뒤따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혹시 모를 고통이나 삶에 대한 집착 등으로 인해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현재를 살라”고 설했다. 〈화엄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체유심조’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조계종 포교원 연구실장 법상 스님은 구랍 25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미타재일법회에서 ‘그대, 죽음이 두려운가’라는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도 삶의 일부이며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법상 스님**은… 1984년 범어사 강원을 졸업, 동국대에서 철학박사를 취득하고 조계종 교육원 교육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포교원 연구실장과 교육원 교육아사리 소임 외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강사로 활동 중이다.

#### 죽음도 삶의 일부다

오늘은 우리와 첨예하게 와 닿는 내용으로 설법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그대, 죽음이 두려운가?’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합장하고 따라 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삶에 있어서 태어남이 있다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로 태어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 죽음과 관련된 것은 싫어하기 마련이죠. 아마도 죽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 그것도 삶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현재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현재를 살고 계십니까?

현재를 살고 계신 분들은 참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변에 귀 기울이보면 사람들이 과연 현재를 살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주로 나누는 얘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나는 과거에 어땠고 뭘 했다”거나 “소싯적에 잘나갔다” 등등 옛 이야기가 많습니다. 단순히 아련한 추억을 되새기며 잠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추억에 빠져 현재를 후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과거뿐만 아니라 또 미래를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처럼 말이죠. 이건 어쩌면 남은 삶을 잘 살겠다는 각오이기도 하지만 절망을 느끼면서 살게 하는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앞서 말씀드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현세에 가장 충실하며 잘 사는 것일까요? 바로 뉘우침이 없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만족할 삶이 되고, 그 만족한 삶은 곧 행복한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움을 없애려면 현재를 잘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현재를 잘 사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배워서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스님들에게 지극한 믿음을 내고, 또 배운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살면 죽음이 닥쳤을 때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집경〉에 보면 수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명과 함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온기(溫氣)라고 합니다. 우주에는 무한에너지가 흐르고 있는데, 그 무한에너지와 공명하는 방법은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며 아미타부처님과 공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미타부처님은 지혜의 생명으로서 태양에너지와 같기 때문이고 그 태양에너지는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개 그렇죠.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 되겠다고 마음을 내죠. ‘부자가 되겠다’ 또는 ‘명예를 얻겠다’ 등등 각각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명예·권력 등 소망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 뭘 얻고 싶어 할까요? 바로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무한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얻게 하는 방법이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는 것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을 자기화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물론 이것은 육신의 영원함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재를 살고 미래를 무한 생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극락세계의 자기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일체 공을 체득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일체중생은 공과 함께 삽니다. 그걸 다른 말로 ‘진여’라고 해요. 그래서 진여와 함께 산다고 하는데 그것은 청정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청정한 마음의 주인공은 내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찰나에 변하는 나에게 집착하지 말고, 놓아버려 무아(無我)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무한생명력을 얻게 되고, 그것은 곧 불성의 발현으로 이어집니다. 불성의 발현은 뭘까요?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불성을 갖고 계시죠? 아미타부처님과 같은 지혜의 생명을 무한에너지 생명으로 바꿔서 현실에 옮기는 작업이 이뤄지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되는 것이고요.

이 우주는 무한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주와 나라는 존재를 가만히 숙고해보면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유지되는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요? 바로 어떤 생이 죽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겁니다.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곡식도 새로운 씨앗을 얻기 위해 한 해가 저물어 결실을 남기고 가잖아요. 그렇듯 죽음은 태어났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탄생 없는 죽음은 없다**
**각자의 집착 내려놓고**
**나를 비우려 노력해야**

#### 내가 있는 곳이 곧 극락

우리는 무언가를 갖기 위해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애착 때문에 스스로 좋고 나쁨을 정합니다. 싫은 게 있다면 내칠 것이고요. 애착은 어떤 접촉에 의해 옵니다. 접촉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육근(六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눈으로 보는 것[眼]·귀로 듣는 것[耳]·코로 냄새 맡는 것[鼻]·입으로 맛보는 것[舌]·몸으로 감촉하는 것[身]·머리로 생각하는 것[意]들이 그것입니다. 즉 육근이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의 경계를 뜻합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인식 대상이 육경(六境)입니다. 눈으로 형상을 보고[色], 귀로 소리를 듣고[聲], 코로 냄새를 맡고[香], 입으로 맛을 보고[味], 몸으로 느끼고[觸], 마음으로 아는 것[法]입니다.

따라서 육근이 육경에 접촉하게 되고, 그 접촉은 곧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과거로부터 내려온 인연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자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은 더더욱 소중하고 값진 것이죠. 무한한 중중무진 법계에서 그만큼 소중한 인연은 또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진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은 생명력과 온기, 식이 합쳐져 이뤄지는데 죽을 때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것이 생명력입니다. 그 다음이 온기고요. 온기가 빠져나갈 때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줄여주는 방법이 앞서 얘기한 아미타부처님의 자기화, 즉 아미타불 염불입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염불을 해서 온기가 정수리로 빠져나가면 극락에 간다고 합니다. 즉 부처가 되는 것이죠. 눈으로 빠져나가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심장으로 빠져나가면 오계를 잘 지킨 것으로 봐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로 빠져나가면 아귀, 무릎으로 빠져나가면 축생, 마지막으로 발바닥으로 빠져나가면 지옥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밝은 얼굴로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극락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평화롭고 행복한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때가 묻어버린 겁니다. 처음 물건을 만들었을 때는 무척 깨끗하지만 사용하다보면 더러워지기 마련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얀 때도 때라고, 더러운 것만이 때는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는 일체중생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함께 사는 우리가 되려면 모든 이들에게 자비의 에너지를 보내야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염불이 그 시작이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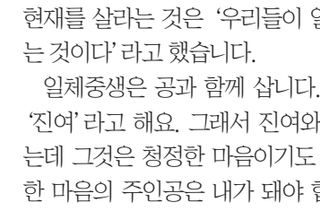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이걸 느끼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속 염불을 한다면 부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지금 결제기간이죠? 이 기간만이라도 열심히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하면 자신에게서 광명이 쏟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견불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를 불퇴전 단계라고도 하는데 아미타부처님의 위신력을 믿고 물러나지 않는 단계에 이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선(禪)에서는 자기 본성을 봤다고 해서 견성이라고 합니다. 즉 나와 아미타부처님이 본질상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본래 마음이란 불생불멸합니다. 염불하면서 나를 텅 비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를 비우는 것을 아공(我空), 나를 이루고 있는 존재까지 비우는 것을 법공(法空), 비웠다는 생각까지도 비우는 것을 구공(俱空)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불성은 천지가 씨앗되기 전에도 있었고, 설사 우주가 무너지고 허공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라지거나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성을 발현하고 사는 것이 참된 불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법당이 극락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극락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살면 죽어서도 극락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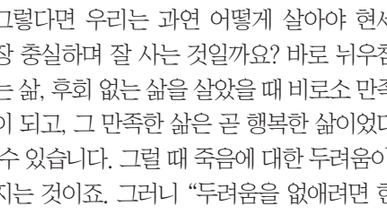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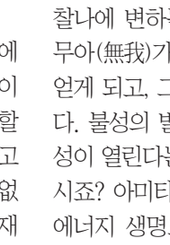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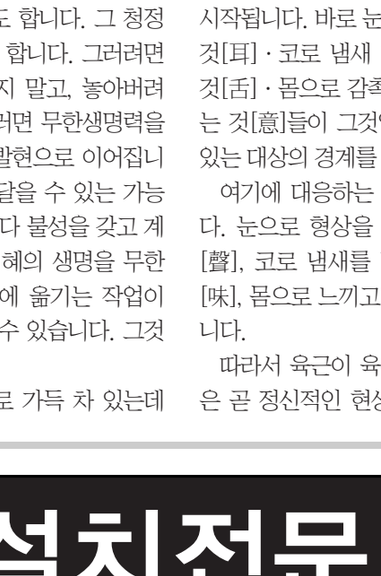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1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 |
|---|---|
| 기본과정 (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 (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신행과정 (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 (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1월 중
◆ 개강일시 : 2016년 1월 중
매주 (월, 수)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인문·예술·종교학 통한 현대 불교학의 지형도는

### 韓불교학회, 1월 30일 동계워크숍

문학 · 사학 · 철학 · 종교학 · 예술학을 통해 현대 불교학의 위치와 연구 방법론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권탄준)는 1월 30일 12시 30분 동국대 법학관 1층 모의법정실에서 2016년 동계워크숍을 개최한다.

'불교학의 지형도와 방법론 탐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통적 연구 방법론이 내재된 불교학이 문학, 사학, 종교학, 예술학 등의 현대 학문 분야와 어떻게 접목되고 연구돼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도업 스님의 '문학으로서 불교문학의 지형과 방법' △조명제 신라대 교수의 '사학으로서 불교사학의 지형과 방법'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철학으로서 불교철학의 지형과 방법' △송현주 순천향대 교수의 '종교학으로서 불교학의 지형과 방법' △장재진 동명대 교수의 '예술학으로서 불교학의 지형과 방법'이 발표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종진(동국대), 조경철(연세대), 김영덕 (위덕대), 최종석(금강대), 정재형(동국대) 교수가 참석한다.

신성민 기자

## 동아시아 종교연구 위한 전문 학자 포럼 창립된다

### 2월 20~21일 창립세미나

동아시아 종교연구자들의 전문 연구 포럼이 창립된다.

동아시아종교연구포럼 한국 측 운영위원회(위원장 신광철)은 2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창립 국제학술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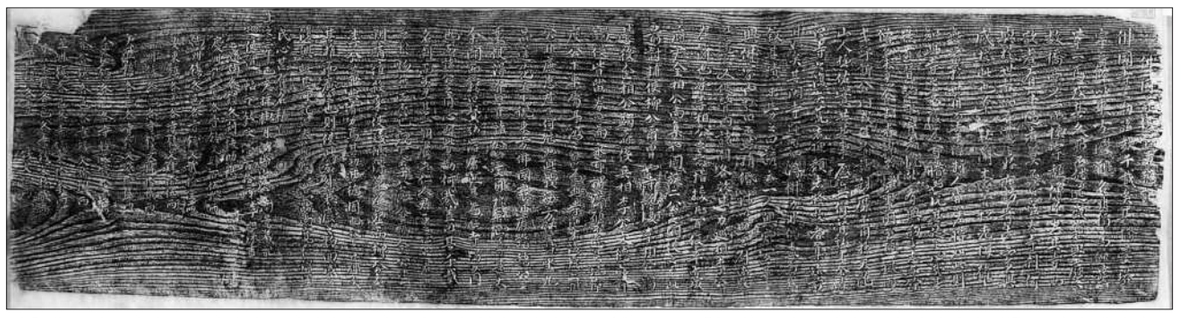
'동아시아종교문화학회'는 지난 2010년 8월 일본 텐리(天理)대학에서 제2회 학술대회 개최를 논의된 이래 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전임 이사회 임원 등 주요 회원들이 학회 재상을 위해 논의를 거듭해 새로운 명칭으로 재탄생한다.

창립 국제학술대회는 '동아시아 종교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며 현재 발표와 토론 등에 대한 참가 신청을 홈페이지(earf.web.fc2.com)를 통해 받고 있다.

신성민 기자

# 18세기 불국사 중창 '民·官·敎' 합심해 이뤘다

### 남동신 교수, '불국사복역공덕기' 탁본 판독문 첫 공개



서울대 중앙도서관 고문헌실에 소장된 '불국사복역공덕기(佛國寺復役功德記, 1779년)' 탁본. 경주 지역 문인 남경희와 찬홍 스님의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화 안에서 경상도 지역 관아가 불국사 중창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미술자료〉88집에 판독 분석**

**유일한 탁본, 현판 행방 묘연**

**목조 현판에 復役 내용 적어**

**찬자와 찬홍 스님 간 대화서**

**중창에 지역 관 · 민 참여 유추**

**"양란 後 사찰 재건 파악 도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파괴된 경주 불국사의 중창에 지역 불교계뿐만 아니라 관청과 낙향 문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기록을 담은 현판 탁본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남동신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간하는 〈미술자료〉 제88집에서 서울대 중앙도서관 고문헌실에 소장돼 있는 '불국사복역공덕기(佛國寺復役功德記, 이하 복역공덕기)' 탁본과 판독문을 공개했다.

'복역공덕기' 탁본은 서울대 전신인 경성제대 도서관에서 1933년 7월 5일 박준화 씨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남 교수에 따르면 공개된 '복역공덕기' 탁본은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본으로 관련한 판독문이 소개된 것도 처음 있는 사례다. 또한 탁본의 모본인 '복역공덕기' 편액이 현재는 남아 있지 않아 사료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탁본의 크기는 세로 34.1㎝, 가로 139㎝로, 편액 조성된 시기는 1779년(정조 3년)이다. 나뭇결이 도드라진 반면 일부 글자가 흐릿해 후대에 목조 현판을 탁본했음을 알 수 있다. 음각한 글씨는 해서, 행서, 초서가 섞여 있다.

'복역공덕기'는 전체 50행으로 2행부터 37행까지는 복역(復役, 호역을 면제시켜주는 것) 내용을 기록했다. 38행은 찬자와 찬술 날짜가 적혀 있으며, 39행부터 50행까지는 경상도 관찰사 이하 관내 읍과 지역 사찰들이 출연한 금액을 기록했다.

'복역공덕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글을 쓴 사람은 조선 후기 경주에서 활동한 낙향 문인 남경희(南景羲, 1748~1812)로, 그가 찬홍 스님과 나눈 대화가 주를 이룬다.

남경희가 자신에게 '공덕기' 찬술을 부탁하기 위해 온 찬홍 스님에게 "속담에 '한 사람이 집을 일으킨다' 했는데 그대가 불가(佛家)를 일으켰다"고 칭송하자 찬홍 스님은 겸양하며 복역을 해준 관아에 공덕이 있음을 술회한다.

'공덕기'에서 찬홍 스님은 "돈을 출연해 일을 돕고, 관내의 여러 절로 하여금 각각 힘을 다하게 한 이는 경상도 순찰사 이재간(李在簡, 1733~1789)이며, 뜻을 이어받아 기술자를 지휘해 완성시킨 것은 경주부윤 김상집(金尙集, 1723~?)이다. 둘 사이를 주선해 여기에 이르게 한 것은 前 토포사 유이주(柳爾胄, 1726~1797)이다"고 공덕을 찬탄한다.

또한 "순찰사 이재간이 영역(營役)을, 부윤 김상집이 부역(府役)을 덜어주었고,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이문덕(李文德)이 역을 덜어줄 것을 허락했다"면서 "서방세존께서 구품연화 위에 앉아 동쪽의 불국사가 쇠폐(衰廢)한 것을 굽어보시고 제공(諸公)들의 정성을 유도해 오늘에 있게 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순찰사 이재간의 경우 불국사의 중창 불사에 당시 110냥을 헌납하기도 했음이 '복역공덕기'에 명시돼 있다. 이 밖에도 경주를 비롯한 상주, 안동, 진주, 대구, 김해, 칠곡, 동래 등에서도 보시금들이 올라왔음이 기록됐다.

남 교수는 "'복역공덕기' 탁본은 1779년 이뤄진 불국사 중창 불사를 파악하는 데 거의 유일한 사료"라면서 "불사 주체와 윤곽, 후원자, 지역 단위의 출연과 액수가 기록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파괴된 경주 지역 사찰의 재건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역공덕기'와 더불어 '불국사대웅전중창단확기(佛國寺大雄殿丹ø\記)'에는 18세기 중후반 일련의 불국사 중창 불사를 주도한 불국사 스님들과 지방관들, 학문과 교육에 전념한 유학자들 사이에 협력 관계를 생생하게 증언한다"면서 "이는 양란으로 파괴된 사찰의 복원에 그치지 않고 조선 사회의 재건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지방 사찰들이 참여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丙申年 새해엔 불교 공부 해볼까

### 초기불교부터 과학까지… 불교 강좌 '다채'

2016년 새해부터 다양한 불교 강좌가 예정 중이거나 시작됐다. 주제도 초기불교와 불교학, 과학과의 융섭까지 다채롭다.

서울 법련사와 근본불교연구회는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를 초청해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강좌를 진행한다.

강좌는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에서 1월 18~22일(저녁 7~9시), 광주 연화사에서 1월 11~15일(저녁 7~9시), 구례 화엄사 포교당에서 1월 25~29일(저녁 6~8시) 3차례 나눠 이뤄진다.

이번 강좌의 가장 큰 특징은 근본불교 경전인 〈니까야〉와 〈아함경〉을 통해 대승부 경전인 〈금강경〉을 해석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초청강사 이중표 교수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인 조계종은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진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을 종지로 삼고 있다"면서 "이번 강의는 조계종의 종지가 초기 경전인 니까야에 근거를 둔 불교의 정통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불교가 소승과 대승의 무의미한 논쟁에서 벗어나 고통에 빠진 사회를 구원하는 불교 본연의 불사에 매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법련사 · 근본불교연구회**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강좌**

**이중표 교수 초청 1월 개최**

**미붓, '불교학 입문' 강좌 시작**

**3월 중 과학 · 불교 접목 강의도**

지난해 '강남발 불교철학 열풍'을 일으켰던 미래붓다아카데미(대표 이학종, 이하 미붓아카데미)는 1월 5일부터 권오민 경상대 교수를 강사로 '불교학 입문 강의'를 시작했다. 매주 화 · 수요일 진행되는 이 강좌는 불교학의 의미와 목적, 방법 등에 대한 새로운 조명들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붓아카데미는 상반기 강좌로 과학과 불교를 접목한 강의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불교안의 과학, 과학안의 불교'를 주제로 이뤄지는 강의는 현대물리학을 비롯해 진화생물학, 천문학, 수학, 뇌과학 등의 분야에서 불교 사상을 어떻게 투영할 수 있지를 조망한다. 총 12강으로 3~4월 개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3월 중 강순형 前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다신전' 강의와 하반기에는 프랑스 현대철학자와 불교 사상을 주제로 장기적 강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학종 미붓아카데미 대표는 "이웃종교는 삼류 상품을 포장해 백화점에서 팔고 있고, 불교는 초일류상품을 노점에서 팔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강과 같은 가르침을 제대로 활용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불교 강좌가 필요하며 불자들 역시 탁마하고 정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 석남암사지 비로불좌상 국보 승격

### 문화재청, 7일 발표… 보물 지정 및 예고도 잇달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02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국보로 승격됐다. 또한 불교 성보 문화재에 대한 보물 지정과 지정 예고도 잇달아 이뤄졌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보물 제102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국보 제233-1호로 승격 지정

**흥천사 42수 관음상 등 지정**

**부산 운수사 대웅전 지정예고**



국보 제233-1호로 승격 지정된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했다"고 1월 7일 발표했다.

국보로 승격 지정된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766년(혜공왕 2)에 제작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지권인(智拳印) 비로자나불상으로, 제작 연대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고대 조각사 연구에서 기준이 되는 유물이다.

그간 학계는 지권인을 한 여래형 비로자나불이 9세기 중엽 나타났다고 보았으나 이 석조좌상의 발견으로 8세기 중엽부터 지권인 비로자나불이 조성됐음이 확인됐다.

또한 신년을 맞아 보물 지정과 지정 예고도 잇달았다. 문화재청은 1월 7일 국보 승격 지정과 함께 '고려 십육나한도(제7 가리가존자)' 등 6건을 보물로 지정했으며, 구랍 31일에는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등 5건을 보물 지정했다. 1월 5일에는 부산 유형문화재 91호 '부산 운수사 대웅전'을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계의 가장 권위있는 학회가 출범시킨 "서울 승가대학" 개강

서울 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

초발심자경문에서 대방광불화엄경까지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셨던 인명논리로 바라본 나란다식 경율론 삼장교육

대 상 종단을 구분하지 않고 비구스님과 비구니스님을 포함한 승가교육을 희망하는 분들 (재가자-남신도, 여신도 포함)

모집인원 20명

학 비 연 100만원

개 강 일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강 사 진 학회장 스님과 학회소속 지도교수와 특강강사

교육과정 전문과정:2년 / 연구과정:4년 / 교수사과정:7년

강의시간 주 2회 6시간 (금요일 저녁 3시간, 토요일 오전 3시간)

문의 : 서울승가대학 교학과 사무실 / 02-414-1222

010-8969-9444 (지암스님)

010-7225-8426 (명혜스님)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뭇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 부산불교聯, "문화·국가 발전 위해 노력"

## 1월 6일, 코모도 호텔서 신년하례회 개최

부산불교를 이끌고 있는 사부대중이 2016년 신년하례회를 개최, '전통문화계승·복지사회·정법 홍포'를 위해 정진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했다.

(사)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는 1월 6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부산불교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불교계는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으로 부산시 발전에 이바지 할 것과 전통문화계승·복지사회·정법 홍포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전통문화사업으로는 △부산연등축제 △팔관회 △부산불교합창제 △송구영신한마당 △동지팥죽 축제를 계획, 전통불교문화 계승과 발전에 노력할 방침이다. 사회공헌사업은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기원 활동'을 통한 지역발전 이바지 △사회복지 및 청소년문화사업 △다문화 가정 지원 △철새먹이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포교사업은 △회원사찰 권익보호와 친목도모 및 교권수호 △봉축·성도재일·열반재일·출가재일 4대 명절 기념행사 △사명대사추모사업 및 학술세미나 △부산불교계 제1기 108인회 교육 △부산불교100년사 편찬 등을 통해 화합의 부산불교를 지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지난 2015년의 불교계 주요 성과로 '부산 시민 80만 명이 함께한 연등축제'와 처음 개최한 '제1회 송구영신한마당' 축제를 꼽고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 나갈 것을 계획했다.

**전통문화계승·정법 홍포 다짐**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활동**
**"한국불교 중심으로 우뚝 서길"**
**부산불교승가聯, 8일 신년하례**

신년하례회는 사부대중이 함께 새해 첫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 △부산불교 2015년 주요성과보고 △2016년 부산불교 주요사업보고 △봉행사 △축사 △신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영상을 통해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 내 건립할 '부산BBS 신사옥 건립'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부산불교연합회는 2016년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은 "올해도 부산에서는 다양한 불교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며 "승가는 부산불교연합회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재가는 부산불교연합신도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부산불교가 한국불교의 중심으로 우뚝 서도록 합심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 고문 정각 스님, 계전 스님, 혜총 스님, 지현 스님, 부산 16개 구군불교연합회 회장 스님 및 회원 스님,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해동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준 부산교육감 및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사)부산불교승가연합회(회장 조연)는 1월 8일 코모도 호텔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회장 조연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천주교 왕수영 신부 외 부산 6대종교 지도자 10명이 함께해 종교화합과 발전을 위한 축사 및 건배제의도 진행했다.

회장 조연 스님은 "승가연합회가 당간을 세운 지 세 번째 해를 맞이한다"며 "이제 부처님의 법을 여법하게 세우며 세계가 불국정토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 현불연, 14일부터 〈대승기신론〉 강좌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양정로터리 불교회관서

부산 경남 불교학자들의 연구모임 현대불교연구원(원장 무관)이 2016년 새로운 특강 강좌 '원효 스님의 눈으로 대승기신론을 읽다'를 개강한다.

1월 14일부터 4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이번 강좌는 부산 양정로터리 불교회관 5층 현대불교연구원에서 진행된다. 교재는 〈대승기신론〉, 〈대승기신론소〉, 〈대승기신론별기〉이며 권소용 부산대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강의 내용은 △대승기신론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및 별기의 소개 △대승기신론의 구조와 의미-조론(造論)의 동기, 기신(起信)의 주체와 대상 △마음의 구조-심진여(心眞如)와 심생멸(心生滅) △무명에서 깨달음으로-법신(法身)과 중생신(衆生身), 본각(本覺)과 시각(始覺), 불각(不覺)과 각(覺) △미혹과 깨달음의 상관관계-종자(種子)와 훈습(薰習), 염법(染法)의 훈습과 정법(淨法)의 훈습, 체·상·용(體·相·用) △미혹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2종의 삿된 견해, 5종의 인아견(人我見)과 법아견(法我見) △소승의 수행과 대승의 수행, 구사론과 기신론의 비교 △신심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신심의 수행(1), 4신과 5문 △수행의 결과 △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 △유통분(流通分) 등이다.

현불연은 "대승기신론은 유심론의 입장에서 인간존재를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마음의 분석이 상세하다"며 "마음이란 결국 자기 자신이다. 따라서 마음의 입체적 분석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같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010-9166-2539

하성미 기자


함안 군법당 안국사가 부대 이전 후 처음으로 진행한 공식 행사 송구영신법회가 구랍 31일 봉행됐다.

# 함안 안국사, 신년 맞아 새 출발 다짐

## 매주 일요일, 오전·오후 정기법회 계획

39사단 충무부대 이전으로 인해 일방적 철거 통보로 한동안 몸살을 겪었던 함안 군법당 안국사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안국사는 새롭게 이전한 함안 39사단에서 첫 송구영신 법회 및 제야의 타종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정기법회를 열어 군포교를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구랍 31일 안국사 첫 공식행사로 진행된 법회에는 신영 군법사를 비롯해 사단장, 부대 간부 및 장병, 지역민까지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를 마친 장병들은 소원지를 작정하며 기념촬영 및 떡국 공양으로 2016년의 새 출발을 맞이했다.

39사단은 앞으로 매주 일요일 오전 장병들과 지역신도들이 함께하는 일요정기 법회, 오후에는 신교대 훈련병 법회를 정기적으로 봉행할 방침이다.

신영 법사는 "경상남도에 모든 장병들이 이곳 39사단 신병교육대대를 거쳐 간다. 신교대 법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포교의 황금어장인 군포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상남도 전역에 위치한 예하 부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 연계해 지역포교에도 앞장 설 것이다"고 밝혔다.

39사단장 문병호 소장은 "올해 충무부대의 무운장구와 건승을 기원하며 행복한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 삼광사, 약사여래 개금불사 점안 법회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가 1월 10일 약사전에서 약사여래 개금불사 회향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을 증명법주로, 주지 무원 스님의 증명으로 열린 이번 점안식은 1부 △경과 보고 △개회사 △법어 △관음정진 2부 점안법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개금불사를 진행한 약사여래는 2014년 부산시 지정문화재 제145호 지정된 석조여래좌상이다. 석조여래좌상은 기본적인 도상 및 옷주름이 17~18세기의 양식을 따르며 조선 후기 부산·경남 지역 석조 불상의 대표적인 재료인 불석으로 제작됐다. 또한 보존 상태가 아주 좋고 조선 후기 석조여래좌상의 일반적인 특징과 미의식이 반영돼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삼광사는 "아픈 중생을 돌보는 약사여래 부처님의 마음을 대중들에게 전하는 계기가 됐다"며 "2016년 개금불사를 한 정성으로 중생들을 위해 활동하는 새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 "부산 BBS, 북항 신사옥 건립 추진"

## 불도 부산 상징화, 건물 외형 '合掌'

동북아시아의 교류허브를 표방한 부산항 북항재개발지역에 BBS불교부산방송의 20년 숙원사업인 신사옥이 건립된다. BBS불교부산방송 사장 수불 스님은 구랍 30일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해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 북항재개발지역 IT·영상·전시지구 내 부지 5천957㎡(약 1천805평)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부지 매입가는 총 210억으로 밝혀졌다.

신사옥을 건립할 북항재개발지역은 원도심 기능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해양관광도시, 해륙교통의 관문도시, 환경친화적인 복합도시, 국제도시를 목표로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지역이다. 교통의 요충지로 KTX부산역이 인접해 있으며 우리나라 동·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축에 위치한 해양관광 거점 지역이다. 앞으로 부산BBS는 IT·영상·전시지구내 인근에 새롭게 들어서는 부산일보사와 부산MBC 사옥과 함께 '부산항 북항 시대'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부산BBS는 올해 상반기 중 건축면적 3천574㎡(약 1천80평), 연면적 5만6천700㎡(약 1만7천800평), 최대 40층 규모로 건축 설계용역을 의뢰한다. 신사옥 외형은 한국불교의 중심인 불도 부산을 상징화한 '합장(合掌)'을 이미지화 했다. 신사옥 내부에는 영상스튜디오가 처음으로 제작되며, 현재 2개인 라디오스튜디오가 3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신사

**구랍 30일, 약 1805평 토지계약**
**매입가 210억원… 2020년 착공**

옥이 조성되면 방송국뿐만 아니라 불교계의 주요 기관들도 함께 입주할 예정이다. 신사옥 건축 공사는 2020년 3월 착공해 202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부산BBS는 "설계 용역이 끝나고 IT·영상·전시지구 내 기반시설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착공 시기는 당겨질 수 있다"며 "특히 부산BBS 신사옥이



불교부산방송 신사옥 조감도

건립되면 방송국뿐만 아니라, 미디어테마파크와 ICT센터를 비롯해 국제선센터, 불교계의 주요 기관들이 입주해 부산불교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고 전했다.

부산BBS는 지난 1995년 개국 이후 지난 20여 년간 신사옥 건립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개국 21주년을 맞는 오는 2월 1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부산BBS 신사옥 건립 선포식'을 연다. 하성미 기자

Buddhists of The World King
(사)세계불교법왕청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정기 각료회의 소집공고



각료 회의 소집 공고

정기 각료 회의 2015년 12월 이전에 임명되었던 모든 각료는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새해 주요 안건 심의와 정책 안건 검토를 할 것이며
그동안 각료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회의를 계속 불참하는 각료들은
1월 정기총회에서 각료로서의 인성, 인격, 인품, 참여도, 출석률 등을 심의 의결후
재정비 차원의 임명장 회수 및 명단과 사진을 기재하여 해임사실을
신문지상에 공지할 것임.

■ 일시 : 2016년 1월 21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미얀마문화원

세계불교도들의 법왕 우꾸마라 사야도 보좌 기획관리 장로 목탁 합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대표전화 02-733-5665

*세계불교 포교와 봉사로 지구촌 구석구석 인간방생, 중생교화에 헌신할 인재를 기다립니다.
인간다운 인간 승려다운 승려이면 대환영합니다.

종교법인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사단법인 : 세계불교법왕청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 세계불교법왕청.com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高僧長老團.

국제붓다봉사단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호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팩스 733-5615. H.P : 011-229-6061

# 광주 봉축위, 연희단 활성화 나선다

## 어린이·청소년 연희단 발굴에 진력

연희단은 '연등회의 꽃'으로 불린다.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연등회의 활력과 즐거움이 연희단에서 비롯됨을 비유한 말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연희단은 비교적 활성화되지 못해 불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빛고을 광주에서 연희단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엿보여 화제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 증심사 주지)는 올해 봉축행사를 '다함께 즐겁고 행복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연희단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 산하에 '연희단특별기획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일명 스님(금선사 주지), 부단장에 지장 스님(동원사 주지)을 임명했다. 또 10여 명의 재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기획단 회의를 통해 연희단의 활성에 나선다.

일명 스님은 "불자들이 봉축행사에 참여했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희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광주의 경우 봉축행사에 많은 불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사를 통해 불자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싶다"며 기획단 결성 취지를 설명했다.

일명 스님은 연희단 활성화의 구체적 실천방법에 대해 "연희단은 우선 기존 사찰 합창단을 연희단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당 사찰과 협의 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종립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청소년 계층의 연희단을 발굴하고, 불교단체의 연희단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합창단의 연희단 변화 모색**

**마주보는 원형 특설행사장 준비**

**율동지도자 양성 강습·회원모집도**

연희단 활용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연희단은 연습한 것을 발표할 공간과 시간이 중요하다. 서울행사처럼 먼저 봉축법요식에 앞서 어울림마당을 통해 연희단의 공연과 활기찬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8년 빛고을 연등축제에 선보인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연희단.

광주불교연합회 총무부장 증현 스님은 "효과적인 어울림마당을 위해 신도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볼 수 있도록 계단형 관람석을 무대 주변에 설치해 원형 경기장 형식의 행사장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의 경우 도심에 서울과 같은 원형 행사장을 확보하기 어려워 부득이 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에 조립식 관람석을 설치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일명 스님은 "향후 연희단 율동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강습회를 개최하고, 1월 중 연희단 구성을 위한 회원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불교계는 지난 2008년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에서 처음 연희단을 선보인 적이 있으며, 지난해 봉축행사에 연합합창단이 단체율동을 선보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1월까지 연희단 구성을 위한 단원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전북지역 사찰, 차분한 새해맞이

## 선운사 '詩, 음악으로 말하다'·금산사 해넘이 법회

전북지역의 사찰들이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병신년 새해를 맞았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구랍 31일 경내 지장보궁에서 을미년 한 해를 마감하고 병신년 새해 새 희망의 아침을 맞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詩, 음악으로 말하다'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시와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한 해의 마지막을 감성으로 물들였다.

김이곤 음악감독의 시·음악해설과 더불어 김종현 피아니스트, 장우리 첼리스트가 출연해 1년 사계절을 찬탄한 아름다운 시와 음악을 하나로 묶었다. 음악회에 참석한 청중은 '고향의 봄', '동심초' 등 우리 귀에 익숙한 가곡과 '사랑이야', '얼굴', '가을편지', '열애' 등 아름다운 노랫말을 가진 대중가요를 함께 들으며 을미년 한 해를 차분하게 마무리했다.

음악회에는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 문수사 주지 태효 스님, 개암사 주지 재안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선운사노인종합복지관, 나누미보듬이 어린이집, 육아지원센터 직원들이 동참했다. 또 병신년 새해 아침을 산사에서 맞이하기 위해 선운사를 찾은 200여 명도 스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범종각에서는 자정을 기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범종을 타종하며 지난해의 액운을 떨쳐버리고 새해 소망을 소원지에 담아 기원했다. 타종 후에는 지장보궁에서 새해 첫 철야정진이 봉행됐다. 1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철야정진은 〈지장경〉 독경, 지장정근, 1080배 정진 등이 이어졌다. 아침 일찍 공양을 마친 대중은 도솔산 천마봉에 올라 새해 일출을 감상하며 저마다 병신년 새해 소망을 기원했다.

경우 스님은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되도록 선운사 대중들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에서 와 철야정진에 동참한 이상현 불자는 "새해에는 회사도 안정되고 가족도 건강하고 주변사람들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1년 뒤에 기회가 된다면 꼭 가족과 함께 사찰을 다시 방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랍 31일 군산 은적사에서 봉행된 금산사 해넘이 법회에서 대중이 탑돌이를 하고 있다.

한편 금산사(주지 성우)는 구랍 31일 서해의 끝자락에 자리한 군산 은적사에서 한 해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해넘이 법회를 봉행했다.

해넘이 법회는 성우 스님과 남고사 주지 원혜 스님, 익산 관음사 주지 덕림 스님, 금산사 포교국장 지월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동참대중은 탑돌이와 범종 타종을 하며 메르스 사태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을미년 한 해를 차분한 마음으로 정리하고, 병신년 새해 전북불교발전과 각자의 소망을 기원했다.

성우 스님은 "행복은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신심과 열정으로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참좋은우리절, 청소년 심리치유 캠프

## 15~17일 마음다스림 통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이 청소년들의 마음다스림을 통한 자기계발을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 심리치유 캠프를 개최한다.

1월 15~17일 2박3일 일정으로 참좋은우리절 명상나눔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의 성적향상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창의력과 집중력 향상,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입시경쟁을 통한 정서적 불안감, 산만함, 학업스트레스 치유와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심리치유 캠프는 진로상담 전문교사의 집중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지난해에 이어 학부모들의 큰 호응에 따라 방학에 맞춰 열리면서 더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캠프는 심리검사와 적성테스트, 미술치료, 영상관법치료, 연극치료 등의 프로그램과 용구통제를 통해 마음을 자각하는 SATI, 미드 알파파 유도시술을 통한 두뇌 튜닝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심리치유 캠프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프로그램을 일반 청소년에게 제공해 포교와 전법 활성화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좋은우리절 지도법사 무근 스님은 "그동안 청소년심리치유캠프를 진행하며 축적된 여러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인성프로그램과 접목해 보다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반 청소년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운주사 전설, 가족 뮤지컬로 만난다

## 천불천탑 이야기 13일까지 빛고을문화회관서

운주사 와불의 전설을 모티브로 한 어린이 국악체험 뮤지컬 '얼씨구나 벌떡, 와불와불'이 수도권 공연에 이어 광주에서도 화려한 공연의 막을 올렸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인 '얼씨구나 벌떡, 와불와불'은 2014년 전남·광주 스토리랩 최우수 수상작으로 오는 13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회관에서 1일 2회 공연한다. 공연은 평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시 30분, 주말은 오후 2시·5시에 열린다.

탄탄한 스토리와 어린이 참여형이라는 흥미진진한 구성이 돋보이는 이번 뮤지컬은 고양시 초연에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 관객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으며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화순 운주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와불의 전설을 모티브로 한 연극은 운주사 와불의 전설로부터 천년의 시간이 흐른 뒤, 엉뚱하고 호기심 많은 소녀 단지가 동자승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머슴불, 하늘의 별이 되고자 하는 칠성돌을 만나 와불을 일으킬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천불산 도깨비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다.

화려하고 다양한 시각효과와 색다른 국악으로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들에게 친구의 진정한 가치까지 일깨워줄 오감만족 뮤지컬로 주목받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월정사, 2016 상반기 재적승 장학금 신청

## 1월 20일까지 관련서류 종무소 접수

조계종 제4교구본사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1월 20일까지 2016년 상반기 재적스님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대학 신입생 및 재학중인 제4교구 재적스님이다. 신청희망자는 장학금 신청서(본사양식)와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 사본), 등록금청구서(고지서) 사본 각 1부이며, 월정사 종무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033-332-6915)·이메일(woljeongsa@nate.com)로 접수하면 된다. 033-339-6613

윤호섭 기자


보련기획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 월 등



공 단 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 냉정과 열정 사이? 성욕과 수행 사이!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㉜ 불교의 성문제에 대한 소고**



그림 · 최주현

이야기가 출가자와 재가자의 수행과 덕목으로 나갔으니 이참에 성(性)의 문제까지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마침 저팔계가 자제를 못하고 덤벼들었다가 곤욕을 치르는 것이 바로 색욕 때문이잖아요? 고전에서 색(色)이란 곧 성적인 것을 말했지요. 남성중심 사회에서는 특히 여색이라는 말로 쓰였고요. 유가(儒家)에서도 색(色)에 대하여는 말이 많았습니다. 도덕적인 성실함을 비유하는데 진정한 성실함이란 '마치 멋있는 성적 대상을 좋아하듯이, 나쁜 냄새를 싫어하듯이' 해야 된다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유가에서도 인간이 지닌 가장 강열한 자연적인 지향성을 성적인 것으로 본 것이지요. 그리고 도덕적인 추구가 그처럼 강열하고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바랐다고나 할까요? 몇 십 년 전만해도 여자 분들께 '섹시하다' 고 말하면 어땠을까요? 잘못하면 따귀 맞을 판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자 분들께 '섹시하지 않다' 고 말하면 어떨 거 같아요? 역시 잘못하면 따귀 맞지 않을까요? 이쿠~ 성차별적인 발언이라구요? 꼭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구요? 그렇군요. 제가 남자다보니 역시 그런 차별적인 관점이 나오고 말았네요.

그렇지만 세상이 달라졌으니 "그런 고리타분한 관념 다 때려치워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유가에서는 사람을 도덕적인 동물로 규정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점은 도덕성을 지니고 있는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는 길은 도덕적으로 사는 길이고, 그러한 사람다움을 추구하려는 의지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적인 추구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의 추구가 가장 사람답게 사는 길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요. 그것을 금기시하고 낮추어보려는 시각은 사람이 타고난 자연스런 요소를 죄악시하거나 비하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연성을 무시하고 어떤 이념의 틀에 억지로 맞추려 하는 것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것의 추구가 유일한 가치인 것처럼 여기는 현실도 참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높은 이상은 완전히 실종되고, 성적 욕망을 비롯한 욕망추구가 유일한 가치처럼 여겨지는 지금의 현실도 문제라는 것이지요.

지금 주제가 성적인 것에 대한 태도의 문제지요? 너무 멀리 돌아나가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한 작은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죄로 보거나 억압하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의 추구가 마치 제일 소중한 것처럼 여겨지거나 해서는 안 된다. 사람답게 사는 길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있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인간상들이 제시되며, 거기에 성의 문제 등도 포괄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대충 이런…. 애구, 말하다 보니 어중간한 절충에 그치고 만듯하군요. 뭐 그렇다 해도 절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적당히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교에서는 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요? 이것이 정말 문제이고, 우리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상 불교에서의 성 문제를 다루려 해 보면 정말 앞이 콱 막히는 듯한 갑갑함이 있습니다. 왜냐구요? 논의 자체가 시작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입니다. 그것은 또 왜일까요? 출가자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성 문제에 대한 출가자의 관점이 불교 전체를 지배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출가자의 성 문제에 대한 시각은 어떨까요? 정말 철벽방어를 연상하게 하는, 성문제에 대해선 무조건 차단위주로 가는 것이 출가자의 성에 대한 시각입니다. 출가자의 규범을 정하고 있는 율장이 무엇부터 시작하는지 아시지요? 바로 성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율장을 읽다가 정말 충격적인 표현을 발견하였습니다. 비구 스님의 색계(色戒)를 설하는 대목에서 여성의 성기를 독사의 아가리처럼 여기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것이 불교 전체의 성문제에 대한 시각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위에서 말한대로 성 문제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 내지 부정의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재가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라구요. 성적인 것은 정말 추하고, 자손을 두기 위해 어쩔 수 없어 하기는 하지만 청정한 생활을 해치는 저열한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은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부부간의 성생활을 하면서도 "부처님, 할 수없이 죄업을 좀 짓겠나이다"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나요? 하고나서는 열심히 그 죄를 참회하고 청정한 삶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요? 그렇다면 정말 비참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 것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처님이 오시더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가진 자연스런 본성을 죄악으로 보거나 하는 것은 가르침의 본질일 수가 없는 것 아니냐구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것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명에 휩싸여 있고, 연기의 진리에 눈멀어 있기에, 나라는 집착을 바탕으로 욕망을 일으키기에,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는 탐욕의 삶을 살아가기에, 그래서 그것들이 고통을 일으키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반대로 무명을 벗어나 깨달음을 얻고, 연기의 진리에 눈을 뜨고, 나라는 집착을 벗어나고, 무소유의 자세로 삶을 살아나간다면, 자연적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재가 되는 것이고, 불국토 건설의 바탕이 되는 것 아닐까요?

**금욕의 출가자 상이 불교입장 굳어져**
**출·재가 막론 교단 내 성담론 전무**
**욕망과 정진의 중도길 걸어야**

중생의 관점에서 중생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저나름으로는 당당합니다.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을 죄악시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보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 지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관(不淨觀)이라든가 백골관(白骨觀) 같은 관법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관법이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사람의 몸뚱이를 똥, 오줌, 피, 고름 같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가죽주머니로 보거나, 죽고 나서 썩어 하얀 백골이 된 모습을 관조하거나 하는 관법입니다. 더럽다든가 깨끗하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일 따름이지요. 그런 관법을 행하는 것은 참 모습을 바르게 보는,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에 관한 탐착이 지나치게 큰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대치(對治)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육체는 더럽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지요. 사람의 몸뚱이가 그저 그러할 뿐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나친 탐착하는 것을 깨기 위한 방편으로 말해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러한 관점들이 불교의 가르침인 것처럼 둔갑하고 행세하는 것이 현실 불교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에 입문하면 제일 처음 듣는 것이 그런 류의 가르침 아닌가요? 무상하다, 덧없다, 욕망을 벗어라…. 등등의 부정적인 표현들이 난무하지 않나요? 첫 번째 말한 '무상하다' 라는 것은 사실을 말한 것일 뿐인데, 거기서 세상의 일을 하찮은 것으로 보는 감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하지는 않던가요? "욕망을 벗어라"는 말 속에는 욕망은 추하고 더러우며, 죄업을 짓게 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담고 있지 않은가요? 물론 이런 표현들이 전혀 필요 없다거나, 이유 없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무상함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디로 달려 나가는지도 모르고 욕망에 끌려나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기 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역시 우리의 그런 병을 고치기 위한 대치(對治)의 방편이라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성문제와 욕망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게 된 것은 출가자에게 요구된 삶이 불교의 이상적 삶으로 된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지요? 성 문제에 제한하여 좀 더 부연해볼까요? 스님들은 재가자에게 모든 생계를 의탁합니다. 하다못해 스님의 노동도 금지하는 것이 불교의 계율입니다. 그렇게 생계를 위한 것은 모두 재가자에 의탁하면서, 모든 힘을 수행에 쏟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삶을 이끌어나가는 힘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도 통제가 힘든 것이 바로 성적인 충동입니다. 식욕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성욕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식욕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성욕이 아닐까 싶습니다. 먹는 것은 나눠먹는 것이 미덕일 수 있지만, 성적인 대상은 나누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 독점적인 욕망의 대상 입니다. 그러니 출가자의 계율에서 그토록 엄하게 금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출가자의 삶과 재가자의 삶이 전혀 다른 조건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존중받는 출가자의 삶 자체를 그대로 이상적인 삶으로 여기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성에 대하여는 하찮게 보고, 죄악시하고 금기시하는 것이 불교의 입장인 것으로 암암리에 굳어진 것 아닐까요? 이런 입장에서는 현대사회의 큰 문제인 성의 문제에 대해 건강하고 건설적인 조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가 현대인들의 삶에 참된 지침을 주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그건 그렇고요. 서유기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현장법사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은 다 출가자의 신분입니다. 손오공을 손행자, 사오정을 사화상으로 부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런 출가자들이, 서역으로 경을 가지러가는 거룩한 출가자들이 색계를 범하면 역시 안되는 일이겠지요?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신 성 불 상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전화 031-533-7724. 010-5223-5174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 어람관음, 물고기 바구니 들고 오시다

## '그 절집의 빛'

### ① 양산 신흥사 대광전 삼존관음보살벽화


후불벽 뒷벽의 삼관음보살벽화. 수월관음을 중심으로 그 오른쪽에 백의관음, 왼쪽에 어람관음을 모셨다. 어람관음께선 왼손에 물고기 바구니를 들고 계신다.

**벽화의 향연을 갖춘 '작은 성보박물관'**
**수월관음 · 백의관음 · 어람관음 삼존벽화**
**맨 땅에 맨 발로 서계신 '어람관음보살'**
**법의에 베푼 문양, 세밀가귀의 아름다움**

#### 국내 유일의 삼관음벽화

법신불이 화현(化現)하여 보살의 모습을 하고 중생 속으로 나투시는 것을 '수적(垂迹)'이라 한다. '드리울 수, 자취 적'이니 발자국을 드리우다는 뜻이다. '권화(權化)'도 같은 말이다. 특히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갖가지 응신(應身)으로 나타난다. 재상, 거사, 비구, 비구니, 소년, 소녀 등 다양한 몸으로 수적을 남기신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는 33응신으로, 〈능엄경〉에서는 32응신으로 나타난다. 중생의 처지에 따라 여러 변화신을 보이는 것을 '보문시현(普門示現)'이라 한다. 그 모든 위난에 처했을 때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위신력을 갖추신 분, 그 분이 관세음보살이다.

대웅전, 극락전 등의 후불벽 뒷면에 그 위신력을 갖춘 관음보살을 독존으로 그려 예경과 치성을 드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후불벽의 벽화 대부분은 수월관음벽화다. 무위사, 내소사, 관룡사, 양산 신흥사, 마곡사, 직지사, 여수 흥국사 등 전국에 10여 곳의 사찰에 수월관음벽화가 남아 있다. 그 중에서 양산 신흥사 대광전 후불벽 뒷면의 수월관음벽화는 특별한 주목을 끈다. 일반적인 독존형식이 아니라 국내 유일의 삼관음벽화(三觀音壁畵)다. 백의관음, 수월관음, 어람관음의 세 존상을 모셨다. 특히 어람관음의 존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내 유일성으로 귀중한 성보의 가치를 더한다.

#### 사찰벽화의 보고

양산 신흥사 대광전은 사찰벽화의 보고(寶庫)다. 통도사 영산전, 무위사 극락보전 벽화만큼이나 소재, 표현 등이 풍부하고 다양하다. 아미타여래삼존도, 약사여래삼존도, 팔상도 벽화, 삼관음벽화, 육대보살도 등 희소성과 예술성이 주목되는 성보들이다. 외부와 내부에 걸쳐 69개체의 도상이 베풀어져 있다. 벽화의 향연을 갖춘 작은 성보박물관에 가깝다. 벽화의 제작연도는 도상의 개채여부에 따라 대광전 건축의 절대연도인 1657년 무렵부터 19세기까지 편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삼관음벽화는 후불벽 뒷면의 흙벽을 화폭으로 삼았다. 색채운영에서부터 다른 수월관음도와 확연히 다르다. 화면이 전체적으로 검다. 바탕을 묵으로 검게 마감하고, 흰 선으로 그린 독특한 백묘벽화다. 직지사 대웅전 후불벽 수월관음도와 채색의 색감에서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단지 직지사 벽화는 필선을 검은 먹선으로 운용하고 있어 차이가 난다. 신흥사 삼관음벽화는 검은 바탕에 흰 선의 필획으로 커다란 면을 채워나간 까닭에 문양 묘사력이 대단히 섬세하고 치밀해서 감탄을 금할 수 없다. 화면 전체에 정교함과 세밀함이 가득하다. 중국 송나라 사신 서긍이 고려나전을 보고 말했다는 '세밀가귀(細密可貴)-세밀함이 아주 귀하다'의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소재의 희소성에 채색원리의 독특함까지 갖춰 희유의 성보예술품으로 빛난다.


어람관음께서 들고 있는 물고기 바구니 세부


수월관음벽화에 시문한 문양 세부


어람관음 옷자락에 시문한 문양 세부

삼관음벽화는 중앙에 수월관음보살을 중심으로 왼쪽에 어람관음보살, 오른쪽에 백의관음을 배대했다. 무대는 파도가 일렁이는 보타낙가산의 바닷가다. 이 낭만적인 장면의 모티프는 〈화엄경〉 입법계품에 있다.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찾아 나서 28번째 찾아간 곳이 수월관음이 계신 보름달빛의 월인천강의 바다다. 수월관음도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소재들, 곧 대나무 한 쌍, 정병에 꽂힌 버드나무 가지, 파랑새 등은 다 갖췄는데 선재동자만 쏙 빼버렸다. 예배자를 구도자의 자리에 남겨둔 배려를 읽을 수 있다. 수월관음의 광배는 좌우 두 관음보살의 광배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광배이면서 동시에 만월의 보름달로 보인다. 하화중생의 대자대비의 공덕은 강물을 비추이는 달과 같다. 세조 때 간행된 〈월인석보〉의 서두에 그 글이 있다.

"부처께서 백 억 세계에 화신하셔서 중생을 교화하심은 마치 달이 천 개의 강을 비추는 것과 같다."

'월인천강'의 비유로 찬불경의 첫머리를 열고 있다. 그 때 달은 곧 부처다. 달빛으로 삼라만상의 뭇 생명에 자비의 빛을 뿌리며 현현하시니, 그 분이 수월관음보살이시다. 부드럽고 유려하며 소리 없이 미어지는 우아한 달빛의 부처님, 상상만으로도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수월관음께선 달 밝은 보름날 바닷가에 오른발을 내린 유희좌로 길상초(吉祥草)에 편안히 앉아 계신다. 길상초는 석가모니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서 무상정등각을 깨쳤을 때 앉았던 성스러운 풀잎방석이다. 왼손으로 짚고 계신 긴 풀잎들이 길상초다.

#### 벽화는 검은 바탕에 백색 선묘

화면의 전체 색조는 검은 바탕에 백색선묘이지만, 찬찬히 들어다 보면 몇 몇 색채가 눈에 들어온다. 석간주 안료를 호분에 푼 육색의 피부, 회록색의 머리카락과 버드나무 가지, 붉은 진사의 입술색 등의 채색이 눈에 띈다. 대광전 뒤 창호문으로 오후의 햇살이 들어오면 화면에 퇴적된 은은한 황금빛도 돋아나기도 한다.

백의관음과 어람관음 두 보살은 인물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비례대상의 법칙을 감안한 것인지 수월관음보다 화면비중을 작게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서있는 모습이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서있는 자세가 밀로의 비너스 등 고대 그리스 조각상에 자주 보이는 소위 '콘트라포스트(contrapposto)', 삼곡(三曲) 자세다. 삼곡 자세는 목, 허리, 다리 세 곳을 엇갈린 방향으로 틀어서 신체가 S자 굴곡을 유지하게 하는 자세다. 그럼으로써 포즈의 사실성과 자연스러움, 또 부드러움을 갖추게 한다. 신체비례에서도 8등신에 가까워 보이고, 다분히 여성적이다. 포즈는 대단히 우아하고 현대적이며, 늘씬하다. 착의한 옷차림마저 하늘거리는 쉬폰 스타일이라 보티첼리의 〈봄〉의 장면이 연상되기도 한다. 아무튼 형식과 배치에서 파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 국내 유일의 어람관음벽화

삼존관음벽화에서 단연 주목을 끄는 분은 어람관음이시다. 어람관음께는 저잣거리의 생선냄새가 묻어난다. 벽화에서는 왼 손에 커다란 물고기가 든 바구니를 들고 계신다. '어람(魚籃)'이란 말 자체가 '물고기 바구니'라는 뜻이다. 중생들이 금강경, 법화경, 관음경을 스스로 읽게 해서 중생이 가진 심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세간의 저잣거리에 변화신으로 오신 분이다. 다른 두 관음께선 연꽃 위에 계신데 어람관음은 맨 땅에 맨 발로 서 계신다. 남루함을 의역할 수 있다. 어람관음벽화는 불국사 대웅전 후불벽에서도 적외선 촬영으로 그 존재가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흔적만 겨우 남아 있어 실상은 양산 신흥사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셈이다. 어람관음의 맞은편에는 백의관음이 계신다. 백의관음의 기원은 인도로 알려진다. 내소사 대웅보전, 마곡사 대광보전, 위봉사 보광명전의 후불벽 뒷면에도 하얀 두건과 장삼을 구족한 백의수월관음 벽화를 뵐 수 있다.

#### 보살 한 분마다 생명력 가득한 우주

삼관음벽화에서 가장 뛰어난 형식은 세 분의 의습에 시문한 치밀한 문양들이다. 관음보살은 보관에 사라를 쓰고 승각기와 군의 차림을 하고 있다. 그 법의의 옷자락마다 관념적이고 고도로 추상화한 기하문과 넝쿨문 등을 대단히 촘촘히 베풀었다. 수많은 씨줄과 날줄들이 결을 이루고, 결들은 물처럼 유유히 흘러 선율을 갖췄다. 바탕의 문양은 몇 개의 마름모 도형이 기하적인 꽃 모양을 이루는 소위 '마엽문'이거나, 연속적인 일승법계 문양이다. 마엽문도 본질적으로는 생명의 꽃이다. 단지 패턴의 반복에 유용하도록 기하적인 추상형태로 변이되었을 뿐이다. 기하적 문양조차도 사실은 생명들의 무한한 연기법계로 구현한 구상세계다. 그 바탕에 질그릇의 빗살무늬, 고려불화의 생명력 넘치는 넝쿨연속무늬를 덧입혔다. 몇 몇 옷자락엔 조선시대 책 표지를 찍어낸 능화판의 사방연속무늬도 굽이친다. 종횡무진의 선과 선, 결과 결에서 인드라망의 그물을 발견한다. 보주와 영락의 알맹이들이 대지에 뿌려져 생명의 환희심으로 피어나고, 순환하는 힘들은 은하수처럼 길게 이어져 공간에 신성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보살 한 분 한 분이 생명력으로 충만한 우주다. 정말 대단하다. 판화가 에셔의 〈도마뱀〉 작품처럼 평면과 입체, 직선과 곡선의 영역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변주한다. 서로 상즉입한다. 사사무애의 경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치 현대수학의 수리적 놀이터 같다. 테셀레이션이나 프랙탈 도형을 보듯 자기유사성의 반복과 무한확산의 지향성의 의지가 고도로 집약되어 있다. 세 보살이 가지신 대자대비의 원력을 다양한 문양으로 강력히 표현하고 있다. 조형과 상징을 통해서 세 관음보살의 본원력과 대자대비의 원대함을 드러내고 있다. 치밀한 문양 하나하나가 무시무종의 자비심의 꽃이다. 대자대비의 법계우주에 보름달이 세 개나 차올라 금빛을 뿌리고 있는 감동적인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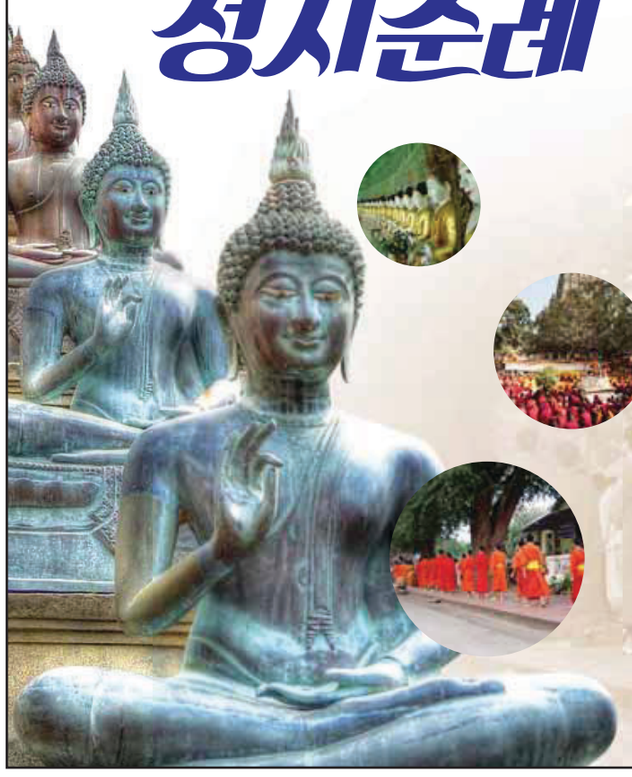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 | | | | | |
|---|---|---|---|---|---|
| 인 도 | 11일 | 요금문의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 5일 | 요금문의 |
| 스리랑카 | 8일 | 요금문의 |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 6일 | 요금문의 |
| 미 얀 마 |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 요금문의 |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 7일 | 요금문의 |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Myanmar
선불 선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폴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름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 차 한잔에 마음 경계 관했던 文人

##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 ⑬ 외재 이단하

외재 이단하(畏齋李端夏, 1625~1689)는 송시열의 문인이며 려한구대가(麗韓九大家)로 손꼽혔던 택당 이식(澤堂李植, 1584~1647)의 아들이다. 그가 환로(宦路)에 나아간 것은 음보(蔭補, 조상의 은덕으로 벼슬에 오름)로 등용된 것이지만 1662년에 다시 중광문과에 급제하여 병조정랑을 거쳐 용안 현감을 지냈다.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살았던 그도 숙종이 즉위한 후 제2차 복상문제를 상소하다가 파직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 더구나 그가 살았던 시대는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 흉년과 기근이 심했던 시기이다. 특히 경신대기근(庚申大饑饉 1670~1671)에는 굶주려 사망한 자만도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가 1682년 대사헌으로 봉직할 때에 각 능의 기신제(忌辰祭)에 올리는 유과 및 과일 위를 덮는 채색 꽃을 줄여 그 비용을 절감한 일이나 1684년 예조 판서 시절에는 〈사창절목 (社倉節目)〉를 지어 올린 것은 이런 사회 혼란기에 백성을 구휼하고자 하는 충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제 사창제도는 1625년경에 굶주린 백성을 돌보고자 실시한 것이다. 연이은 재해로 인해 관아와 민간 보유의 곡물이 바닥이 나자 선비, 백성들과 함께 곡식을 모아 사창을 설치한 것이다.

이단하는 1666년 그의 고향에서 사창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사창은 일부 지역에만 실시되어 굶주린 백성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단하는 경신대기근의 막바지에 사창을 설치하자고 주장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듯하다. 계속되는 기근으로 민간에서 곡식을 비축할 여유가 없어 재력을 지닌 사람이 전에 비해 크게 줄었고, 왕실이 재력가의 재물을 거의 강탈하는 수준에서 많은 재원을 기부 받았기 때문에 부자들의 호응을 얻어내지 못했던 점이 사창제도의 실효를 얻지 못한 요인이었다. 이런 폐단을 지적한 이단하의 말은 〈조선왕조실록〉 현종12년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일에는 외방에 부민(富民)들이 많이 있었기에 재앙과 흉년을 만나도 백성들이 개인 저축에 힘입어 살아났다. 그런데 십 수 년 이래로 민간의 개인 저축을 관에서 무조건 빼앗아 백성들에게 흩어주었고, 가을걷이 후에 다시 거두어 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치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 곡식을 저축하지 않았다. 지금은 온 나라에 곡식을 저축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즉시 팔방에 알리어 곡식을 저축하게 하되, 무조건 빼앗는 폐단을 금하고 곡식을 많이 저축하는 사람은 자급을 올려주어 권장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백성에게 부(富)를 간직하게 할 수 있다.

이단하의 이런 충심이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경신대기근을 겪었던 지방 양반들은 이때를 교훈으로 삼아 사창을 설치하였고 18세기 초기에는 도처에 사창이 설치되었다. 결국 이단하의 사창제도에 대한 계책은 시간이 걸렸지만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 실현된 셈이다.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때를 만나야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때를 알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언제나 닦고 길러야 할 덕목이다.

원래 이단하는 송시열의 문인으로 조선 후기 대표적인 경학자(經學者)이다. 그가 승려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이식(李植)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은 그의 '가군께서 승려의 시축에 제한 것을 차운하여(伏次家君題僧軸韻)' 와 울암사(鬱巖寺)의 신영 비구에게 준 '증신영비구(贈信英比丘)'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의 '가군께서 승려의 시축에 제한 것을 차운하여(伏次家君題僧軸韻)' 에 의하면 부친과 교유했던 산승을 찾아가 차를 대접 받은 후 걸림 없는 유유한 마음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돌 틈으로 솟는 물이 정말 좋은데(最愛石間溜)**
**소나무 아래에 대(臺), 더더욱 아름답네**
**(重憐松下臺)**
**바위 끝에서 머문 구름, 한가로이 떠 있고**
**(岫雲留不去)**
**뜰에 눈은 쓴 채로 쌓여 있네(庭雪掃仍堆)**
**산승은 바랑에서 (차)새 봉지를 열어(梵?開新匣)**
**묵은 불에 차를 다리네(茶 煮宿灰)**
**유연한 마음의 경계 오묘하니(悠然心境妙)**
**저녁 종치는 걸 재촉하지마라((莫遣暮鐘催)**

**경신기근 당시 사창 열고 구휼**
**부친 영향 받아 불교와 교류해**
**울암사 스님들과 꾸준히 왕래**

소나무와 석천(石泉)은 산사의 진미를 드러낸 자연물이다. 이단하가 찾아간 절은 그의 부친과 교유했던 수행승이 머물던 곳이다. 아마 그는 천성적으로 은일(隱逸)을 마음에 품었던 선비였는지 "돌 틈으로 솟는 물이 정말 좋은데(最愛石間溜)/ 소나무 아래에 대(臺), 더더욱 아름답네(重憐松下臺)"라고 말하였다. 더구나 인위적인 경계를 걷어낸 승방에서 새로 연 차 봉지의 싱그러운 차향은 이미 이단하의 속진을 덜어내기에 족했으리라.

솜씨 좋은 스님이 센 불과 약한 불 고르게 살펴 다려낸 차는 분명 맑고 그윽한 차의 정기를 담고 있을 터이다. 그러므로 고요하고 오묘한 선미를 저녁 종소리로 방해 받고 싶지 않다고 한 것은 아닐까. 하여튼 그의 심회는 산승과 일맥상통한 듯하다. 따라서 이단하가 깊이 불교를 이해하고 있음은 이런 대목에서 더욱 또렷하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실제 그는 울암사와 정양사를 찾아 머문 바가 있고 그가 사귄 승려로는 신영비구(信英比丘), 도안상인(道安上人)이 있다. 이런 사실은 그의 〈외재집(畏齋集)〉의 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안상인이 선송을 차운하여 지은 '희차도안상인선송(戱次道安上人禪頌)' 에는 물물형색(物物形色)은 하나라는 관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형형색색의 모든 물상(形形色色物)**
**모든 것은 또한 하나라네(是萬也是一)**
**밝은 달빛은 빈산에 가득하고(明月滿空山)**
**도안의 방엔 맑은 바람이 이누나(淸風生丈室)**

만상(萬象)은 하나이다. 하나에서 만상이 생긴다. 도안 스님의 선송(禪頌)을 차운(次韻)한 이단하의 이 시는 분명 선미를 담고 있다. 더구나 도안 스님은 일격(逸格)을 이룬 선승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기에 도안 스님의 방에선 맑은 바람이 일어난다. 공산(空山)은 적정에 든 선정을 말하는 것인데 명월(明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꽉 막힌 언어의 용사(用事)를 알 길이 없어 불교계 최고의 선승이신 석종사 혜국 스님께 전화를 올렸더니 환하고 명쾌한 답변, 가슴이 시원하다. 바로 명월은 본 지혜, 혹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란다. 곁에 큰 어른이 계신다는 것은 이처럼 든든하다. 새해 벽두부터 큰 가르침을 받은 셈이다.

일찍이 추사는 "오묘한 작용이 일어난 때, 물이 흐르고 꽃이 피네(妙用時水流花開)"라고 하지 않았던가. 본 지혜의 눈으로 보는 세계는 이처럼 간요(簡要)하여 투명하기가 고요한 물과 같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이단하가 말하는 울엄사(鬱巖寺)는 원주 북쪽 협강에 위치한 사찰이었다. 지금은 폐사되어 구허지만 남아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까지는 실존했던 사찰이었던 듯하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부친 이식이 울엄사를 방문한 후 지은 〈울암사기(鬱巖寺記)〉에서 드러난다.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택풍당(澤風堂). 현재 택당 이식 선생의 묘와 함께 보존돼 있다. 유학자이면서 불교와도 활발한 교류를 했던 이식은 외재 이단하의 아버지다. 그는 벼슬길을 뒤로 하고 낙향해 후손들의 교육을 위한 택풍당을 지었다.



외재 이단하가 저술한 〈외재집〉(사진 왼쪽)과 그가 편찬한 덕수 이씨의 〈세계열전제사고이(世系列傳題辭考異)〉(사진 오른쪽)

조선의 문장가 이식은 울엄사 사명(寺名)의 유래를 〈울암사기(鬱巖寺記)〉에 "숲이 울창하게 우거졌기 때문(以其林木茂鬱而得)"이란 설과 "암석이 가지런히 서 있어서 마치 울타리를 친 것 같다(以其巖石離立 類排籬然)"라고 하였다. 〈울암사기(鬱巖寺記)〉에는 이 절이 세워진 내력을 "용문산(龍門山)의 승려 혜종(惠宗)이 여기에다 난야(蘭若)를 창건하면서 그 정자를 허물어 생대(生臺)로 만들고 암벽이 있는 것에 착안하여 절 이름을 지었다. 거처할 방과 고헌(高軒)을 만들고 취사(炊事)할 곳과 목욕할 곳도 갖추어지게 되었는데 고헌은 연좌(宴坐)하여 정관(靜觀)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무릇 강산(江山)과 화목(花木),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화려하고 빼어났다.(龍門山人惠宗 就拗一蘭若 除其亭爲生臺 因巖而名寺有房有軒 庖廚庾ÆD具焉而軒最宜宴坐靜觀 凡江山花木 四時之環麗萃矣)"라고 하였다.

결국 울암사는 용문사 승려 혜종이 세운 절로 승경지였다는 것이다. 한편 울암사가 세워진 이면에는 슬픈 인연사가 있었다. 원래는 울암사의 터는 정혹(鄭?)이라는 사람이 은퇴한 후 거처하려고 정자를 세웠던 곳이다. 하지만 정혹의 아들이 여기에서 글을 읽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한다.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에 상심하던 정혹은 이 터를 절에 희사(喜捨)하였고, 여기에 용문사의 혜종이 울암사를 지은 것이다. 이런 사실은 〈울암사기(鬱巖寺記)〉에 소상히 수록되어 있다.

한편 이단하는 울엄사를 찾았던 길에 부친의 시운을 차운한 시를 지어 비구 신영 스님에게 주었으니 이들 부자와 울엄사의 인연은 숙연이었음이 분명하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혜종 스님을 만난 건 어릴 때라 기억되니**
**(惠師相見記童時)**
**이십년 전(스님의)두꺼운 눈썹, 꿈결에도 생각했네**
**(廿載 眉入夢思)**
**진중한 사미를 비로소 만나니(珍重沙彌初邂逅)**

운림, 이로부터 뒤쫓아 따르리(雲林從此更追隨)이단하가 혜종 스님을 본 것은 아버지를 따라갔을 때라 여겨진다. 어린 시절 만난 혜종 스님은 유난히 눈썹은 짙었던 듯, 그러기에 어린 이단하의 기억에 깊이 각인되었던 한다.

다시 20년이 지난 후, 울엄사를 찾았던 그의 감회는 새로웠으리라. 어린 시절 만나 오래도록 기억했던 혜장 스님은 이미 열반한 듯, 울엄사에는 신영 스님이 있었다. 이단하는 신영 스님이 진중한 수행자로 맑은 바람이 이는 승려라 짐작한 듯하다. 그러기에 그를 따른다고 한 것이니 불교를 이해하고자 한 이단하의 심중은 이런 대목에서 드러난다 하겠다. 그의 자는 계주(季周)이며 호는 외재(畏齋), 송간(松磵)이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저서로는 〈외재집〉과 편서로 〈북관지(北關誌)〉를 남겼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입·종·안·내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니까야서 길을 묻다 1. 부처님이 제시한 길

# 깨달음의 세계, 우리 삶과 밀접

영화 '인 투 더 스톰'을 보면, 졸업을 앞둔 고교생들이 25년 뒤에 펼쳐질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엄청난 폭풍 속에서도 역경을 헤쳐 가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중심을 이루지만, 지난해 이 영화를 보는 내내 학생들의 인터뷰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왜냐하면 '25년 뒤 자신의 모습'이라는 단어와 접촉하는 순간 70대 중반이 되어 버린 늙은 내 자신의 모습이 계속 상상되었기 때문이다.

한동안 '25년 뒤'라는 생각이 가져온 두려움 때문에 일상이 즐겁고 기쁘지 않아서 문득 생각이 진행하는 방향을 거꾸로 돌려보았다. 25년 뒤가 아니라 '25년 전의 나의 모습'으로 말이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군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해가고 있는 20대 젊은이의 모습이 나타나더라.

우리들이 갖가지 상황을 겪게 되면서 떠올리는 생각이란 녀석은 이토록 허술하다. 25년이라는 삶의 과정을 앞으로 돌리면 늙은이의 영상이 떠오르지만 뒤로 돌리면 젊은이를 만나게 되니 말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생각이 일어날 때 그의 앞에 펼쳐지는 모습은 양면성을 띠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즉 바라던 대상이나 이미지가 나타나면 즐거워 하다가 바라지 않던 것이 나타나면 괴로움에 빠져 허덕이는 일상의 모습이 되기 쉽다는 뜻이다. 따라서 생각이라는 작용은 한쪽 방향으로 달려 나가기를 좋아하며, 그러한 방향이나 속도감에 맛들이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습관을 형성(業)'하게 되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의 방향성에 대해 성찰하기 어렵게 만든다.

**"지나간 것에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것에 애태우지 않고 현재를 지켜 가면, 그것에 의해 얼굴빛은 밝게 되네."** (SN, I ,p.5)

인용한 내용은 초기불교 경전의 하나인 〈상윳따 니까야〉 '갈대의 품'에 나오는 구절로써, 과거의 사실에 빠져 있거나 바라고 있는 미래의 일에 미리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현재를 지켜간다'는 말의 의미는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잡아함〉 제995 '아련야(阿練若)' 경에 따르면, '바른 지혜로써 생각을 (과거나 미래로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두고 주의력을 불러일으켜 지금 여기에 지속되도록 하는 것(正智繫念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인용문에서 '현재를 지켜간다'는 말은 자신의 사고 작용이 지금 여기에 온전하게 머무르게 한다는 뜻이 되니 이것은 바로 불교의 명상 수행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림 · 양경수

사유의 작용이 지금 여기에서 지속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로 달려 나가고 있는 그 순간을 방치하면 다음 수순은 욕망과 감정이 개입되는 꼴을 목격하기 쉽다. 생각의 작용에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생각은 감정에 끌려 다니게 되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의 일이나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불교에서 이러한 상태를 '탐욕'과 '번뇌'라는 말로써 그 위험성에 대해 수없이 지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서 늘 발휘되고 있는 나의 '생각'이라는 녀석이 온전하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성찰하는 태도로부터 불교는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전 속에 등장하는 갖가지 불교 교리(教理)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저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가 어떠한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 '무주상보시'로 따뜻한 세상을…

## 혜전 스님 (제주 보덕사 주지)



**혜전 스님**은 … 1983년 동학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하고 1994년 동국대 정보산업대학원 최고 관리자 과정, 2003년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 경영자 최고위 과정을 수료했다. 2008~2009년에는 제주시자원봉사자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1급, 보육교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하는 등 자원봉사의 이론을 겸비했다. 스님은 지난 1975년 도남 보덕사 주지에 취임 후 2006~2015년 전국비구니회 제주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1990년 안봉려관 후손 문도 대표, 보덕사 마야봉사회 지도법사, 보덕사 염불봉사회 회장 소임을 맡고 있다.

올곧게 살아온 수행자의 마음은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늘 한결같다. 부처님의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수행자로서 40여 년을 묵묵히 소외된 이웃들의 그림자가 돼 준 제주 보덕사 주지 혜전 스님. 그 공로를 전 도민들로부터 인정받아 지난 2013년 10월 제 34회 김만덕상(봉사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 제주도민이 존경하는 의녀 김만덕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김만덕상은 1794년 제주도에 태풍과 흉년이 겹치면서 대기근이 일어나자 전 재산을 풀어 육지에서 쌀을 사들인 후 굶주림에 허덕이던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천여 명의 목숨을 살린 의녀 김만덕을 업적을 잇고자 제정한 상이다. 나라님도 하기 어려운 구휼(救恤)을 일개 평민인 김만덕이 사재를 털어 나눔을 실천했듯 혜전 스님도 40여년이란 세월동안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세음보살로 화현해 시대를 넘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고 있다.

"지금은 트럭이나, 오토바이 등으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20~30년 전만해도 손수레는 그 부류에서도 상류층이었죠. 특히 그 당시에는 복지혜택이 지금과 같지 않은 때라 장애인들이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폐지 줍는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날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다가도 차를 멈추고 작지만 요구르트, 우유 등을 사서 빨대를 꼽아 드리면 어린아이처럼 마냥 행복해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이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있을까 생각했었지요"

혜전 스님은 지난 1975년 제주 보덕사 주지로 취임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도내 복지시설을 비롯해 병원, 교도소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30년 이상 자비행을 펼쳐 왔다. 고통받고 그늘진 곳이라면 어디든 서슴치 않고 달려가길 주저하지 않았다. 어려운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무주상 보시로 실천하는 자비행은 스님의 봉사 활동을 더욱 값지게 했다. 모래알이 쌓여 태산을 만들듯 한 순간에 큰 재산을 쾌척하기보다는 늘 주변에 도와야 할 어르신들이 있으면 주머니를 '탈탈' 털어 어르신들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드려야 혜전 스님은 직성이 풀린다. 그 마음씨가 도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전해져 상으로 답례가 돌아온 셈이다.

혜전 스님은 "불교계 시설로 제주양로원이 있었어요. 1980년대만 해도 모두가 어렵고 힘들게 살 때였죠. 요즘은 성인용 기저귀 같은 게 있지만 그 당시는 천으로 해결할 때였습니다. 치매 앓는 어르신들의 경우 인분을 여기 저기 묻혔는데 그거 치우려고 고생 많이 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일 열정적으로 봉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웃음)"

자비를 실천해야 할 수행자로서 할 일을 다했을 뿐이라는 혜전 스님은 "만덕 할머니가 어려운 도민을 구휼했듯 수행자로서 도민의 정신적 치유와 물질적 보시 등을 통해 남은 생도 소외된 이웃을 향한 보살핌의 삶을 계속하겠다"고 앞으로의 원력도 피력했다.

김만덕상 수상 4개월 뒤인 2014년 2월에 혜전 스님은 상금 500만원 전액을 들고 서울로 올라와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 스님)에게 전하며 훈훈한 감동을 자아냈다. 이날 성금은 조계종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개발을 추진 중인 농업기술학교 건립불사에 전달됐다.

봉사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자 봉사단체 창립의 필요성을 느낀 스님은 지난 2001년 '자리이타의 보살도와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보덕사 신행단체인 마야봉사회를 창립한다. 이후 스님은 관음사 산하 제주양로원 · 요양원, 태고복지재단 산하 제주태고원 등 교계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중식제공, 금일봉 전달 등 봉사활동 규모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혜전 스님은 수행자 신분으로 어르신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도록 염불기도를 통해 마음까지 치유해 드린다.

"신도들이 큰 힘이 돼 주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더 맛난 음식도 차려줄 수 있고, 성금도 조금이나마 보태드릴 수 있으니 흐뭇하죠. 무엇보다 신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데 기뻤습니다."

마야봉사회는 창단 10년 째인 지난 2011년 6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 개최된 제10회 전국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서 보건복지부 장관(단체부문) 표창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혜전 스님은 봉사 전문 지식을 갖추고자 지난 2008년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데 이어 2009년에는 제주전문대학(현 제주국제대)서 보육교사 자격증 2급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1급을 취득했다. 또한 마야봉사회는 지난 2009년 일일식당 운영수익금 1천1백만 원을, 2014년 4월 일일찻집 운영수익금 1천 만원 등을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법어 신년법어, 영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림.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가로 12cm × 세로 5.7cm × 두께 2.5cm)+4GB불경SD카드+1200AM베터리+USB충전케이블+충전아답터+불경목록+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 “일손 필요한 곳 어디든 달려갈 터”

“신도들과 합심해 소외된 이웃을 돕자는데 의견이 모아지면 일일식당을 열죠. 신도들에겐 힘이 부치고 부담 가는 일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는 신도들에게 감사할 따름이죠. 항상 봉사 수익금 일부는 남겨놓지 않고 모두 사용하죠. 수익금이 혹 모자라면 더 얹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불자의 도리이고, 지속적인 보살행을 통해 사회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고 말입니다. 마야봉사회는 앞으로도 일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나눔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혜전 스님은 현 신도들 뿐 아니라 지금은 연로해 요양원 등에 기거하는 전 신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마음을 쓴다. 혜전 스님은 정기적으로 옛 신도들과도 가끔 조우해 부처님 가르침을 교감한다. 10여년 전 부터는 특히 인간방생 일환으로 치매 등으로 요양시설이나 혼자지내는 옛 신도들을 직접 찾아나서 위로해주고 봉사한다.

“신도님들이 치매 등으로 인해 사찰에 올 수 없으면 직접 찾아갑니다. 기억 못하는 분들도 많지만 가끔 우리를 알아봐 주실 때 그 기쁨은 상상 그 이상이죠. 그날 챙겨온 빵이랑 음료수를 직접 입안에 얹어드리면 신도님들이 눈물 흘리세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거죠. 저 뿐만 아니라 함께 찾아간 신도들도 가슴 뭉클하답니다.”

또한 혜전 스님은 전국비구니회 제주지회장 소임을 맡은 지난 10여 년 동안 도내 비구니스님들과 매년 연말이면 이웃들에게 ‘자비의 연탄’을 전달한다. 비구니회는 연탄 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병원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는 한편 경전을 독송하며 어르신들이 병고서 조속히 완쾌되기를 부처님께 기원 한다.

혜전 스님은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이면 사회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줄 수밖에 없다”면서 “이웃들을 보듬기 위해 성품을 직접 전달하게 됐다”고 자비나눔 실천 배경을 설명했다.

혜전 스님은 지난 2003년 전국비구니회 중앙운영위원으로 추대된 뒤 2006년 전국비구니회 제주지회장 소임도 겸임했다. 이어 2007년 중앙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원만히 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스님은 제주불교의 독특한 문화적 특색을 감안해 종단을 초월, 도내 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해 화합과 상생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

또한 혜전 스님은 지난 2013년 백흥암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길위에서’ 제주상영도 적극 추진했다. 당시 영화 ‘길 위에서’는 제주서 상영관을 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혜전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의견을 모아 전국비구니회 제주지회 주관 하에 제주상영을 결정한다. 혜전 스님의 선견이 있었던 걸까. 영화는 사흘 동안 12차례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에서 상영되는 동안 제주불자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소위 ‘대박’을 쳤다. 매회 상영마다 줄줄이 매진사례가 이어졌다.

“사흘 동안 어린이와 학생들을 비롯해 4500명이 영화에 그려진 스님들의 출가의 인연과 수행 과정을 보면서 불교와의 선근 씨앗이 싹텄으리라 믿어요. 또한 타종교에 이해심을 넓히기 위해 천주교의 수녀님과 원불교의 교무님 등을 초대, 영화를 통해 상대의 종교를 이해하고 상생의 길을 마련하는 토대가 됐다고 봅니다.”

## 소외된 이웃향한 자비행

**40여년간 양로원 · 복지관서 봉사**

**2013년 김만덕상 봉사부문 수상**

## 제주불교 역사 바로 세우기

**2010년 봉려관선양회 출범으로 탄력**

**봉려관 스님 조명 세미나 및 행적비 건립**

혜전 스님이 수행자로서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놓을 수 없는 일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제주불교 중흥조 봉려관(蓬廬觀, 1865~1938) 스님에 대한 재조명이다.

남성중심인 근현대사 역사 속에서 봉려관 스님은 1990년대 이르기까지 ‘스님’이란 호칭보다 ‘화주’, 심지어 ‘무당’이라 불렸다. 봉려관 스님의 5대 법손인 혜전 스님은 이 같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훼손된 명예를 되찾는데 헌신한다.

“봉려관 스님의 명예 회복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어려웠습니다. 봉려관 스님의 부족한 문헌기록을 발굴해 이를 증명해야 했죠. 봉려관 스님의 문헌기록과 증언자를 찾아 20여년 전 부터 일본을 비롯해 부산, 통영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자료수집에 나섰습니다. 비로소 통영의 한 사찰서 봉려관 스님이 화주한 탱화를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지난 2006년 6월 1일 서울 비구니회관서 열린 ‘한국비구니 수행전통포럼’에서 발표한 ‘제주불교 중흥과 봉려관 스님’이었습니다.”

이 포럼서 혜전 스님은 1918년 3 · 1운동 보다 5개월 앞서 일어난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에 봉려관 스님이 깊숙이 관여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을 제기 했다.

봉려관 스님을 통한 제주불교 역사 바로 세우기는 ‘봉려관 선양회’ 출범으로 더욱 탄력을 받는다. 지난 2010년 11월 출범한 봉려관 선양회는 도내 사부대중이 종파를 초월해 스님의 업적과 행적을 널리 알리겠다고 천명한다.

혜전 스님은 “봉려관 스님은 200년의 명맥불교를 마감하고 제주 땅에 불심을 심고 가꾼 것은 물론 법정사 항일항쟁 주역인 스님들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참된 애국자요, 선각자”라며 “하지만 열반한 지 72년이 지난 지금 스님의 이름마저 잊혀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20년 전부터 한용운 스님의 선양사업을 펼치며 만해대상 시상을 비롯해 장학 · 포교 · 청소년문화 · 학술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봉려관선양회도 스님의 일대기를 정립하고 재조명하는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을 통해 업적을 널리 홍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양회 창립 후 2011년 8월 봉려관선양회는 이향순 교수(미국 조지아대)를 초청, ‘봉려관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2012년 7월 관음사 경내에서는 봉려관 스님이 관음사 창건을 위해 기도한 해월굴에 스님의 행적비를 세웠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관음자비량합창단의 불음을 통해 봉려관 스님의 항일항쟁 업적을 기린 ‘칸타타(교성곡)’를 제작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혜전 스님의 끈질긴 노력 덕분일까. 도내외 많은 사부대중이 이제는 봉려관 스님을 제주불교의 중흥조요, ‘관음사’ 개산조로 칭송하고 있다.

이처럼 혜전 스님은 조선중기 200여 년 간 끊긴 제주불교를 다시 일으킨 안봉려관 스님같이 남성보다 더 강직한 성품을 닮았다. 봉려관 스님이 수행자를 뛰어넘어 제주여성 특유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치열한 삶을 추구한 것처럼 혜전 스님도 안봉려관 스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며 대중들에게 의지처가 돼주고 있다. **김주일부장 · 제주불교 이병철 기자**


2013년 김만덕상 수상후 우근민 前도지사와 기념촬영


2010년 11월 봉려관선양회 제막식 모습.



아름다운 동행에 김만덕상 상금 전액을 기부한 혜전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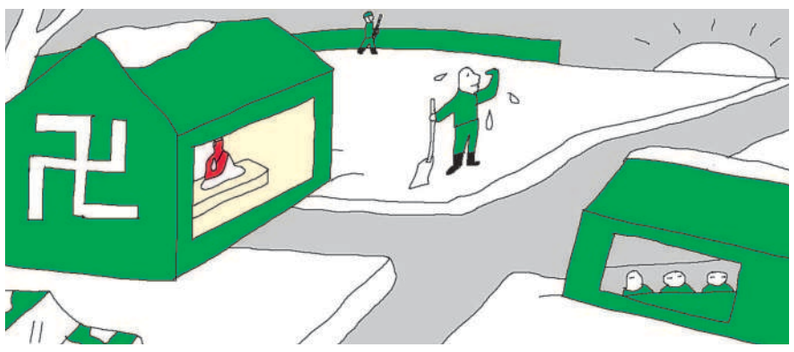
전법일기

## 군종병, 수행납자의 또 다른 이름

“저 자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고 법사님께 도움도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 군법당에서 함께 근무하던 군종병에게 들었던 한마디다. 당시 너무나 열심히 활동하던 한 군종병의 말이었기에 필자는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래도 이 군종병이 전역할 때 까지 군종병으로 임무를 마쳤지만 당시 군종병들의 어려움을 속속들이 알게 됐다.

군종병이야 말로 병사들이 맡게 되는 보직 중 취사병, 행정병과 함께 어렵고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 중 하나다. 물론 야간 경계근무에 편성되지 않으며 선후임간 갈등도 적다. 또 군기가 있는 생활관에서 지내지도 않는다는 환경 속에 지낸다.


그림 · 박구원

군종병들은 입대하는 순간부터 전역하는 순간까지 마치 수행납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에 전역하는 순간까지 여러 가지 오해도 받게 된다.

군종병 생활을 비유하면 사찰의 행자들과의 삶과 비슷하다.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준비하고 범종을 치고, 아침공양을 하고 나면 뒷정리를 해야 한다. 법당청소를 시작으로 요사채를 정리해야 한다. 눈이나 비가 오면 넓은 도량을 도맡아 청소하고, 법당 행정업무를 비롯해 법회 시에는 보조업무도 진행한다. 그렇게 애를 쓰며 맡은 일을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시선은 “군종병은 편하지 않아?”다. 특히 전역하기 직전까지 선임대우 등이 없기에 모든 것을 직접해야 한다.

오히려 외부에서는 군종병이 편하다고 생각하기에 군종병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심사숙고해 선발을 해도 수행자 같은 삶을 1년 넘게 살다보면 드러나는 모습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함께 있었던 군종병 중 너무나 즐겁게 활동한 이들도 있지만 전역 때까지 내내 인내로서 바라보았던 이도 있다. 그 중 가장 가슴이 아픈 기억으로 남은 군종병이 있다.

그 군종병은 함께 복무하는 동안 성품이 원만하지 않아 오히려 군승법사들이 늘 기분을 살피고, 배려해주었다. 그런데 마지막 전역을 앞두고 영창에 가게 됐다. 그 내막을 살펴보았다.

“군종병이 왜 영창에 가게 됐니?”

“스님, 매번 법당 근무 후 부대 내 생활관에서 다른 후임들을 괴롭혔습니다. 법당에 애들이 안가는 이유도 그래서에요.”

법당 일을 하며 받는 스트레스 등을 후임들에게 푼 것이었다. 그와는 반대로 늘 부지런히 법당 정리를 하며 수행도 했던 군장병은 전역 후에도 역시나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빛나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군승법사와 함께 살며 힘이 되고 전역 후에도 좋은 인연을 나누며 함께 행복한 인연을 만드는 도반이 되기도 한다.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군승법사들은 군종병 선발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최근 군에서도 군종병 선발 기준을 높이고 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신학생이 아니면 군종병으로 선발되지 않는다. 신학생 정도가 돼야 종교시설 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불교 군종병은 불교학부생들이 많지도 않거니와, 군에 오는 스님들도 많지 않아 선발시 고민할 것이 많다. 일반 불자들이 대부분 군종병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군포교에서도 이웃종교에 비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군종병이 편할 것이란 선입견을 갖고 오기 때문에 당사자의 적응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순간에도 각 법당에서 군승법사들을 보좌하며 열심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군종병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그들의 무사 전역을 발원한다.



**박영민 군승법사(호국청원사)**



# 중생의 '이고득락' 위해 論을 적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마하연에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법이 있으므로 이를 논술하겠다."

귀명게에 이어 본문의 시작 첫머리에 이렇게 말하고 논주는 내용을 전개해 간다. 한마디로 기신론은 마하연의 믿음의 뿌리(信根)를 일으키게 하는 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논(論)이란 원래 삼장 가운데 논장(論藏:Abhidharma pitaka)을 줄여하는 말로 부처님이 설한 경전의 뜻을 보충 설명하면서 법의 행상을 밝혀 놓은 것이다.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법을 논술하여 부처님 가르침의 참뜻을 바로 알게 하겠다는 것이 논주의 본뜻이다.

마하연은 범어 'maha-yana'를 음사한 말인데 대승(大乘)의 어원이다. 이 '마하야나'의 이치 대승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신론이 저술된 것이다.

부처님이 스스로 깨닫고 또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설한 법, 곧 참된 이치를 다르마(達磨:dharma)라고 한다. 불교의 어원도 '붓다 다르마(Buddha dharma)'이다. 어원에 충실하게 번역하려면 불법이 더 정확하지만 통상적인 종교의 한 이름으로 불교(佛敎)라고 해 온 것이다.

범어 'dharma'의 본뜻은 '존재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 '질서를 지켜지게 하는 것'이라 한다. 조기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이 있다.

**부처님 참된 이치 '다르마'**
**법성을 공고히 하는 것이**
**대승 불교의 근본 가르침**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법은 있었고 내가 죽은 후에도 법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또 이 세상이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는 것, 그것을 법이라 한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 이 법이라는 말이 다양한 의미의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 되었다. 물론 부처님의 교법이라 할 때의 법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하나가 모두 법이라고 할 때의 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상위 개념으로서 총체적인 법인데, 범어로 표기할 때 첫 자를 대문자로 하여 'Dharma'로 적는다. 후자는 하위개념으로서 낱낱의 개념들을 나타내는 법인데 소문자를 쓰서 'dharma'로 표기하여 양자를 구별하기도 한다.

어떻든 법이란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 전부를 포함하는 범주를 가지고 있는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대상(對象), 사물(事物), 실재(實在), 또는 개념(槪念) 등의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을 소승에서는 오위(五位) 75법, 대승에서는 오위(五位) 100법으로 구분하여 말하는 행상(行相)이 있다. 오위란 색법(色法), 심법(心法), 심소법(心所法), 불상응법(不相應法), 무위법(無爲法)의 다섯을 말한다. 또 인과법, 인연법, 일심법 등의 말을 쓰면서 법문의 내용과 그 성질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법이란 법의 본성 곧 법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궁구하는 것이 대승의 근본교의이다. 이 법을 얻었을 때 열반에 들었다 혹은 해탈을 이루었다고 한다. 기신론에서는 진여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다.

〈인연분〉에서는 기신론을 짓게 된 인연 8가지로 설명한다. 첫 번째 이유로 논주 마명의 겸손하고 진정어린 뜻이 나타난다.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의 고통을 여의고 더없는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세상에 명예를 얻거나 이익을 구하고 남으로부터 공경을 받기 위하여 논을 짓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불교는 고(苦)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다. 인생과 세상을 괴롭고 괴로운 곳이라는 관점을 세워놓고 이 괴로움을 직시하고 이를 여읠 수 있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의 길을 가자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여래의 근본 뜻을 해석해서 중생들이 바르게 알아 그릇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셋째는 선근이 성숙한 중생들에게 대승의 법을 감당하여 믿음이 물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넷째는 선근이 미미한 중생들에게는 신심을 닦아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라 했다. 다섯 번째는 나쁜 업장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보여 마음을 잘 단속하여 어리석음과 아만을 제거하여 그릇된 견해를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지관(止觀)을 닦는 법을 보여 범부들과 이승들이 가지는 마음의 허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라 하였다. 일곱 번째는 염불하는 방편을 보여 신심이 허물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여덟 번째는 이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 수행을 권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 타고난 변재로 외도 굴복시킨 論師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② 제바라보살은 누구인가

**提婆羅菩薩造(제바라보살조)**

번역
제바라보살이 지었다.

해설
본 논서 〈대장부론〉은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권 14품과 하권 15품으로 총 29품이 연결되어 있어 구분되지는 않으나, 상권과 하권이 따로 나뉘어 실렸다. 또한, 제바라보살(提婆羅菩薩)이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바라보살'이라고 하는 인물은 딱히 경·율·논을 통해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제바라보살이 곧 제바보살이라고 통상적으로 믿어지고 있다. 〈대장부론〉이 용수보살의 중관학파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구마라집이 한역한 〈제바보살전〉에 전해지는데, 첫 문장을 해석하면 '제바보살이라는 사람은 남천축인이다. 용수보살의 제자이며 바라문 출신이다. 박식하며 깊이 섭렵하였다. 변재가 뛰어나 짝할 이가 없었다(提婆菩薩者南天竺人 龍樹菩薩弟子婆羅門種也 博識淵贍 才辯絶倫)'고 기록되어 있다.

**저서 〈백론〉, 삼대 논서 중 하나**
**자신 찌른 외도 제자 용서하기도**

이러한 기록대로 제바(提婆)는 2~3세기경 남인도 출신의 중관학파(中觀學派) 논사(論師)이다.

용수보살의 제자로 많은 기행(奇行)과 일화가 있다. 범어로 '아리야데바'. 한역하면 '성천(聖天)', 곧 하늘에서 내려온 성인이라는 뜻이며, '가나제바(迦那提婆)'라고 한다. 여기서 '가나'는 애꾸눈이란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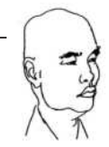
제바는 박람강기하고 언설이 뛰어났다고 알려졌지만, 역시 천재들이 그러하듯이 때를 못 만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다. 본디 천재가 때를 못 만나면 범인(凡人)만도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언젠가 제바보살이 우연히 대자재천(大自在天)의 사당에 가서 참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자재천이 눈을 험악하게 굴리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었다.

이에 제바는 대갈하며 '영험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고 하찮은 눈동자를 굴려 현혹시키려 하느냐'면서 신상의 눈을 빼버렸다. 아마도 이날 제바의 심기가 몹시 불편했던 것 같다. 그러다보니 죄 없는 대자재천이 당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대자재천에게 참배를 했다. 그러자 대자재천이 자신의 눈을 돌려 달라고 했다. 이에 제바는 자신의 눈을 뽑아주었다. 그러자 대자재천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때부터 제바는 가나제바(迦那提婆) 즉 '애꾸눈 제바'가 되었다고 한다.

제바는 이후에 타고난 변재(辯才)로서 많은 외도(外道)들을 교화시켜 나갔다. 그러다보니 적도 많이 만들었을 것이다. 결국 외도의 제자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았는데, 여기에서 제바의 그릇이 나타난다. 오히려 자신을 찌른 외도의 제자를 용서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제바의 유명한 저서로는 〈백론(百論)〉이 있다. 〈백론〉은 용수의 〈중론(中論)〉, 〈십이문론(十二門論)〉과 더불어 삼론(三論)으로 꼽히는 걸작이다. 아울러 〈광백론(廣百論)〉, 〈백자론(百字論)〉, 〈대장부론(大丈夫論)〉, 〈외도소승열반경(外道小乘涅槃經)〉 등을 남겼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 法布施에 대해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를 근본 덕목으로 생활화해야한다.

첫째가 보시(布施)이다. 보시란 베풀고 나누며 일깨워주고 마음을 함께 함을 의미한다. 매듭을 풀어주고 굽은 곳을 펴주며 두려움을 덜어주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보시이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도, 배고픈 자에게 먹거리를 나누는 것도 보시지만 헐떡이고 흔들리는 자에게 개운하고 거뜬하게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도 보시이다. 앞부분이 재보시(財布施)라면 후자는 법보시(法布施)일 테니까.

그렇다면 생산적인 일을 하며 노동의 댓가로 거둬들인 수확물을 나누는 행위가 재가자(在家者)의 몫이라면 정신수행을 생활의 덕목으로 하여 경전을 중심으로 자유와 평화, 행복에 이르는 길을 일깨워주는 것이 출가자(出家者)의 의무일터이다. 물론, 마음 중심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엔 재가자와 출가자가 둘이 아닌 하나요, 차별이나 선입견이 따라다닐 수 없을 것이다.

**버리고 비우는 삶이 수행자 생활 덕목**
**신도 財보시에 이제 法보시로 회향해야**

그러므로 보시는 나누어 셋이 되고 열이 될 수 있으나 근본으로 돌아가면 셋이 하나요, 열이 하나일터. 다만 어떤 보시든 주는 자 우월하고 받는 자 열등하다면, 생각의 윤회에서 자유롭지 못한 덜 열린 행위일 것이 분명하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구절처럼 생각의 머묾 행위를 유주상보시(有住相布施)라면 머묾과 집착이 없는 열린 행위를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라 할 것이다.

자, 이쯤해서 출가수행승들의 나눔 문화에 대해 조명해보도록 하자. 청빈과 무소유(無所有)를 생활화하여 떳떳하고 당당하게 개운한 삶을 이러가는 스님들이 많을 터이다. 그러긴 하나, 스님들은 대개가 주는 쪽보다 받는 쪽에 서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는 쪽엔 인색하고 받는 쪽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신도들 주머니가 비어있는 경우는 많으나 스님들의 주머니가 비어있는 경우는 적을 수도 있을 터.

돈을 모아 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부양가족이 있는 재가자로서는 목마른 의무이자 생존의 법칙일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런데 아내 자식이 없는, 부양가족이 없는 그것도 부모형제도 마다하고 출가(出家)한 스님들이 돈을 챙겨 모으고 노후 대비라며 비상금을 쌓아둔다면 이것은 떳떳하지도 당당하지도 넉넉하지도 못한 부끄러운 작태일 게 분명하다.

버리고 비우는 개운한 삶이 모든 스님들의 생활의 덕목이 되어야 한다. 마치 승려가 주지 직이 직업이라도 되는 듯이 모으고 챙기는 속물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이름만 스님이지 스님이 아니다.

생각의 윤회에서 헐떡이고 흔들리는 부끄러운 몸짓들이다. 입으로는 경전 구절을 앞세우며 진리를 외쳐대도 몸으로는 진흙탕 속에서 윤회를 거듭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낙오자이자 패전(敗戰)을 즐기는 슬프디 슬픈 중생일 따름이다.

몇해 전 지리산 실상사에서 야단법석을 마련한 적이 있다. 그때에 알게 된 일이지만 초청법회에 자주 나가는 스님들의 한 달 수입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었다.

법회에 초청될 정도라면 그 스님은 학덕(學德)과 수행력이 탄탄한 앞서가는 스님일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이 있기까지 크고 작은 신도들의 재보시(財布施) 속에서 지내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개운하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법보시(法布施)할 차례가 온 것이다. 법회 후 주최 측에서 내미는 대가성 봉투는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법회 전에 미리 주최 측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법보시 법문임을 알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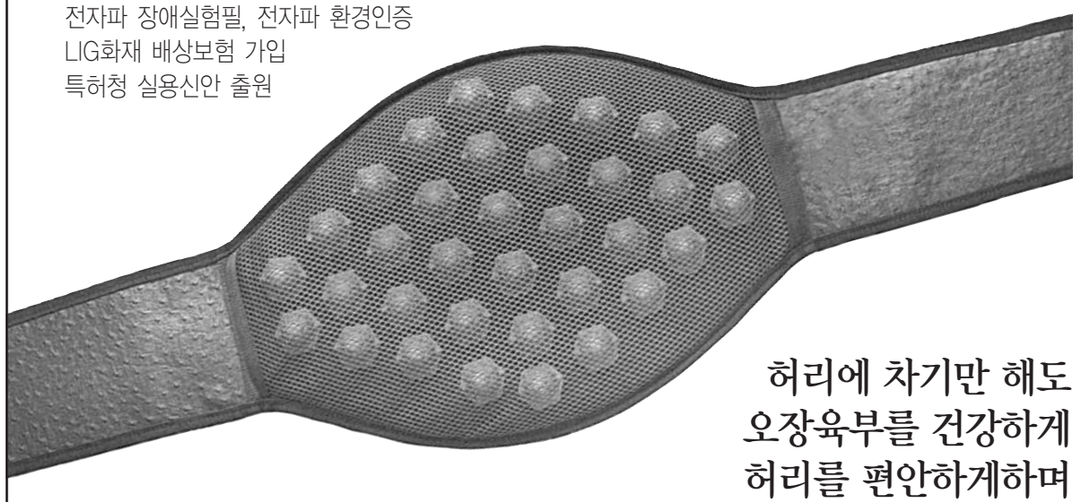
지리산 야단법석의 공개된 자리에서 초청법회가 한번이든 10번이든 30번 이상이든 돈봉투를 받지 않겠다는 법보시 선언을 하게 된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 조계종단에서는,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첫째 보시라는 덕목에서 실천 부재를 느껴야 하는지 깊은 통찰과 반성을 촉구하는 마음이 산덩이 같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 민간신앙 융합으로 불교저변 확대

## 25. 종교적 지형의 확대



김시습이 기거했다는 자리에 세워진 부여 무량사 삼성각. 이처럼 조선후기 불교는 유교사회에서 민간신앙과의 습합과 공간적 결합을 통해 비주류 종교로서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

조선시대 불교는 여성과 서민 위주의 신앙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얼핏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왕실과 중앙의 세도가, 하급관리와 아전, 각 지역의 토호 등 여러 계층에서 다양한 불교신앙이 이루어진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양반 사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불교식 제의와 내세관이 유교의 제사와 선조관, 죽은 후 정신은 기와 혼백으로 흩어져버린다는 관념으로 바뀌게 된다. 즉 지식층 및 사회주도층의 경우 사후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불교와 유교의 일대 각축전에서 유교가 완승을 거둔 것이다. 조선시대 불교신앙은 업과 윤회로 상징되는 세계관, 죽은 이의 명복과 안녕을 비는 내세에의 기원, 정토왕생의 염원이 주축을 이루었다.

성리학적 가치관이 사회 저변에 확산되고 유교의 제의가 일반 대중까지 파급력을 갖게 된 것은 조선후기인 17세기 이후의 일이었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사림이 중앙과 지방 사회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사회적으로도 종법과 부계 중심의 유교적 친족관념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때였다. 이때 유교식 사후 관념과 제의가 절대적 권위를 획득하였고 불교식 상장례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불교를 통한 종교적 염원의 기원과 해소는 계속되었는데, 사후 세계와 관련된 내세신앙, 염불을 통한 극락정토 왕생, 민간신앙과의 습합 등 불교의 장점을 살리는 한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저변을 넓혔다.

내세 관련 신앙 가운데는 명부를 관장하는 염라대왕 등의 시왕, 그리고 지장보살이 각광을 받았다. 시왕은 현세에 행한 업에 대해 사후에 판결을 내리는 존재이며, 지장보살은 윤회의 길이 결정될 때 좋은 쪽으로 도움을 주는 이였기에, 시왕을 모신 명부전이나 지장전이 대부분의 사찰 안에 두어졌다. 조선후기에는 각종 불교 의례집이 다수 간행되었다. 진언밀교신앙과 관련 있는 독송용 주술의례를 담은 진언·다라니집은 대개 진언에 한글과 한자로 발음을 부기하였다. 밀교신앙은 본래 즉신성불을 염원하는 것으로 현세적 이익 추구의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조선후기 진언·다라니집은 대부분 돌아가신 부모의 추복을 위해 시주하여 간행한 책들로 내세신앙의 유형에 속한다.

조선후기 불교신앙의 대표주자는 정토로의 왕생을 기원하는 염불신앙이었다. 선과 교, 염불의 전통을 모두 계승해야 했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염불은 수행체계 삼문의 하나인 염불문이 되었다. 염불은 자성미타, 유심정토로 상징되는 염불선 수행, 극락정토로의 왕생을 기원하는 염불정토 신앙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선수행의 일환으로 염불을 포섭한 것으로써 정토와 마음을 등치시켜 수행에 의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후자는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해 서방극락정토로의 왕생을 기원하는 것으로써 대중적 신앙의 성격을 갖는다.

염불수행 및 신앙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본다. 석실 명안(1646~1710)은 만년에 '염불왕생문'에 귀의하여 1709년 지리산 칠불암에서 70여 명이 참여한 서방도량 염불결사를 결성하였고 〈현행법회예참의식〉을 간행하였다. 명안은 언제 어느 때나 나무아미타불을 염하여 정토왕생을 기원한다는 '염불가'를 지었고 입적하기 직전에 서쪽을 향해 세 번 절하였다. 기성 쾌선(1693~1764)은 선과 화엄을 두루 배운 후 말년에 염불정토문의 입장에서 선과 교를 포섭하였다. 그는 선문과 교문에서는 근기에 차등을 두지만 염불문은 선과 교, 범인과 성인, 선과 악을 모두 포괄하며 수행의 단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여 삼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보았다. 쾌선이 쓴 〈염불환향곡〉은 고향을 찾아가던 중에 선과 화엄을 접하였지만 결국 아미타불을 부르며 고향에 돌아갔다는 내용이다.

호남의 교학종장이었던 대둔사의 연담 유일(1720~1799)은 "극락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고 하면서 "반드시 불교를 믿고 염불하지 않더라도 세간의 착한 이들은 왕생할 수 있다. 천당이 있다면 그곳은 군자가 오르는 곳이므로 잘못을 깨닫고 진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였다. 참회와 수행을 왕생의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유교사회의 시대상에 걸맞게 신앙보다 선행을 앞세운 점이 흥미롭다.

조선후기에는 〈예념미타도량참법〉, 〈예념왕생문〉 등 염불 의식을 모은 의례작법 서적이 빈번히 간행되었다. 목판으로 한 번에 1,000부를 찍기도 할 정도로 그에 대한 수요가 컸다. 또한 염불의 의례화가 진전되면서 극락정토로의 왕생 기원이나 죽은 이의 영혼 천도를 위한 법식에서 베푸는 시식의례도 발달하였다. 명연의 〈염불보권문〉(1704)은 '미타참약초'로 불리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정토에 왕생한 이들의 전기와 '회심곡' 등을 한글로 번역해서 실었고 염불작법의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핵심적 내용은 염불을 통해

**내세 기원 · 정토왕생 염원 구축**
**승속 어우러진 신앙공동체 결성**
**기독교와 근대종교 생존 각축전**

극락정토로 왕생하는 것을 기원하는 것으로 여러 부처들 가운데 아미타불에게 염불하는 것이 가장 낫고 극락이야말로 가장 수승한 부처의 세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정토 가사도 다수 창작되었는데, 서방극락정토로의 왕생을 염원하는 왕생 가사, 참선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닦고 자성을 깨치는 것을 권면하는 참선 가사로 나눌 수 있다. 19세기에 나온 대표적 정토 가사인 〈권왕가〉는 염불수행을 행할 때 경계해야 할 10가지 악업을 소개하고, 정토왕생의 요체를 제시하여 만일염불회 등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염불과 정토를 주제로 한 소설도 유통되었는데 환생 후 염불을 통한 극락왕생을 내용으로 하는 〈왕랑반혼전〉이 유명했다.

승속이 함께 참여하는 신앙 공동체 형태의 염불계, 염불회 등도 각지에서 결성되었는데, 대중의 참여도가 높아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염불계를 주관하는 염불당 화주는 사찰의 재정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예를 들어 경상도 오어사에서는 승속 150명이 염불계를 조직하여 토지를 구입하였고 그 수입으로 절에 염불당을 조성하였다. 19세기에는 강원도 건봉사, 신계사의 만일염불회를 비롯해 전라도 미황사, 부산의 범어사 등 전국적으로 염불회가 유행하였다. 만일염불회는 약 27년 동안 매일같이 염불을 행하는 것으로 웬만한 신심과 열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편 조선후기에는 불교와 민간신앙과의 습합 및 공간적 결합이 이루어졌다. 17세기 이후 도교에서 비롯된 칠성신앙을 행하는 칠성각, 전통적 명산신앙에서 나온 산신을 모시는 산신각, 홀로 깨달았다고 하는 나반존자를 봉안한 독성각 등이 사찰 경내에 세워지기 시작했다. 이 삼성각의 조성은 임진왜란 후 사찰을 새로 짓거나 중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다. 이는 유교사회에서 비주류로 몰린 불교와 민간신앙이 서로 공존을 모색한 것으로 사찰 공간은 복합적 종교 클러스터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17세기 초에 간행된 청허 휴정의 〈운수단〉에도 '칠성청문'이 수록되어 이른 시기부터 불교에서 칠성신앙을 수용했음이 확인되며, 18세기의 승려 상월 새봉이 '북두에 절하고 심증 실천의 법으로 삼았다'고 할 정도로 칠성신앙은 불교와 융합하여 성행하였다. 현존하는 조선후기 불화 가운데 칠성탱이 미타탱, 지장탱과 함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도 그러한 양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무속과 결합하여 기복과 병의 쾌유를 비는 마을 미륵신앙의 형태도 나타났다. 이처럼 기복에 초점을 둔 여러 신앙의 수용과 융합은 다양한 목적과 기능의 종교적 수요를 창출하고 불교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이기도 했다.

조선후기 불교신앙의 전개양상을, 국왕과 왕실, 세도가 등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어 시기별로 정리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란은 엄청난 민심의 동요를 가져왔고 국왕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켰다. 이에 각 사찰에서는 국왕과 왕비, 왕세자의 장수를 비는 원패를 세우고 왕실과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였다. 또 전란의 여파로 불교신앙의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선조 말년인 1606년에는 거사들이 도로를 수리하고 서울 창의문 밖에서 승속이 모두 참여하는 수륙대회를 열었다. 이때 시장의 철시가 이루어졌고 사족의 부녀까지 큰 길에 가득차서 문제가 되었다. 당시 남자는 거사가 되고 여자는 사당이라 칭하며 승복을 걸치는 풍조가 만연하였다고 하며 일반민이나 사대부가 승려를 접대하고 부처를 공양하며 재회를 베푼다는 기록에서 시대상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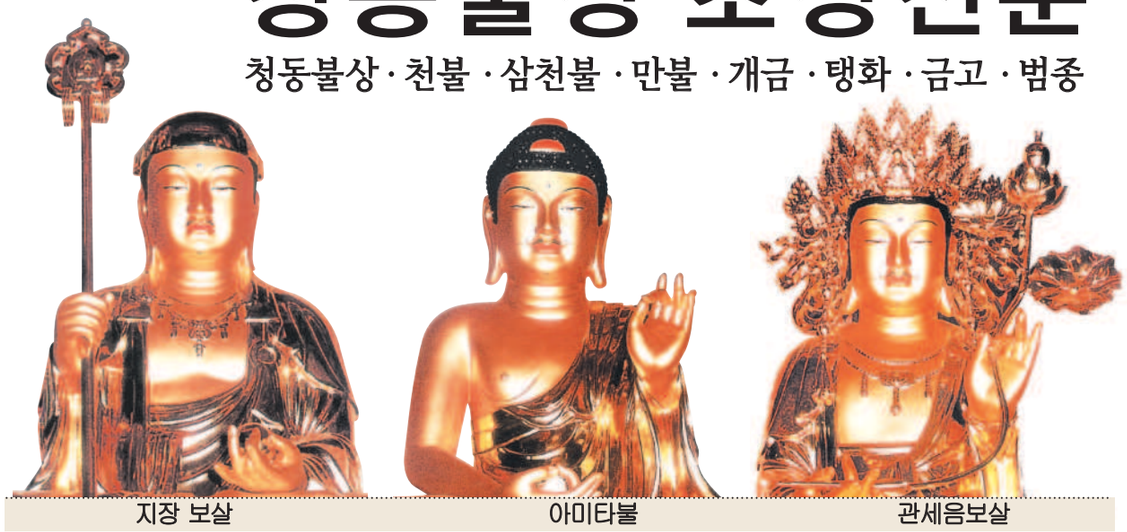
선조를 이은 광해군은 부휴 선수(1543~1615)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묻고 시호를 하사하였다. 또 훗날 효종이 된 봉림대군은 선수의 제자이자 인조대에 초대 팔도도총섭을 지낸 벽암 각성에게 화엄의 요체를 물었다 한다. 현종은 일시적으로 억불책을 펼치기도 했지만 두 공주를 잃은 후에는 원찰을 짓고 불교식 추천 의례를 행하였다. 숙종도 태조와 관련이 깊은 함경도 석왕사에 친필을 써주었고 화엄사 각황전이 중창되자 선교양종 대가람으로 지정하였다.

18세기는 일종의 문화적 르네상스 시기로서 많은 사찰이 중수되고 다수의 불상과 불화가 만들어졌다. 왕권 강화와 효의 실천을 위해 불교를 활용했던 정조는 용주사 창건 때에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복전을 짓고 공양한다"는 내용의 '봉불기복게'를 썼다. 또 〈부모은중경〉을 대대적으로 간행하여 전국 관청과 사찰에 배부하였는데 여기에는 왕생 후 극락의 안락함을 그린 그림이 추가되었다. 정조는 100일 기도 끝에 왕자를 낳자 석왕사, 선암사 등에 감사의 글과 토지를 하사하였고, "불교는 유불도 3교 가운데 가장 늦게 나온 것이지만 그 영험함은 매우 두드러진다. 유학자들은 이를 믿지 않으나 또한 간혹 믿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기뻐하였다. 부모와 자녀의 복을 기원하는, 가장 일차적인 종교적 심성의 발현이 불교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19세기는 세도정치가 전개되고 민란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고, 사찰에 대한 지방관 및 토호세력의 사적 침탈 또한 극심해졌다. 물론 왕실이 후원한 불사와 법회, 불서 간행은 지속되었고, 왕실 원당 사찰에는 잡역이 면제되는 등 특혜가 주어졌다. 이에 왕실과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각종 법회가 열렸고 묘향산 축성전, 송광사 성수전 등의 원당이 국왕의 후원에 의해 건립되었다. 정부 고관이나 명문가의 불교 후원 사례도 다수 확인되는데, 대표적 세도가문인 안동 김씨는 여주 신륵사 등의 불사를 지원하였고 그 밖의 세도가문에서도 금강산 지역 사찰 등을 후원하였다.

19세기는 내우외환의 시기이자 각종 종교가 새로 발흥한 종교의 시대였다. 이 시기에는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종교적 행위와 염원이 분출되었고, 불교와 천주교, 동학을 비롯한 신흥종교 및 민족종교가 새로이 부상하였다. 앞서 천주교는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대표적 사교(邪敎)로 지목되고 조선정부의 강력한 탄압을 받았다. 하지만 차츰 교세를 확장하였고 조선의 오랜 종교전통인 불교와 함께 내세로 가는 길목을 두고 경쟁하였다. 아미타불이나 지장보살 등과 함께 천주를 염호해서 천당에 갈 수 있는 길이 새로 열리게 된 것이다. 불교는 곧 다가올 기독교와의 각축전과 근대종교로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분투를 시작해야 했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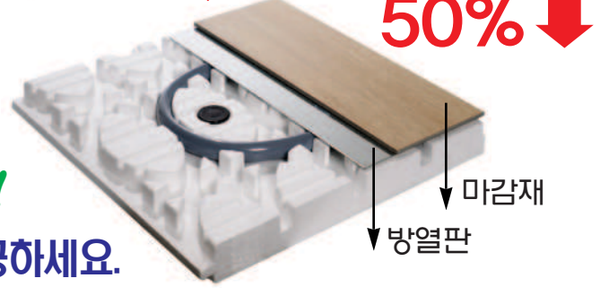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 010-5097-8291
부평 : 010-2310-0404
의정부 : 010-5759-8804
남양주 : 010-9183-9729
광명 : 010-7526-3300
안산 : 010-2487-3393
오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용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익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www.jjunheating.co.kr

# 붓은 禪을 장엄하고 想은 만다라를 피웠네

## 허회태 작가, 신년 맞아 2곳서 개인전 잇달아

텍스트를 하나의 그림 문자로 형상화하는 '이모그래피(Emography)'를 창시한 허회태 작가는 스웨덴, 미국, 독일 등에서 평단과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예술가다. 서예를 기반으로 해 '이모그래피'를 만들고 이를 조형예술과 융합시키는 그의 작품세계는 무릇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과 닮았다.

신년을 맞아 허회태 작가의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잇달아 열린다. 먼저, 허회태 작가는 김형중 문학평론가(동대부여중 교장)와 공저한 〈대장경 속 한마디〉 출판기념회 및 수록작품을 전시하는 개인전을 연다.



허회태, 서ㅖ-335, 일일시호일. 이모그래피의 진수를 보여준다.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김형중 평론가가 저술한 〈대장경 속 한마디〉에 수록된 47점의 서예와 이모그래피 작품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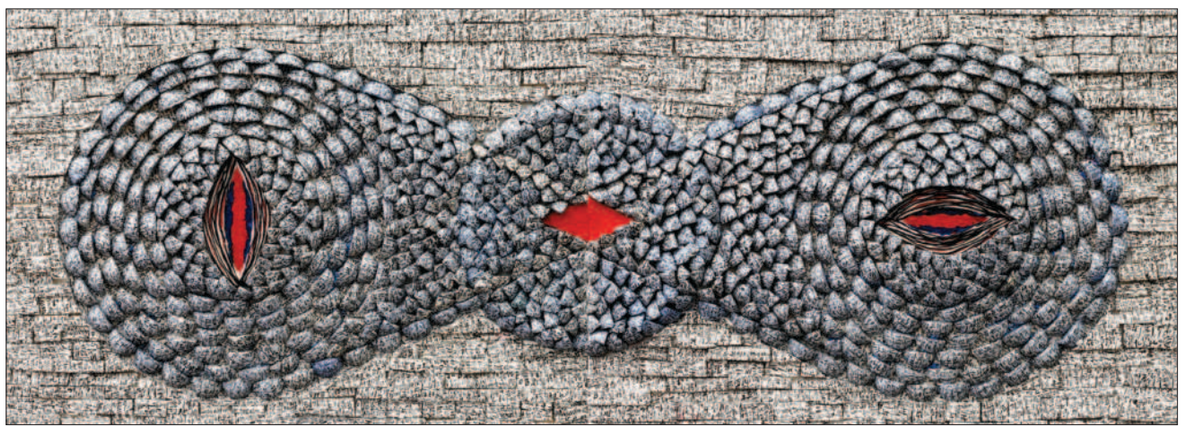
〈대장경 속 한마디〉에는 방대한 대장경 속에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는 어구를 가려 뽑아 알기 쉬운 해설을 붙이고, 주제에 어울리는 이모그래피 작품을 그려 넣어 누구나 쉽게 불법의 정수를 맛볼 수 있게 했다.

주제를 압축한 이모그래피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면서, 또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의미전달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는 작품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을 보면 알 수 있다. 허회태 작가는 태양을 의미하는 상형자인 '日' 자를 해의 그림으로 반복해 가독성 있게 표현했다. 이어 '日' 아래 '疋'을 더하여 '昰' 자를 형성해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문장의 전달력을 높였다.

이번 전시는 경구와 그에 맞는 알기 쉬운 해설, 그리고 함축적인 그림이 함께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대장경 보여주는 가르침의 일미(一味)를 느끼게 해줄 것이다.

이모그래피는 본디 서예 작가였던 허회태 작가의 일편이다. 최근 그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서예와 조형이 결합한 설치작품들이다.



비상비비상(Neither thought nor non-thought) 42x53x2p, 2015, 한지, 혼합재료. 특유의 글씨체로 작은 한지에 써 내려가 개체를 만들고 이를 모아 평면에서 공간으로 조형해냈다.

**〈대장경 속 한마디〉 출간 기념전**
**경구 맞춘 이모그래피 47점 전시**
**일필휘지로 그려낸 墨畵 '압권'**

**서예 · 조형예술 결합한 전시회도**
**근원 다가가는 철학적 사유 '눈길'**

오는 1월 31일까지 서울 가가갤러리에서 개최되는 초대전에서 허회태 작가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이모그래피는 인간사의 희노애락을 한 번의 붓질로 찰나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초대전의 설치작품은 번득이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치밀한 구성 그리고 초인적인 인내가 요구되는 것들이다.

그의 사상과 철학을 특유의 글씨체로 작은 한지에 써 내려가 개체를 만들고 이를 모아 평면에서 공간으로 조형해낸다. 2차원의 화폭에서 3차원의 현실세계로 화현시키는 것이다. 허회태 작가의 대표 시리즈 '비상비비상(非想非非想)'은 이 같은 탄생의 순간을 사유와 철학으로 벼려낸 것이다.

이에 대해 허회태 작가는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를 가진 이 제목은 불교의 공사상에서 가져왔다. 〈금강경〉의 공사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형적 형식도 '만다라'와 유사하다. 또한 수많은 형상들이 맺혀 있는 '만화경'과도 닮았다. 외면과 내면을 이어내는 통로로서의 '만다라'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의 '만화경'은 둘이며 하나이다.

조기현 가가갤러리 대표는 "윤회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헤어날 수 없는 욕망의 근원을 말하면서 '비상비비상'이라는 철학적 넌센스를 제시한다"면서 "허회태 작가의 작품세계는 자신만이 갖는 새로운 조형질서와 현대미학을 도입해 시대감각에 부응하는 신개념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허회태 작가는 1995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대상을 시작으로 원곡서예상, 서예문화상, 서예대전 전각 우수상,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및 특선8회, 한 · 카문화재단 주최 국제미술전 최고상 등을 수상했다.

이후 이모그래피를 창시해 미국 북동부 5개 지역에서 순회 전시를 하며 ABC 방송과 FOX TV 등에서 방영됐으며, 지난 2014년에는 스웨덴국립박물관의 초청으로 특별전을 열기도 했다.

현재 연변대 미술대학 회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논문 및 저서로는, '안진경 서예술의 소고', '전각 예술의 생명이 의미하는 표현형식', '書에 근원을 둔 회화의 현대적 표현연구', 이모그래피와 전각 작품집인 '반야심경', '명언 명시집' 등이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민속 · 불교문화 속 '원숭이' 만나요

## 국립민속博, 2월 22일까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전 개최

불교와 한국전통 속에 원숭이가 어떤 의미로 자리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이 2월 22일까지 여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전이다.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2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전에는 '장승업필 송하고승도(張承業筆 松下高僧圖)', '안하이갑도(眼下二甲圖)' 등 원숭이와 관련된 자료 총 70여 점이 소개된다. 이번 전시는 '1부 여러 이름 원숭이', '2부 십이지동물 원숭이', '3부 길상동물 원숭이'로 구성된다.

'1부 여러 이름 원숭이'에서는 신체 특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불린 원숭이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2부 십이지동물 원숭이'에서는 십이지동물로서의 원숭이의 역할과 의미를 '십이지번(十二支幡)', '석제음각십이지문사각연(石製陰刻十二支文四角硯)' 등을 통해 살펴본다.

'3부 길상동물 원숭이'에서는 '출세와 장수', '모성애', '벽사', '재주꾼'으로 상징되는 길상 동물인 원숭이를 관련 자료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송하고승도 등 불교회화 다채**
**토우 비롯한 민속자료도 선뵈**

눈길을 끄는 것은 '장승업필 송하고승도(張承業筆 松下高僧圖)'다. 불교에서는 원숭이를 '수행자를 보좌하는 동물'로 표현한다. 유명한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원숭이인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의 고전 서유기의 내용에서는 '손오공'이 불경을 구하러 가는 삼장법사를 도와 변신술 등으로 온갖 잡귀를 물리치는 것으로 묘사된다. '송하고승도' 역시 서유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소나무 아래 한 스님이 앉아 있는데, 그 앞에 꿇어앉은 원숭이가 두 팔을 내밀고 불경을 전하고 있다. 이밖에 '안하이갑도(眼下二甲圖)', '청자 원숭이 모양 인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18, 19세기의 병신년 시헌서(時憲書), '원숭이해 주요 사건'과 속담, 인물 등도 소개돼 원숭이와 연관된 문화를 총정리할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원숭이는 인간사 길흉화복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 불교와 한국 전통문화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원숭이에 대한 전통작품을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02)3704-3114



송하고승도 세부 모습. 원숭이가 고승에게 경전을 법공양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큐레이터에게 듣는 불교 미술

## 국립중앙博, 병신년 첫 '큐레이터와의 대화'

**中 불비상부터 루벤스까지**
**매주 수요일 야간 개장서**

박물관 큐레이터에게 소장 전시나 특별 전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18:00~21:00)에 전시설명 프로그램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박물관 큐레이터들이 상세하게 전시품을 해설하고, 관람객과의 질의응답을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2016년의 첫 '큐레이터와의 대화' 프로그램은 기획특별전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1.6/1.13/1.20), 테마전 '강진 사당리 고려청자'(1.6/1.27)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전시와 함께 시작한다.

기획전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은 유럽 최고의 왕립박물관 중 하나인 리히텐슈타인박물관의 소장품 120여점을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전시이다.

불교 관련 전시와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상설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다. 2016년을 맞이하며 새롭게 단장한 중근세관 고려1실에서 '새로 개편한 고려실'(1.13)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이루어진다. 또한 '중국의 불비상'(아시아관 중국실/1.20)과 '인도의 불교미술(인도 동남아실/1.20)', '삼국시대 불교미술(불교조각실/1.27)' 등에서도 불교 미술의 진면목을 알아갈 수 있다.

관람객과 박물관의 소통의 공간이기도 한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2077-9900

**신성민 기자**


부처님의 생생한 말씀을 담은 경전은 새해 최고의 선물!!

깨달음의 언어로 이루어진 책은 삶의 나침반, 인생의 보배

불교경전 시리즈

● 불교경전총서는 당신의 불심을 일깨웁니다.



●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경전을 읽는 즐거움'은 곧 삶의 즐거움이 됩니다.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보경 지음_ 값 15,000원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일진 지음_ 값 15,000원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동봉 지음_ 값 23,000원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일감 지음_ 값 15,000원
법성게를 읽는 즐거움 ■법상 지음_ 근간

콘사이스 불교사전



– 불교 공부의 길잡이, 불교 공부를 하고 경전을 읽기 위해 꼭 필요한 책
– 한 권의 사전을 통해 불교의 거의 모든 지식을 섭렵할 수 있다.

■김승동 편저_ 값 45,000원

불교에 입문한 분들이 좋아하는 가장 품위 있는 선물

행복한 삶을 열어주는 민족사의 책 5



버리고 비우고 낮추기 – 무아 · 무심 · 하심의 행복론
■정승석 지음_ 값 10,800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알아가는 길. 버리고 비우고 낮추다 보면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된다.



마음의 비밀 – 아뢰야식의 발견
■요코야마 고이치 지음 · 김명우 옮김_ 값 10,800원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긍정적인 삶이 된다. 마음의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마음을 변혁시키는 방법과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책



붓다의 인생코칭 – 붓다에게 배우는 행복해지는 법
■우에니시 아키라 지음 · 유윤한 옮김_ 값 10,800원
직장에서 보람을 느낄 수 없다면 붓다의 코칭을 받아라! 붓다가 일러주는 직장인을 위한 자기계발의 필독서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 월호 스님의 참선 이야기와 냥의 수행일기
■월호 스님 · 배종훈_ 값 16,500원
참선과 카툰의 만남으로 의미에 재미를 더하다! 참선 이야기와 바른 삶을 추구하는 '냥'의 모습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준다.



빛나는 해피불 – 운명을 바꾸는 빛
■동휘 스님_ 값 16,200원
동휘 스님의 생명력 넘치는 글과 만다라! 그 힘찬 에너지가 우리의 삶, 운명을 새롭게 빛나게 할 것이다.

민족사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지혜의 보고 佛書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2.30~2015.1.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한권으로읽는불교교리 | 지명스님 | (주)조계종출판사 |
| 2 | 숨-죽음을 통해서 더 환한 삶에이르는 이야기 | 능행 | 마음의숲 |
| 3 | 달라이라마의불교강의 | 달라이라마,톨텐최된 | 불광출판사 |
| 4 |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 원순 편역 | 법공양 |
| 5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 우룡큰스님,김현준 | 효림 |
| 6 | 야단법석-법륜스님의 지구촌 즉문즉설 | 법륜지음 | 정토 |
| 7 | 지금이라도알아서다행인것들 | 원영 | 불광출판사 |
| 8 | 불교범어진언집 | 박지명,이서경 | 하남 |
| 9 | 법명해설사전 | 조계종포교원 | (주)조계종출판사 |
| 10 | 한권으로읽는화엄경이야기 | 카마타시게오 | 불교시대사 |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 "주변 환경 알아차리는 것도 좋은 수행법"

## 호흡이 주는 선물

**래리 로젠버그, 로라 짐머만 지음 | 미산 스님, 이성동 옮김**
**나무를 심는 사람들 펴냄 | 1만 3천원**



"나는 사회심리학자로서 마음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대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까지 잘 알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수행에 관심을 가진 이유입니다."

1968년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저자 모리 슈워츠 교수의 권유로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를 만난 래리 로젠버그는 그에게서 "먼저 집을 정리하시오. 그러고 난 이후 당신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주의를 집중하시오."라는 말을 듣는다.

"아, 나의 집을 잘 들여다보고, 깨끗이 정리하고, 제대로 물건을 치우고, 설거지를 잘하라는 의미군요. 그렇죠?" 크리슈나무르티는 약간 놀라는 듯이 보였다. "아, 그래요. 거기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말하는 것에는 그 이상의 것도 있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심장을 가리켰다. 내면을 의미했다.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에서가 아니라 순간순간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크리슈나무르티가 젊은 래리 로젠버그에게 새 방향을 제시한 2년 후 저자는 대학 강단을 떠나, 명상을 배우기 위해 아시아 등지를 떠돌았다. 10년간 한국의 숭산 선사, 일본 조동종의 카타기리 선사, 베트남 틱낫한 선사 등에게서 참선을 배웠고, 30년간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그리고 인도에서 위빠사나를 수련했다.

존 카밧진, 조셉 골드스타인, 샤론 잘즈버그 등과 같이 서양을 대표하는 제1세대 현대 명상가인 래리 로젠버그는 40여 년 동안 상좌부 위빠사나 수행법의 스승들, 인도의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와 같은 명상 구루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선불교의 선사들로부터 전통적인 수행법을 전승해 완전히 체화한 다음 현대적 언어와 참신한 방법으로 3단계 명상 수행법을 전한다.

### 선불교 정수 포함한 3단계 명상 수행법 제시

이 책의 특징은 붓다가 설한 〈호흡관법경〉 16단계 호흡관법을 '사마타' (samatha, 止)와 '위빠사나' (vipassana, 觀)의 2단계와 선불교의 정수인 '명징한 바라봄' 을 포함해 3단계로 축약했다. 눈과 귀 등 5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5감정보와 생각과 감정 등의 번거롭게 들떠 있는 분별 의식을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고요하고 차분하게 한다. 〈호흡관법경〉 16단계 중에서 처음 1~2단계는 들숨과 날숨의 길고 짧음의 양상을 알아차리면서 차분히 한다면 3단계는 호흡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전부 알아차리면서 오로지 호흡에 마음을 집중시킨다.

1단계는 온몸서 나타나는 호흡 현상에 집중한다. 전통적으로 호흡 명상을 할 때 콧구멍, 가슴, 아랫배 등 특정 부위서 호흡을 느끼지만, 저자는 순간순간 온몸서 가장 뚜렷하게 느껴지는 호흡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라고 한다. 호흡이 길든 짧든 조절하지 않고 알아차리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게 통합되어 감을 경험하게 된다.

호흡 집중을 통해서 얻어진 편안함과 고요함이 조화롭게 드러난 몸과 마음의 상태를 바탕으로 느낌과 감정,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각들을 무상, 고, 무아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이 책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호흡에 닻을 내리고 알아차리기라고 한다.

### 40년 명상수행 정수… 3단계 수행법 제시
### '사마타' '위빠사나' '명징한 바라봄' 축약

우리는 흔히 '나' '나의 것' 이라는 관습적 개념을 기준점으로 삼아 생각하고 느끼며 다양한 감정을 갖는다. 2단계의 수행은 맹렬한 힘으로 에고를 꽉 잡아 닻으로 삼는 것을 호흡을 굳건한 닻으로 삼도록 기준점을 옮겨 준다. 호흡을 닻으로 하여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환경에서 인식되는 모든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괴로움이라는 갈등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원불변의 실체로서 '나' 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늘 알아차리는 것이다. 몸이라는 물질 작용은 물론이고 느낌, 생각, 의지, 정서, 추리 등 모든 정신 작용도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대상이다. 호흡을 닻으로 하여 모든 대상을 알아차리고 놓아 버려 흘러가도록 한다.

여기서 호흡인 닻조차도 놓아 버리고 어떤 대상이든지 지금 여기에서 현존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알아차리며 깨어있는 것이 마지막 3단계다. 대상을 바라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도 사라지고 오로지 명징한 바라봄만이 현존한다.

### 가장 밑바닥에는 삶이 있을 뿐

수행센터에서는 고도로 집중된 기술을 발휘하는 경험 한다. 래리 로젠버그는 수행센터에서의 경험도 소중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부딪치는 현실의 관계 속에서 수행이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1970년대 위빠사나 명상이 처음 서구에 소개되면서 미얀마의 마하시 사야도 수행법이 유행했는데, 이 수행서 걷기 명상은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강조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느림' 이 '영적' 인 것과 거의 동일시됐다. 반대로 빨리 걷거나 심지어 평상시 속도로 걷는 것은 '세속적' 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저자는 보통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속도로 매일 걸어 다니는 것은 너무나 친숙해서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시선에 의문을 던진다.

래리 로젠버그는 느림은 느림 그 자체일 뿐이고, 빠름은 빠름 그 자체일 뿐이며 우리는 이것을 다만 볼 뿐이라고 강조한다. 이렇게 마음을 챙기게 되면 어떤 속도로 걷기 명상을 하든 그 자체가 수행이 된다.

사랑하고,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신용카드 빚을 갚고, 유기농 식품을 사는 등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수행이 필요하다. 수행 센터에 앉아 있거나 어린 자녀를 안거나 상관없이 모두 하나의 삶인 것이다. 저자는 삶의 여러 형태를 비교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를 묻는다. 완전히 집중해 자연스런 속도로 걸으면서 명상을 배우고, 나와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섬세히 알아차리는 것도 좋은 수행법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 준다. 이것이 바로 래리 로젠버그가 이 책을 통해 일상의 구석구석까지 호흡을 통한 마음챙김을 적용시키는 방식이다.

### 미산 스님 번역으로 새롭게 탄생

래리 로젠버그의 전작 〈일상에서의 호흡명상 숨〉을 번역한 미산 스님은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있을 당시 저자와 함께 1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수행한 적이 있었다. 전작에 이어 〈호흡이 주는 선물〉도 번역하면서 래리 로젠버그의 수행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번역과 설명을 곁들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미산 스님은 1972년 백양사로 출가한 이래 봉암사와 백양사 운문선원 등에서 간화선 수행을 했으며 인도와 미얀마서 초기불교 선수행을 했다. 옥스퍼드대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상도선원 선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대인을 위한 자비명상 프로그램인 하트스마일명상을 계발해 누구나 일상서 자비 실천을 돕고 있다. 다양한 저서와 연구를 통해 학문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명상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변 확대에 큰 노력을 기울인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佛畵 중심으로 섬세히 풀어쓴 불교

## 그림으로 보는 불교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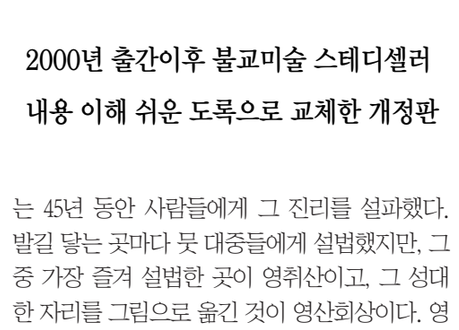
**정병삼 지음 | 풀빛 펴냄 | 2만 8천원**



이 책은 2000년에 출간돼 15년이 다 된 지금까지 불교와 불교 미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꾸준히 찾아 읽은 책이다. 10여 년간 간송미술관 수석연구원을 지냈고 1991년부터 숙명여자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오랜 세월 불교미술사를 연구한 필자가 방대한 자료수집과 미술학적 검증을 통해 흔히 절에서 보고 지나친 불화를 중심으로 불교의 세계를 섬세히 풀어 썼기에, 출간된 후부터 그 내용과 의의에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책의 전체적 구성과 내용 흐름은 유지하되,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는 불화를 채택해 이전 것과 대체했는데, 사진은 화질에 있어 훨씬 선명해졌다. 내용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되는 도록으로 교체 및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사진 설명에 있어서도 친절함과 상세함을 더했다. 표지 그림에 있어서도 불화 공부의 핵심이 되는 〈화엄경 변상도〉를 채택해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의 세계로 안내하는 책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전체적인 책의 느낌은 동시대 독자들의 고급스러운 눈높이에 가닿은 세련된 형태로 다시 태어났다.

이 책은 의미 있는 불화를 갖고 불교 이야기, 예를 들어 부처의 탄생과 출가, 보리수 밑에서의 깨달음, 불교의 가르침, 부처의 제자들, 부처 열반과 그 후 등을 세밀하게 살폈다. 또한 불교의 그림인 변상도의 의미, 정토와 지옥의 세계, 가람을 지키는 신에 관한 해설과 해석 등을 새롭게 시도했다. 아미타불의 극락세계, 삶과 죽음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감로탱의 그림도 밀도 있게 보여줬고, 겸재 정선과 단원 김홍도 등이 그린 회화 속에 나타난 불교 저변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또한 재미있게 풀었다.

이렇듯 불화 전반을 한눈에 훑어볼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 전체를 아우르는 역사와 흐름을 명료하게 보여 준 것이 이 책의 커다란 미덕이다. 독자들은 직접 절을 찾지 않고도 이 책에 소개된 관경 변상도 한 폭서 주불인 아미타불과 그 대중들이 이루는 극락정토와 설법회상 그리고 주위를 둘러 만든 극락에 이르는 수행법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2500년의 불교 역사를 담고 있는 절이 자리 잡고 있다. 절에는 각 전각마다 여러 가지 불화가 있고 그 그림들에는 불교의 가르침이 온전히 들어 있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그림들이 전각에 걸려 있는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불화를 멀리서 바라만 볼 뿐 그 본래 의도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 걸음 쉬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화에는 참으로 많은 내용이 들어 있다.



지장시왕도 (선암사 비로암, 송광사 성보박물관 소장)

어느 절에나 있기 마련인 대웅전에는 영산회상도가 있다. 세상의 크나큰 이치를 깨달은 붓다

### 2000년 출간이후 불교미술 스테디셀러
### 내용 이해 쉬운 도록으로 교체한 개정판

는 45년 동안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설파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뭇 대중들에게 설법했지만, 그 중 가장 즐겨 설법한 곳이 영취산이고, 그 성대한 자리를 그림으로 옮긴 것이 영산회상이다. 영산회상도는 붓다의 설법이 직접 이루어지는 장면이고 그래서 장엄과 감동이 충만한 자리이다. 아래쪽에서 법을 청하는 비구의 파르라니 깎은 뒷머리가 수도자의 경건한 자세 그대로이다. 무엇보다 이 그림을 있도록 하는 실제 주인공은 대중들 속에 끼어 다소곳이 한곳을 차지한 공양인의 모습이다. 우리와 처지가 다름없는 보통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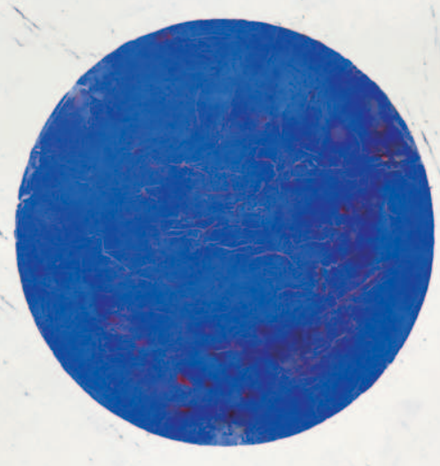
불화를 그린 화승은 종교적 정열과 예술적 자질을 조화시켜 이 영산회상을 그렸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마음으로 그림을 보며 저만의 생각을 한다. 서로의 얼굴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며 가는 길이 다른 만큼 천 사람마다 생각은 천 가지다. 그러나 영산회상 한뜻은 천 사람에게 하나의 뜻이다. 이 책은 다름 아닌 붓다와 직접 만나는 숙연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현대미술, 선禪에게 길을 묻다

서양예술인들은 왜 선에 심취하는가?
선은 서양의 현대미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제는 선을 모르면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없다."
*독일, 우도 클라센*

서양 현대미술의 흐름과 특성, 그 역사적·미술사적 배경,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 현대미술과 선이 만나는 접점, 현대미술의 주요 작가와 작품세계 등을 가볍게 써내려간 책.
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윤양호 교수의 새로운 미학적 패러다임!



글·그림 윤양호 | 신국판 변형 | 280쪽 | 값 15,000원

깨달음으로 이끄는
대장경 속 한마디



글 김형중 | 그림 허회태 | 신국판 변형 | 248쪽 | 값 15,000원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무엇인가?
방대한 대장경 속에서 가려 뽑은 명구에 알기 쉬운 해설을 붙여 누구나 쉽게 불법의 정수를 맛볼 수 있게 이끌어준다.
명구마다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강렬한 시각적 메시지를 주는 허회태 작가의 이모그라피(그림글씨)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 불교계, 2016 새해 '희망의 빛' 밝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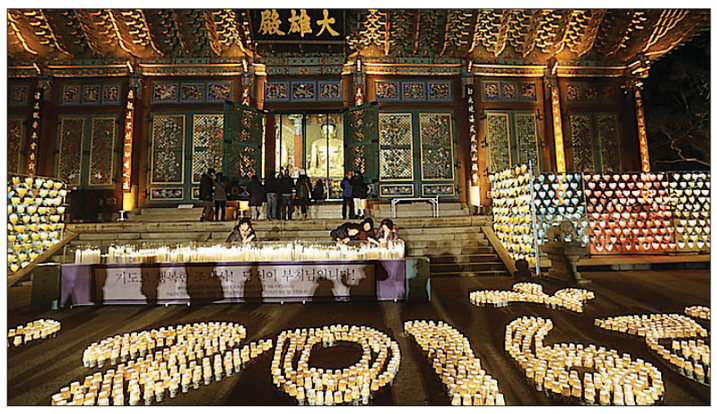
## 전 세계 불교도, 세계평화·행복 기원 행사 개최

병신(丙申)년 새해를 맞아 개인 안위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전 세계 불교도들의 서원이 이어졌다. 양력 1월 1일은 불교의 전통 행사일은 아니지만, 불교계는 새해 전 날부터 등을 밝히거나 타종의식을 거행하는 등 대중들과 함께 새해맞이 행사를 개최해왔다.

우리나라에선 서울 조계사가 촛불로 새해 첫 밤하늘을 수놓았다. 조계사는 1월 1일 병신(丙申)년 새해를 기념키 위해 대웅전 마당에 '2016'이란 글자를 따라 촛불을 밝히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새해를 기원했다.

또한 일본에선 각지 사찰들이 1월 1일 정오 0시 정각에 맞춰 108타종을 울리는 것이 풍습이다. 우리나라 사찰서도 신년 타종식을 진행하곤 하는데, 일본에선 '새해에는 108번뇌를 소멸하자'는 의미를 담아 예로부터 108타종을 실시해왔다.

이에 대해 캐나다 벤쿠버에 위치한 불교사원의 타츄야 아오키(Tatsuya Aoki) 스님은 주간언론 'Vancouver Courier'과 인터뷰서 "신정은 불교에서 특별히 종교적 의미를 가지진 않는다"면서 "'무상(無常,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을 강조하는 불교철학이 새해를 기점으로 변화된 삶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염원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에 이런 전통이 생긴 것 같다"고 언급했다.


서울 조계사는 2016년 평화와 안위를 염원하는 신도들의 마음을 담아 대웅전 앞마당에 촛불을 밝혔다. 사진출처=AP통신

**촛불·타종 의식 등 행사 열어**
**미국 등 서양서도 불교식 새해맞이**
**韓,日 등 아시아 국가 풍습 전례**
**"108번뇌 소멸이란 믿음서 비롯"**

이와 관련해 UBC 대학교 쇼타로 아이다(Shotaro Iida) 종교학 교수는 "불교철학엔 '108 번뇌'란 말이 있다. 사람들은 새해에 108번 종을 울림으로써 108가지 번뇌를 소멸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며 "타종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 또한 삶의 덧없음과 무상함을 환기시키기 위해 의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일본의 풍습은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하와이 지역에도 번져갔다. 1월 1일 하와이 주(州) 호놀룰루 지역에 위치한 히가시 홍완지(Higashi Hongwanji) 포교원, 조도(Jodo) 포교원을 비롯해 하와이섬에 위치한 혼파 홍완지(Honpa Hongwanji) 포교원, 카우아이섬의 카파 홍완지(Kapaa Hongwanji) 사원 등은 하와이 주 전역서 108타종의식을 거행했다.

이에 대해 'Los Angeles Times'는 "12월 30일 108타종 의식에 참여키 위해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불자들이 각지 사찰로 모여들었다"면서 켄준 카와와타(Kenjun Kawawata) 씨의 말을 인용하고, "이러한 전통은 일본 불교로부터 유래된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뉴욕에 위치한 추앙 옌 사원에선 1월 1일 아침 범종교 단체들이 모여 전 세계인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는 미국불교협회(Buddhist Association of the U.S.)를 비롯해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 종교인들이 함께 했다.

이날 미국불교협회장 비구 보디(Bhikkhu Bodhi) 스님은 참가자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빛으로 가득한 지구를 상상하라. 그 빛은 정의, 평화 그리고 사랑으로 온 우주를 감싸며 우리 곁으로 내려앉을 것이다"고 설했다.

또한 일본불교 대표로 참석한 켄짓슈 나카가키는 "악한 것은 말하지 말고, 듣지도 말며, 봐서도 안 된다"는 속담을 인용하고, "때로 우리는 진정으로 말하고, 듣고, 봐야할 것은 놓치며 살아간다. 새해에는 하루하루 사려 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미국 아이오와 주(州) 대번포트(Davenport) 도시에 위치한 람림 카담파 불교센터는 새해 복을 기원하며 '그린 타라(Green Tara)' 보살에게 찬불 기도를 올렸다. 타라 보살은 티베트 불교서 관세음보살과 함께 가장 추앙받는 보살 중 한 명이다.

이곳에서 전담교사로 근무중인 조 고워티어(Joe Goauthie) 씨는 "타라 보살에게 기도를 올리는 것은 개인이 새해 다짐을 세우며 마음을 정돈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면서 "기도 중 떠오르는 영적 생각들을 노트 등에 기록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 여성인권 선양, 자전거타고 印전역으로

## 드룩파 종단 비구니 일동, 11월 18일~1월 9일
## 네팔 카트만두~인도 뉴델리 자전거 일주

'쿵푸(Kung fu)'로 유명한 티베트 불교 드룩파(drukpa) 종단 비구니 스님들이 '여성인권 선양'을 주창하며, 자전거 일주에 나섰다.

인도 언론 'The Times of India(이하 TOI)' 1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드룩파종 비구니 스님 235명은 아시아 지역에 여성인권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자전거 일주를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18일 네팔 카트만두서 출발한 스님들은 인도 고라크푸르(Gorakhpur), 파트나(Patna), 라즈기르(Rajgir) 지역 등을 거쳐 1월 9일 인도 뉴델리서 일주를 마감했다.

'TOI'는 "네팔 카트만두의 드룩 아미타산(Druk Amitabha Mountain) 사원과 인도 라다크(Ladakh)의 나로포탕(Naro Photang) 소속 비구니 스님들이 현재(현지시간 3일 기준) 약 2000km 지점을 넘어섰다. 마지막 지점인 델리까지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드룩파 수장 걀왕 드룩파(Gyalwang Drukpa)는 "인도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자전거 일주 동안 우리는 여성존중 및 동등한 인권가치 인식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쿵푸(Kung fu)'로 유명한 티베트 불교 드룩파 종단 비구니 스님들이 '여성인권 선양'을 주창하며 지난해 11월 18일~1월 9일 자전거 일주를 실시했다. 사진출처=BusinessLine

자전거 일주단에 참여한 코네혹 라모(Konehok Lhamo)는 "일주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는 등 적극 협조해 준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주(州) 정부에 감사하다"며 "우리 235명 비구니들은 아시아지역 여성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日불교, 아마존닷컴에 스님파견 중단 촉구

## 日불교회 "불교 상업적으로 이용해 이미지 훼손" 비난

일본 불자들이 인터넷 통신 판매업체인 아마존 재팬에 스님을 파견해 불교의식을 집전하는 서비스 판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구랍 27일(현지시간) "최근 일본에선 가족 장례식 때 재를 올리거나 독경할 스님을 파견하는 인터넷 주문 서비스가 인기"라며 "하지만 일본 불교계서 종교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이미지가 훼손되는 점을 우려해 해당업체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님 파견(rent-a-monk)' 서비스는 일본 도쿄에 있는 장의(葬儀)관련 업체인 '민레비' 사가 2013년 5월 처음 선보였다. 불교 각 종파 스님 약 400명과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고, 전화와 메일로 장례의식과 독경을 맡을 스님을 파견하는 것이다. 민레비는 사업을 확장시켜 아마존 재팬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4종류의 서비스 패키지를 3만 5천엔~5만 5천 엔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제공하며, 파견된 스님들은 일본 전역의 가정집을 방문해 재를 올리거나 독경을 한다.


최근 일본에선 가족 장례식 때 재를 올리거나 독경할 스님을 파견하는 인터넷 주문 서비스가 인기를 끌었다. 사진출처=텔레그래프

이 서비스가 아마존 저팬을 통해 판매되자 일본불교회는 '스님파견' 서비스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사이토 아키사토 일본불교회 대표는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도 이런 상업적 종교행위는 보지 못했다"며 "세계를 무대로 사업하는 아마존의 종교에 대한 자세에 의문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 "달걀 얻고 싶다면 암탉 보살펴라"

##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그룹 회장 경영철학 '주목'

기업 경영자들은 주주들을 만족시키기 전에 임직원들 행복과 만족을 먼저 생각해야할까? 경영전문가이자 억만장자, 또 불자로 널리 알려진 이나모리 가즈오(稻盛和夫 · 83) 교세라(Kyocera) 명예회장에 따르면 대답은 '그렇다'이다.

이나모리 회장은 마쓰시타 고노스케 파나소닉 창업자, 혼다 소이치로 혼다 창업자와 더불어 일본서 가장 존경받는 3대 경영인으로 꼽히며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1959년 교토세라믹(현 교세라)을 창업해 연매출 1조 엔이 넘는 세계 100대 기업으로 키웠으며, 창업 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는 신화를 남겼다. 또한 2010년 2월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국영기업 JAL을 8개월 만에 흑자로 돌려세우는 전설을 쓰기도 했다.

그가 일본 국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올바른 경영 철학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이나모리 회장은 "당신이 달걀을 얻고 싶다면 암탉을 잘 보살피면 된다. 만약 암탉을 괴롭히거나 죽인다면 달걀을 얻을 수 없다"라고 명쾌하게 말한다.

이처럼 이나모리 회장의 독특하면서도 명쾌하고 단순한 경영 철학에 중심을 이루는 것은 '카르마 경영'이다. 불교에 깊이 매료돼 1997년 교토 사찰로 출가하기도 했던 이나모리 회장은 "남에게 인정을 베풀면 언젠가 그 보답이 돌아온다"는 말을 늘 지키려 했으며, 직원들에게도 이러한 자비심을 실천했다. 그래서 기업 초창기 어려운 시절에도 직원들을 끝까지 책임지려 했으며,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시도하지 않는 등 '남을 이롭게 하는 경영'을 펼쳤다.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 사진출처=CW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이나모리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경영 철학을 간략히 소개했다.

△ 사원들은 반드시 비즈니스 목표와 중심 철학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나모리 회장은 직원들에게 작은 소책자를 제공하고 "이타심과 합리적 도덕성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직원들이 공적 가치를 통해 어떤 난관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

△ '아메바 경영'으로 리더십을 확산시켜라

이나모리 회장의 경영방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메바 경영'이다. 아메바 경영에서는 '사람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인체의 수많은 세포들이 한 가지 의지 아래서 조화를 이루듯, 회사에 있는 몇 천개의 아메바(소집단 조직) 구성원 모두가 마음을 합해야 비로소 회사는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나모리 회장은 "교세라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자에서 아메바 구성원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유대관계로 맺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리더는 주주들을 만족시키기보다 사원들 행복에 집중하라

이나모리 회장은 '전 사원들의 행복을 추구함과 동시에 인류,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라는 경영이념을 세우고 있다. 사원들이 행복을 느낀다면 일을 보다 능률적으로 할 것이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기업 리더들은 주주들이 아닌, 정신 · 물질적으로 조직원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보형 객원기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건 물 안 내

- 수도권 최고의 전원주택, 사찰, 암자, 별장 등 이용가능
- 관악산 비봉산 정상에 위치하여 천혜의 절경을 지님
- 건평 약 25평, 사용중인 국유지 텃밭 약 2000평
- 양도가 3억 5천만원



문의 010-8868-1676 또는
031-421-1231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실외 양초 공양집

신제품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18㎜
연소시간 : 60~70시간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일본 직수입


심산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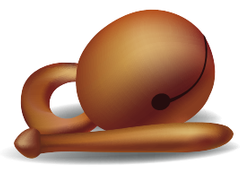
#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4×5.8) 4만원, 1회 1Box (8.8×5.8)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부처님이 계시더라도 그 분의 가르침을 따 르지 않는 다면 무슨 큰 이익이 있을 것이요, 공부하기 어려운 세상이라도 부처님의 가 르침을 받들고 따른다면 무슨 상심할 일이 있겠느냐.

– 자경문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고치는법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 (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수강생 모집**
서예,문인화,선묵화
– 대상 : 스님,학생
(회비없음,무료지도)
– 원장 : 정선스님(박용국)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수상,
개인전5회, 대구 길상사 주지
주소 : 대구 중구 대봉2동 744-21
문의 : 삼소정 서예문인화 연구원
대구 향교앞 010-6797-3223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운이 나쁜데 어디 운을 고칠 부적 없습니까?**
"치우천왕 정담" 검색
농협 351-0527-5845-43
* 내 마음의절 *
010-4500-8234

**명리첩경의 저자 혜공**
혜공철학원
지리산 청학동에서
명리공부와 수련 하실 분
010-3054-3345
전화상담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126)
02-387-3216
010-9350-3216
용담사

**황토와 편백나무로 지어진 집**
암환자나 난치병 환자를 받습니다. 바위와 소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풍광, 항상 산소가 녹아있는 1급수 약수터, 주위 숲속 산책로, 서울에서 가까운 용인에 위치.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031-333-5014. 010-7105-5013
수정산 수정사

**비구니 기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579-6444
051-721-044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346-2328
054-636-2328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신심깊은 공양주 모십니다**
(출퇴근, 숙식가능)
경북 경산시
010-3955-165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234-2198
010-8721-219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010-3499-3721

**● 신통력을 손에 잡는 방법을 스님에게만 일러드립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 032)664-0048 / 011-741-0867

**빙의(퇴마) 전수해 드립니다 (최면)**
– 빙의된 본인 입으로 어떤 영가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몸에서어떤 일을 했는지 등 명확하게 찾아 내어서 천도합니다. (몸이 아닌 집안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
– 이유없이 아픈 몸, 분노, 불안 등을 가진 분이나 멀쩡한 분들도 누구나 빙의 되어 있습니다.
절,포교당,점집 운영시 꼭 필요함(그외 다수 전수)
만경사 051)757-7925. 010-3156-6414 운유 합장

지극한 신심으로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010-5121-3347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영재 철학관 수강생 모집**
암기없이 바로 적용하는 '필살기'
네이버,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중국 귀장술, 일본 도궁술 단기 완성
문의전화 010-8558-2345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①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② 역학(기문둔갑) 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③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기 문 둔 갑 강의안내**
기문둔갑은 1세부터 90세까지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기문을 보면 부모, 형제, 부부, 자식 등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운명에 공직자,사업자,직장자가 정해져 있다. 공직 생활할 운명이 사업을 하면 실패하며, 사업자가 왜 실패를 하는가. 왜! 부도가 나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며 학생이 왜 공부가 안되는지 어떤 장애로 인해 공부가 안되는지 본인과 잘 맞는 학과 선택을 잘 알 수 있으며, 본인이 어떤 질병을 타고 났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게 기문이다. 명리를 모르는 초보자도 5개월이면 완성이 가능합니다. 아는게 힘이다. 성의껏 강의 해 드립니다.
(출장강의 가능, 스님직접 강의, 항상 문의 가능) 010-3544-9777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원격상담문의 010-4293-7075 부천 상동역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한국불교전체 종단 · 단체 법 인 연 대**
사단법인 세계평화불교종단 연합회

● 종단법인 설립 사암등록 안내
● 민법 · 문화광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문의
● 종무행정
010-2500-0111 / 011-356-3427
사찰홍보동영상제작방송
연 합 불 교 방 송
010-2500-0111,010-5334-9008

**이젠 풍수도 과학적이고 정통해야 한다**
◆산세를 자연과학으로 풀어내고
◆장심통으로 땅속혈맥 읽어내며
◆발복현상으로 반드시 증명되고
◆백발백중 감정 및 점혈 할수있는
新 풍수원리
太極山水穴脈地理
※ 태극서린 혈맥터에서 인물나고 부자되며 집안이 흥성한다!!
◆발복흥성 혈맥잡는 비술득통!!
◆명당은 땅속 혈맥 갖춰야 진터!!
음 · 양터가 길흉화복 좌우한다!
▶족집게 터감정 진혈점지 알선상담◀
(절터 사업장 주택지 묘지 납골 수목장 등)
※ 비술 전수자 모집
문의 010-4600-7399 / 041-338-5595
전국좋은터잡기선양본부 덕숭산 방술회
덕숭산인 지천공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 | |
|---|---|
|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
|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br>◆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br>◆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
|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br>◆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br>◆**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br>◆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br>◆**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 |
|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br>◆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br>◆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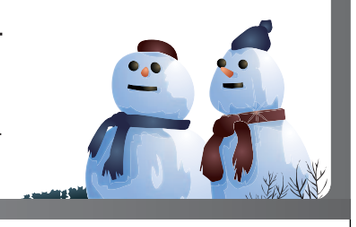
#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욕심이 많으면 고통이 되는 줄 깨달아라.
생사에 시달림은 탐욕에서 비롯한다.

- 불설팔대인각경 -



## 사 찰 안 내

**▶ 땅넓고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삼량진
- 총부지 : 33,000평
- 건물 : 목조법당(10평), 암벽위 멋진 산신각, 요사채(1동~5동), 계곡물 있음
- 가액 : 6억 6천

051-863-6622/ 010-3560-8522

**▶시원하게 확트인 멋진 조망권◀**
- 위치 : 거제도 시내(롯데캐슬 아파트 부근)
- 총부지 : 약 400평
- 건물 : 법당 25여평 및 요사채 80여평
- 가액 : 3억 5천만원
- **전, 월세 가능함**

직통 010-9906-3631 혜관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 2로 17번길 1,504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cafe.daum.net/temple0 연산공인중개사사무소

## 원주시 추천사찰안내 (www.이박사.com)

- 기와법당 50㎡ 요사채 80㎡
- 창고 20㎡, 토지 760㎡
- 위치 : 원주 IC에서 7분거리
- 저수지부근 마을 뒷편 사찰
- 가액 : 2억 2천만원
- 조정가능함(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 광진 사찰 안내

| | |
|---|---|
| ◎ 위치: 서울 | ◎ 위치: 경기 |
| ◎ 대지: 100평 | ◎ 대지: 1300평 |
| ◎ 법당: 30평 | ◎ 법당: 50평 |
| ◎ 요사: 60평 | ◎ 요사: 100평 |
| ◎ 양도: 17억 5천 | ◎ 양도: 16억8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 단독주택(2층 건물)형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왜관읍
- 평수 : 대지 약 55평
- 건물 1층 요사 30평(방3, 화장실3)
- 2층 법당 25평
- 특이사항 : 모든 집기 및 시설 완비,
- 배후지 인구 많고 생활여건 좋음 (뒤가 산이며 기차역, 관공서, 시장등 도보 10분거리내 근접)
- 양도가격 : 1억 5천(상담후 절충 가능)

070-8612-0478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불국역 부근
- 대지 200평, 건평 25평 (대웅전), 산신각
- 요사채 12평, 대웅전 및 방3개 주방
- 가액 : 2억 9천(조절가능)
- 최고 입지적 조건 갖춘 암자임

010-5427-3699

##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IC부근 목조사찰
- 토지 730㎡, 주차장별도로 있음
- 목조법당 65㎡, 목조요사 130㎡
- 노천불 산신각
- 원주시 근접거리, 교통편리함
- 가액 : 5억5천만원(융자2억 포함)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3억 3천만원

010-4606-7253

##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순천시 상사면 와룡길 55-105 순천역에서 20분거리
- 해돋이 명소, 해발 350미터
- 종교부지로 허가 나왔음 (분할도 가능)
- 부지 1050평, 건물 60평
- 가액:4억

주인직 010-3228-9787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 대지 183평, 요사채 60평 (큰방4, 큰거실2, 화장실2)
- 인법당 2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010-9330-5860

## 사 찰 안 내
- 위치: 대전시내 보문산부근
- 전망좋고 위치최상
- 식장산과 보문산공원이 바로 앞에 보이는 보문산 자락에 있음
- 사찰에서 보문산 50미터, 대전역(택시)8분거리
- 대지 70평, 건물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25평
- 삼존불, 산신, 칠성, 신중탱화, 인등
- 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3억 3천(가격절충)

010-8701-9608

##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법당 28평, 목조건물, 남향
- 요사채 : 방2, 공양간, 화장실
- 평수 157평
- 가액 : 2억 9천

010-3508-7710

##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1,420평, 법당 20평, 관음전, 종각
- 요사채, 공양간, 창고, 차고, 외부화장실 등등
- 대형주차장 등
- 스님 건강상 문제로
- 가액 : 3억 3천

010-4628-5699

## 사찰 대웅전
- 건평 24평
- 내오포 외삼포

해채 복원하실 인연 찾습니다.

010-4896-0108

## 사찰(급)안내
- 위치:경남김해
- 평수 248평
- 법당23평.요사채.방가루
- 마당잔디.조경전망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도보10분거리
- 가액:5억7천5백만원
-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급 양도

010-5019-5385

##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 (버스 정류장 앞)
- 3층 건물 중 2층 약 80평, 방 5
-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 (냉, 난방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현재 법회중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805-5950 (산중 불사중)

## 도심 속 포교원
- 위치 : 부산 사하구
- 반지하 150평 상가건물, 시설완벽
- 별도로 사용공간 약 20-30평 공간있음
- 주위에 대단지 아파트
- 꼭 하실분만 연락 요망
- 가액 : 2억 5천 전세 8천만원에 월 100만원

010-4519-7780

## 도심속의 작고 아담한 포교원
- 위치: 대구 서문시장 부근
- 철학이나 영으로 포교하실분
- 관세음보살, 호신불, 신중
- 방2개, 주방, 욕실, 창고
- 총 13평
- 가액 : 6,5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8439-1231

##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급양도, 방문요

010-3186-0361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구암동
- 평수 : 50평
- 3층 건물 3층 전체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50만
- 시설비 1,500만원 (답사후 협의 결정)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3292-2414

##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숭인2동) 3층
- 전철1호선, 동묘역, 2번,3번출구 약 20m거리
- 평수 20평, 법당10평, 방2개 주방1, 화장실, 현재 살림합니다
- 법당 5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인로왕보살 글문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1,600만원

010-3722-2738

##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소재
- KTX 역세권, 조용한 산사
- 교통편리, 주차장완비
- 대 197평, 법당 30평
- 요사 1동(방3), 산신각1동 5평
- 양도가 : 3억 5천만(절충가)

010-6658-1681

##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시내 사찰
- 대지 80평, 2층 법당 25평
- 1층 요사채 25평
- 가액 : 4억 2천 인수

(주) 한길부동산중개법인 부산연제구/이기현 보조인 이재무

010-3808-4499
051-925-2290

##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임야: 종교부지 합 2,000평
- 법당: 조립식 16평
- 요사채:조립식 30평
- 가액:대출 7,500안고 1억 1천만원

010-7188-7723

##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30평, 삼존불, 법당1, 방3개, 화장실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 사찰터(급)안내
- 위치:경북영천신녕1075번지외5필지
- 등기상 3천평이나 실평수4천여평임
- 가옥 60여평 한동
- 현장 대형차 진입
- 사계절 계곡물 흐름
- 가액 : 4억(절충가)

010-6253-3107

##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면
- 3층건물중 3층
- 법당 27평,삼존불
- 주차 20대가능
- 몸만들어오시면 법회가능
- 보증금 2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3502-2618

## 포교당. 토굴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1동
- 2층. 법당, 거실
- 방2개, 화장실
- 총25평
- 법당이나 토굴로 적합함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25만원(시설비 없음)

010-6548-9191

##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 부근
- 평수 : 50평 2층 방1개 화장실, 주방 별도
- 가액 : 보증금 1,7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3794-5215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태안군 버스터미널에서 차로 10분거리
- 대지 1,500평(일부 전)
- 건물 : 법당 1동, 요사채 1동, 다용도 건물1동
- 법당 및 요사채 시설완비 (즉시 입주 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

010-5437-8500

##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지역 문막 IC에서 5분거리
- 평수 280평, 대지200평
- 법당:목조로된 황토 건물 임법당 30평 요사채 15평
- 특징: 마을 끝 산 밑에 위치함 (전원 주택가능)
- 가액 : 3억 2천 (원주시내 10분거리)

010-9070-9380

## 사찰 및 요양원 안내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요양지

**- 사 찰 -**
- 위치: 경남 밀양
- 2층: 법당 3존불(25평)
  1층: 칠보관음궁전 천불상(30평)
- 요사채 45평. 큰방 3개 황토방 1개

**- 명당 터 -**
- 1층 90평, 2층 90평
- 입소정원 25명, 현원 24명
- ※요양원만 분리 양도 가능

- 총 대지면적 약 900평 / - 가액: 19억

010-9567-0813

##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김해시내 요지
- 평수 : 50평 3층 중1층 주차완벽
- 오존불, 소불 등 각단 평화 시설완벽
- 쑥뜸질방 2개, 쪽방2개 부엌겸 거실 큼
- 인근 5일장 새벽시장 3분거리
- 스님 환영,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2565-7200

## 포교원 안내
- 위치 : 중량구(우림시장)사거리
- 2층, 약 30평
- 삼존불, 신중, 집기
- 가액 : 보증금 2,000에 70만원

시설비 2,600만원(가격절충)

010-5387-6767

## 암 자 안 내
- 위치: 경주시 충효동 981-3번지
- 구미산(대지) 64평
- 아담하고 깨끗한 절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불, 지장보살, 신중(산신)
- 땅값만 주세요
- 가액 : 6천5백만원(조정가능)

폰 010-4040-3588
집 054-742-8780

##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2016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8기 수강생 모집 안내

그동안 **제1기에서 제7기**까지 전국에서 **9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배우신 모든 스님께서 큰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심>

**강의 특징**

7개월 동안의 교육기간중 5개월은 초보부터 고급, 비법까지 완벽하게 전수 2개월은 사주팔자를 뽑아 놓고, 운세나 운명을 정확하게 직접 통변 할 수 있는 통변술(추명술)을 가르쳐 드림.

명리학을 배우시고 통변을 못하면,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통변이 자신 없으신 스님들께서도 이 기회에 신청하셔서 배워보십시오.

**대 상**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 교육기간 : 2016년 3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 수 강 료 : 7개월 교육전기간 강의료 무료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책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 대금 20만원)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미륵사
- 주 지 : 현승(이점용)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369번지

위 인과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7일

대한불교일련종 총무원장 법하

기적의 명상치료

비디아말라 버치 · 대니 펜맨(명상 지도자)

〈6〉 5주차: 긍정의 뇌 회로를 설계하라

# ‘숨바꼭질’ 중인 즐거움을 찾아라



### 인생은 괴로움이다?

브라이튼 해변에 파도가 부딪히며 부서졌다. 앨리는 조약돌 위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 놓았다. 다리가 이곳저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아픔도 그녀를 별로 괴롭히지 못하는 듯했다. 앨리는 메모장을 집어 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펜으로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노을, 해변에 반짝이는 조약돌, 아직 꽃을 피우고 있는 헤더, 반짝이는 길바닥, 거미줄로 뒤덮인 부드러운 풀밭, 바스락거리는 이파리들, ….”

이 목록은 그녀가 그날 하루에 경험했던 모든 긍정적인 것들을 떠올리기 위한 것이었다. 앨리는 숨을 크게 내쉬며, 인생은 참 좋은 것임을 깨달았다. 앨리는 조금 더 노을을 바라보다가 다시 지팡이를 쥐고 쩔뚝거리며 조약돌 해변을 가로질러 쉽 스트리트(Ship street)를 향했다. 그곳에 가서 감자튀김과 으깬 완두콩을 먹으며 그 맛과 향기, 식감을 즐기면 그날의 숙제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앨리는 ‘자신이 지금 있는 곳’에 대해 마음챙김 과정을 수강하는 중이었다. 몇 주 전만 해도 도저히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것, 인생을 즐기는 중이었다. 아직 통증은 남아 있었지만 크게 줄어들었다. 마음챙김 수련을 통해 2차 괴로움을 상당 부분 제거한 덕분이었다. 이것만으로도 참 기뻤지만, 앨리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었다. 바로 즐겁고 충만한 삶이란 그저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는 삶이 아닌, 그보다 훨씬 큰 무엇이라는 사실이다. 그녀는 다시금 삶을 끌어안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물론 나머지 통증도 (이왕이면 지금 당장)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그녀는 괴로움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다.

오래도록 이어지는 큰 역경 속에서도 행복과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경탄한다. 왜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해내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지 밝히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다시 한 번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과정에서 괴로움을 감소시켜 줄 선순환을 시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고통 받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진실이다. 세계적인 종교 중에는 ‘인생은 곧 괴로움이다’라고 말하는 종교도 있다. 신경과학자들이 말하길 우리에게는 ‘부정적 편향(negativity bias)’이 있다고 한다. 어쨌거나 우리가 겪는 괴로움 중 상당 부분은 자연이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새겨 넣은 본능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위험을 피하는 데 대단히 뛰어났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가가 따랐다. 부정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추도록 내정된 뇌가 진화되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암울한 측면만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졌다. 선천적으로 부정적 사고방식을 타고난 덕분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위협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고, 무엇을 보든 그 안에서 결점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 마음이 통증과 괴로움에 아주 날카롭게 초점을 맞추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이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삶의 즐거움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쳐 버림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부정적 편향은 우리가 통증과 괴로움을 지각하는 과정에서도 본질적으로 작용한다. 강렬한 통증과 고통은 몸 전체에서 느껴지는 경향이 있고, 즐거움은 보통 국소적으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신적 고통은 신체적 고통과 괴로움을 끝없는 악순환 고리로 빠져들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이 조금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듯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적 · 신체적 괴로움으로 가득한 삶만을 살도록 저주받은 것은 아니다. 부정적 편향은 극복이 가능한 것이고,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균형을 바로 잡을 시간이 되었다. 다시 한 번 삶을 즐기기 시작할 시간이다.

### 뇌 회로 재배선하기

부정적 편향을 이해하는 것이 균형을 되찾는 첫 번째 단계다. 다음 단계는 편향을 지속시켜 불필요한 통증과 괴로움을 이끌어 내는 뇌의 네트워크를 부드럽게 달래주는 것이다. 이런 네트워크가 진정되기 시작하면 인생의 즐거움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뇌 회로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균형을 되찾으면 사물을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고, 더 효율적으로 행동하며, 일상생활로 인해 정신이 산만해지거나 난처한 처지에 빠지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평온해지는 느낌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아주 어렸을 적에 경험했을 따듯하고 두근거리는 사랑의 느낌이다. 평온한 고요함의 느낌이 쌓이다 보면 통증과 괴로움이 훨씬 더 줄어들면서 불안, 스트레스, 불행, 탈진 등의 느낌도 해소될 것이다.

**즐거움은 발견되기 기다리며**
**언제나 우리 곁에 항상 존재**
**부정 편향 극복 비법은 균형회복**
**마음챙김 일상 즐거움 전환 중요**

균형 회복은 마음챙김 의식을 일상의 작은 즐거움으로 옮김으로써 달성된다. 이를 위해 즐거움의 보고 명상(Treasure of Pleasure meditation)을 실천에 옮기고, 이로써 열린 마음의 의식을 나머지 하루에도 최선을 다해 그대로 옮겨 보기를 권하는 바이다. 이것은 똑같은 경험이라도 그 안에 담긴 서로 다른 측면들 사이로 의식을 옮겨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먹는 행위에 집중하고 있을 경우 맛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대신, 그 안에 담긴 서로 다른 풍미와 향기, 식감도 함께 흡수하려고 애써 보자.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체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경험이 자신의 일부가 되도록 의식적으로 격려해 주어야 한다.

이번 주 수련을 처음 시작할 때 흔히 나타나는 반응은 혹시나 집중할 만한 즐거운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실 당신의 삶 속에는 언제나 무언가 즐거운 일이 함께하고 있다.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음악, 막 깎아낸 잔디밭 냄새, 혹은 나뭇가지를 쓸고 지나는 바람 소리일수도 있다. 의식적으로 무언가 즐거운 것을 찾으려 했을 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사람은 지금껏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마치 인생이 자기를 괴롭히려고 음모라도 꾸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즐거움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 지치고, 우울하고, 탈진하고, 특히나 오늘따라 더 괴롭게 느껴지는 날이면 어떤 형태로든 행복을 찾아보려는 생각 자체가 아무래도 벅차게 느껴지기 십상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즐거움의 보고 명상(Treasure of pleasure meditation)이 추구하는 ‘목표’가 조류처럼 밀려오고 밀려가는 당신의 경험을 거스르는 듯 여겨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마음챙김에는 아무런 목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마음챙김은 탐험에 가깝다. 마주치는 것을 찾아내는 것으로 그만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만 만약 당신이 즐거움의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열면, 분명 즐거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즐거움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며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 기준선 강화하기

지난주에는 자신의 기준선을 계산해 보았다. 매일 증상에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 기준선을 설정하면 자신의 문제점을 악화시키지 않는 꾸준한 페이스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주에는 기준선을 미세하게 조율한다. 아마 자신이 어떤 활동은 쉽게 완수하는 데 반해 어떤 활동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부분을 다림질하듯 고르게 펴기 위해 이번 주에는 의식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한다.

첫째, 증상의 재발없이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은 같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시행에 옮긴다. 즉, 활동의 지속 시간과 강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 기준선을 높일 시간은 나중에도 충분히 있다. 둘째, 증상의 재발을 야기하는 활동은 시간을 조금 줄이도록 한다. 현재의 기준선에서 80퍼센트 정도의 시간으로 줄이자.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찾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기준선을 계속 낮춰 나가자. 그리고 기준선을 낮추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기억하자. 이 훈련의 목표는 즐거우면서도 지속 가능한 마음챙김 리듬을 확립하여 가볍고 유쾌한 태도로 실험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것이다.

페이스 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이 필요해지기 전에 미리 휴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직관에 어긋난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하면 끝까지 마무리하거나, 통증이나 탈진, 스트레스 등으로 멈출 수밖에 없을 때까지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휴식이 필요해지기 전에 휴식을 취하면 인생이 좀 더 즐거워질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 자꾸만 자기가 가진 자원의 한계를 확대하려 하는 대신 에너지를 아끼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때로는 페이스 조절 프로그램을 일상생활에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다. 페이스 조절의 핵심은 자신의 삶에 페이스를 맞추는 것이다. 마음챙김을 통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보면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가끔은 페이스 조절에 좀 더 금욕주의적이고 엄격해지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다.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괴로워서 좋을 것은 없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거나 기준선에 강박적으로 매달린다고 좋을 것도 없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좀 더 깨어 있는 상태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돕는 보조 도구일 뿐, 자신을 매질하기 위한 채찍이 아님을 명심하자. 그리고 자신의 삶을 관리할 다른 상식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는 일에도 겁먹을 필요가 없다. 통증을 물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두려워 말고 그 방법을 사용하자. 예를 들어 스테프는 작업할 때 경사진 책상을 사용했더니 통증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되었다. 페이스를 조절하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환경에 따라 이것저것 실험을 해 보자. 의자도 바꿔 보고, 쿠션도 바꿔 보자. 매트리스, 키보드, 머그컵 등 실험해 볼 수 있는 목록은 끝이 없다. 여기서는 다양하게 실험해 보는 것이 핵심이다. 무엇이 자신의 괴로움을 덜어 줄지 미리 내다보기는 어려운 법이다.

이 글은 〈기적의 명상치료〉(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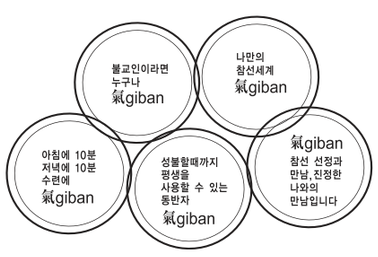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 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BTN 드라마 '붓다'

본방 | 매주 수 · 목 저녁 9시 재방 | 월 · 화 오후 4시 / 목~일 새벽 1시

# 견고한 믿음으로 탐욕과 성냄을 없애라

**지난 줄거리**

부처님은 깨달음을 성취한 후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받는다. 바라문 등 기존에 수행을 하고 있던 출가자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부처님과 인연에 따라 설법을 듣고 상당한 경지를 얻은 이들도 많았다.

부처님의 아버지인 숫도다나 왕은 자신의 아들이 전륜법왕, 즉 붓다를 이뤘다는 소식을 듣고 부처님이 자신을 찾아와주길 학수고대 했다. 성도 후 6년 만에 부처님은 고향에서 부왕을 만난다.


살인마 앙굴리말라를 제도하는 부처님. 부처님의 전법교화는 인도 전역에서 빈부와 신분에 상관없이 펼쳐진다.

41화에서 부처님은 드디어 숫도다나 왕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부처님은 왕자였던 나라로 돌아왔으나 걸식했고, 소식을 들은 부왕은 재가자로서 공양 올리기를 요청했다. 부처님은 그제야 왕궁으로 가서 부왕의 공양을 받았다. 부왕은 부처님에게 며느리 야소다라가 그동안 지내온 이야기를 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한다.

"그녀가 저를 보살피고 절개를 지켰던 것은 금생만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원망과 그리움으로 울고 있는 아내를 찾았다. 야소다라는 아들 라훌라에게 "아버지를 찾아가 유산을 달라 하라"고 일렀다. 라훌라가 찾아와 이렇게 말하자 부처님은 마하 목갈라나에게 라훌라의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혀주라고 했다. 라훌라도 출가를 한 것이다. 이어 왕위를 물려받을 위치에 있던 난다 태자까지 출가했다. 그 뿐 아니라 사촌인 아난다, 밧디야, 아누룻다도 출가했고 왕자의 이발사였던 우빨리까지도 출가했다. 줄줄이 이어지는 출가에 숫도다나왕은 절망했다. 그리하여 한 명 남은 왕자 마하나마가 태자가 되었다.

빠세나디 왕을 귀의시키고, 석가족과 꼴리야족의 가뭄으로 인한 싸움을 중재하는 등 부처님의 전법행은 이어진다. 이후 까삘라왓뚜 근외 큰 숲에서 머물던 부처님은 비보를 듣는다. 숫도다나왕의 위독함을 알리는 소식이었다. 부처님은 왕궁을 찾았다. 숫도다나왕은 아들의 손을 잡은 후 합장한 채 눈을 감았다.

장례 후, 어머니 마하빠자빠띠가 고운 가사 한 벌을 들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러 왔다. 부처님은 그것을 승가에 보시하라고 했다. 마하빠자빠띠는 또한 승가에 귀의하기를 청했다.

애초 부처님은 비구의 승가에 비구니가 들어오는 것은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기에 거절했지만, 마하빠자빠띠는 많은 여인들과 함께 치장을 걷고 화려한 옷을 벗은 채 맨발로 부처님의 먼 유행을 따랐다. 결국, 시자 아난다의 눈물겨운 청을 거절치 못하고 비구를 공경하는 여덟 가지 법을 지킬 것을 명하며 받아들이게 된다.


출가를 청하는 마하빠자빠띠


코삼비에서 서로 다투는 부처님 제자들

이처럼 부처님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자 꼬삼비의 세 부자가 산더미 같은 공양물을 싣고 사왔티를 찾아 보름동안 설법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정사 세 개를 지어 바쳤다.

꼬삼비에서는 우데나 왕의 첫째 왕비 사마와띠가 큰 공헌을 했다. 이를 안 셋째 왕비 마간디야는 우데나 왕에게 두 사람이 내통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버리고 비구, 비구니가 돼 버린 옛 일을 악연이라 여기고 있었기에 부처님을 미워했던 것이었다. 우데나 왕이 부처님을 살해하려 화살을 쏘았으나 우데나 왕의 화살이 낙엽처럼 떨어지자 그제야 우데나 왕도 귀의하게 되었다. 부처님의 법은 그렇게 먼 남쪽 아완다까지 퍼져나갔다.

**아난 등 석가족, 부처님에게 대거 귀의**
**코삼비서 제자들 갈등 일자 교단 떠나기도**
**살인마 앙굴리말라 제도 등 감동일화 소개**

부처님은 계속해서 전법행을 펼친다. 제자들도 점점 늘어 큰 교단을 이루게 됐다. 하지만 코삼비에서 여름 안거 중 교단 내에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당시에 부처님은 여러 차례 화해를 하라고 권했다.

"너희들은 서루 싸우지 말고 시비하지 말라. 한 스승을 섬기는 제자들이니 물과 젖이 어울리듯 화합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가 잘못했다며 대립을 계속한다.

"부처님께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니 참견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이들에게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 나섰던 장생왕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장수왕의 아들 장생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 범마달왕을 죽이지 않고 용서했듯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것이었다. 원한은 용서해야 갚아진다는 가르침이었다. 부처님은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했다.

"옛날 세속의 왕들도 싸우는 것이 어리석은 줄 알고 서로 참고 견디었다. 집을 나와 도를 닦는 그대들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탐욕과 미움과 어리석음을 버려야 하거늘 안타깝구나. 그대들은 한 스승의 제자인데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부디 싸우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끝내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부처님은 이들을 더 이상 설득하기가 어려운 것을 알고 코삼비를 떠나 밧지국으로 갔다. 그곳에는 아니룻다와 난디와 캄빌라가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규칙을 정해서 어떤 사람이 걸식을 나가면 남은 사람은 청소를 했다. 음식이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나눠먹었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이들을 칭찬하며 남은 우기동안 함께 안거를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찾아와 용서를 구하며 마침대 교단은 화합을 되찾는다.

부처님의 행보는 살인마 앙굴리말라를 귀의하는데도 이어졌다. 부처님 당시 희대의 살인자 앙굴리말라의 어릴 때 이름은 아힘사까(Ahimsaka)인데, 그가 도둑의 별자리를 타고 났기 때문에 '아무도 해치지 말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앙굴리말라는 사왓티에 마니발타라 사문 밑의 수행자였지만 그에게 연심을 품은 마니발타라의 아내의 거짓말로 잘못된 수행법을 전해받은 상태였다. 그는 100명의 목숨을 앗아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면 수행이 완성된다고 믿고 있었다.

99명이 희생된 소식을 접한 부처님은 앙굴리말라가 살인을 저지르는 거리로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탁발을 나가셨다. 마지막 한 명의 목숨만 빼앗으면 목표가 달성될 순간, 살인자가 되었다는 아들의 소식을 접하고 거리로 나온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어머니를 죽이려는 찰나 부처님을 만난 앙굴리말라는 잘못을 참회하고 부처님께 귀의해 출가 수행자가 됐다.

"꼼짝말고 거기 섰거라. 내가 바로 앙굴리말라이다."

"나는 지금 이렇게 서있다. 어리석은 마음에 무수한 생명을 헤쳤고, 또 나를 헤치려 하고 있다. 자, 지금 나는 이렇게 있어도 두려움 없이 마음이 평온하다. 너에게 이제 지혜의 칼을 주리라."

"저는 살기도, 죽기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때가 오기를 기다려 정진할 따름입니다."

47화까지 부처님의 전법교화행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리뷰 – 법현 스님이 본 드라마 '붓다'

## 인연마다 지혜를 전하시니

부처님은 근본 가르침이 연기(緣起)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고 한다. 연기는 '연(緣)해서 일어난다', '연(緣)해서 있다'는 말이다. 발생과 존재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 세상에 태어난 이는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함께 생겨났고,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함께라는 말은 '연해서'로 이해해야 제대로 아는 것이다. 어떤 일과 어떤 사람(단체)이 아예 없으면 괴로울 일이 없다. 그러나 없을 수도 없고 어려우니 두 번째를 찾아야 한다. 부처님은 이러한 존재와 일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내셨다. 근원적으로는 뭇삶(衆生,satta)의 존재와 그 발생의 고리를 알아낸 것이다. 그러기에 깨달음을 얻고 읊으셨다고 한다. 불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려면 연(緣)을 알아야 하고,연을 알려면 사이(間)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드라마 붓다에서의 사람사이를 이해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하다.

드라마붓다가 종반으로 향하면서 더욱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드라마붓다가 TV에서는 이미 종료되었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앙굴리말라의 스토리는 드라마틱하다. 스승의 부인이 그를 연모하였으나 원래 품행이 방정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탓에 그녀가 꿈을 이루지 못하자 남편인 스승에게 거짓으로 고해서 화가 난 스승이 아주 나쁜 것을 요구했다. 그것은 100개의 엄지손가락으로 목걸이를 해서 걸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解脫)하리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그는 사람들을 죽여 99개나 되는 손가락을 꿰어서 목걸이를 하고 다녔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손가락목걸이라는 뜻의 인도 고어인 빠알리어로 '앙굴리말라(Angulimalla)'이다. 나라 안에는 살인귀가 출몰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국왕도 알게 되어서 체포명령이 내렸다. 그러나 어찌 날랜지 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대로 나머지 한 개를 채우려고 휘번거리며 다니다가 붓다를 만났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리 빨리 쫓아가도 손에 잡히지 않자 "멈춰라"고 외쳤다. 그 때 붓다는 "헐떡이는 내 마음을 먼저 멈춰"라 하였고, 이상하게 힘이 빠진 그는 붓다에게 엎드려 잘못을 빌고 교화를 받아 출가비구가 되었다. 그는 탁발하는 발우에 모래를 붓기도 하고 지나는 길에 돌과 몽둥이로 맞기도 하였으나, 출가한 뒤로는 화를 내지 않았고 해산하려는 여인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들려주어 기운을 내게도 하였다고 한다. 앙굴리말라 이야기는 경전 속의 감동스토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훌륭하게 드러내는 이야기가 되는 대표적인 이야기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니 그 어느 것도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는 더 나아가 불성, 즉 부처님 성품을 어떤 존재라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로 발전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종반의 드라마틱 요소 눈길**
**사랑이야기 등으로 재미 배가**

드라마에서 사랑이야기가 빠지면 약방문에 감초가 들어가지 않은 것과 같을 것이다. 드라마 붓다에도 여러 가지 사랑이야기가 나오지만 국제미남 출신의 아난다스님과 마탕가족의 아가씨 프라크리트이야기는 특별하다. 그녀는 하천민이면서도 스님인 아난다를 사모해서 주술(呪術)를 잘하는 어머니에게 눈물로 호소하여 탁발 나온 아난다를 곤경에 빠뜨린다. 공양청을 해서 집안으로 끌어들인 뒤 아난다스님의 공양물에 이상한 것을 넣고 주술을 걸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에 음행을 하고자 한 것이다. 드라마에서는 사띠(sati)를 유지하여 즉 정신을 차려서 위기를 벗어나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 스토리는 나중에 대승경전인 능엄경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다.엄격히 계율을 지키지 않고 수행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다.



법현 스님(열린선원장 · BTN 자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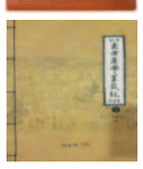



華嚴經 論講
(화엄경 논강)

청량국사의 청량소+통현장자의 화엄론
+진귀가 지은 진귀론으로 논강함

◆ 강의용 화엄경책 사진 첨부
한글 화엄경 강의용 출판
◆ 강의용 사경집 사진 첨부
한글 화엄경 사경집 출판
◆ 2016년 2월 출판예정
진귀 수행 화두집〈平溫〉출판





– 책 구입은 입금후 1899-9532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 강원

平溫 眞歸의 행장

대다수 불자나 종교인 들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理解가 불가능하고 믿기 힘든 不思議 수행자로,비영리단체 華嚴經 講院의 講主로 재임하면서, 방대하고도 심오한 깨달음의 경계를 設한 80권 화엄경을 대본없이 즉설로 청량국사의 청량소와 통현장자의 화엄론과 스스로 지은 眞歸論으로 논강하며 또한 팔만대장경을 즉문즉설하는 희유한 괴짜 修行者 이다.

2015년 현재

화엄경 眞歸論을 500p×100권 분량으로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80권 화엄경 주석서를 80화엄 한자원문 + 80권 한글완역 + 80화엄 영어완역 + 진귀론 한글주석 + 진귀론 영어주석으로 집필중이며, 競爭과 政爭,論爭,鬪爭,戰爭,등으로 온 우주가 갈등하고 화택속인 말법시대에 超국가 超민족 超종교 超종파 超반연 의 화두인 〈평온〉을 강론하고 힐링하는 財團法人〈평온센타-보림〉를 건립 추진중 이다.

문의 1899-9532

룸비니 꽃배달

불교전문 전국 꽃배달 서비스
"룸비니 꽃배달"이 불자님들을 찾아갑니다.

홈페이지 http://lumbiny.co.kr 대표전화 1644-9108 / 팩스 : 02-733-1018

계좌번호 하나은행 481-910003-86105 (예금주 : (주)느티나무커뮤니케이션)

룸비니 꽃배달서비스는 불자 꽃가게 네트워크를 위하여 꽃가게 회원을 모집 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불자 꽃가게 사장님이 계시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집문의 : 1644-9108

불교전문 꽃배달서비스 "룸비니"는 부처님 가피와 함께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룸비니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른쪽QR코드 스캔)



대행 스님



# 못났든 잘났든 그대로 그냥 수순히 걸어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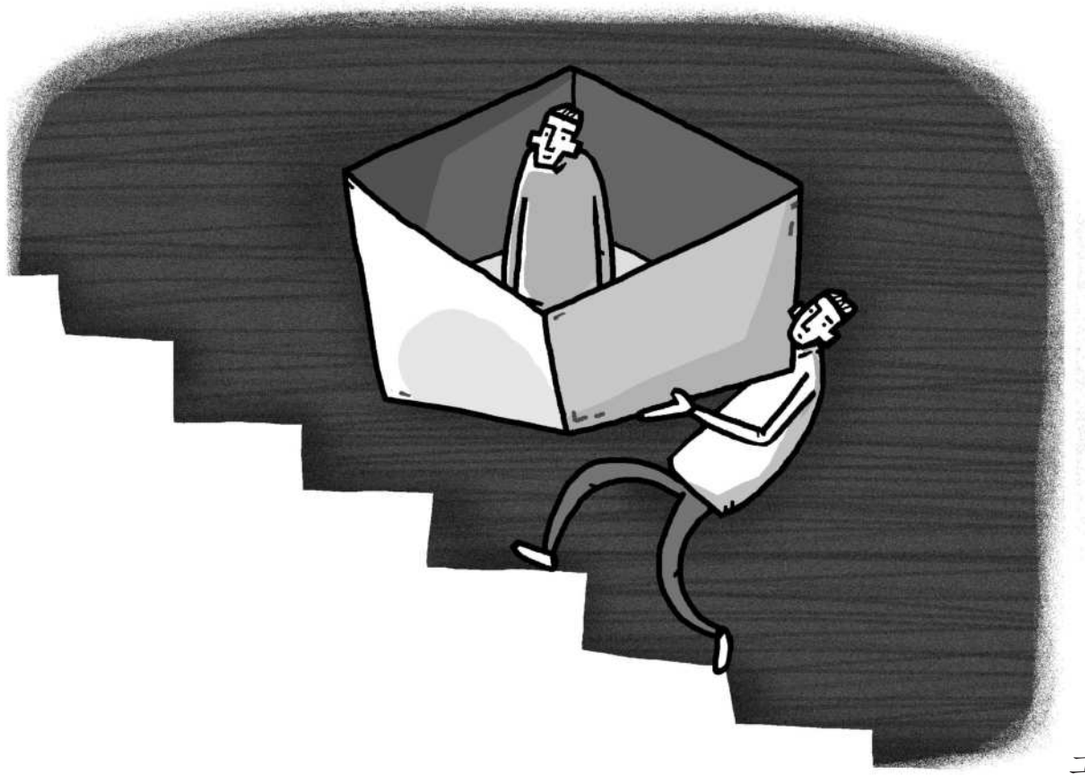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유스럽게 살아가려면**

**질문** 큰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는 금방 제가 부처가 될 것만 같고 하늘을 날 것 같고 그런데 실생활 속에서 저의 모습을 지켜보면 너무도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큰스님처럼, 부처님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는지요?

**답변** 이거 보세요. 부처가 되려고 하지도 마세요. 이 세상에 부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답답한 마음이 또 생길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대로, 못났든 잘났든 그대로 그냥 수순히 걸어가세요. 그냥 딱 세우곤 입 딱 다물고 그냥 걸어가다가 딱 닥칠 때 '네가 하는 거지.' '너!' 하고선, 말 안 해도 '너!' 할 때 그건 그냥 그대로 깜짝할 사이예요. 그러니 재생이 돼서 체가 나올 때는 거쳐서 나오는 그 시간이 있겠지만 자동적으로 불이 확 붙어서 끓는 쇠가 돼 가지고 직접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한 마음으로 이 도리를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살기 위한 욕심으로, 가난 때문에, 병고 때문에, 잘 살아야지, 위대하게 돼야지, 이런 것 때문에 이 공부하지 마세요, 진짜! '안 돼! 이거는 어떠한 억겁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하란 말입니다. '안 돼!' 하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왁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요. 그러곤 그냥 손을 번쩍 쳐들어서 그냥 쳤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깊은 물이 되기 때문에 큰 배가 뜰 수 있고, 큰 배가 뜰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중생들을 다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 쓰리고 아픈 상처를 아물리고, 내 몸에 들어 있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해서 천백억화신으로 들락거리면서 나와 남을 위해서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전 세계를 융화시킬 수 있어야겠죠. 전 세계를 융화시키고 건지려면 또 우리가 집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지구 집을 잘 지켜야 하는 것도 우리의 소임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집이니까. 내 몸도 그래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뼈를 받고 살을 받았는데 인간이 돼 가지고 진짜 사람이 못 된다면 어떻게 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잘해 드리고 잘 입혀 드리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내 몸을 잘 간직해서 건강하고 진짜 인간이 됨으로써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거다 이겁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식이 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어디가 병들었다 그런다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거는 자식들 입장에선 생각조차도 못할 겁니다. 나가서 다녀도 좋은 게 없고 아무리 우스운 일이 있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모가 돼 버리고 맙니다. 이게 효도입니까, 어디? 그러니까 막 굴리지 말라 이거죠, 젊은이들도. 자기 몸 막 굴리면, 자기 생각대로 막 굴리면 그건 효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충성도 못하죠. 또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이라고 그랬잖습니까. 자기 몸에 들어 있는 자기 중생을 제도 못할 땐 자기 집이 있으나 마나죠, 그거. 제도 못하면 자기 집도 망가지지, 자기 집 속에서 사는 자기의 의식들도 다, 인연들도 다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미래의 정신세계가…, 미래라고 그러니까 미래지 여러분이 정신세계를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있고, 과거 자리도 이 자리에 가지고 있어요. 현재의 자리가, 미래, 과거 자리가 현재로 돼 가지곤 돌아가니까, 불바퀴처럼 돌아가니까, 바로 법바퀴가 여러분이 공(空)해서 자꾸 돌아가니까, 끊임없이 돌아가니까,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에 끄달리지 않고 그런다면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요, 오늘이 바로 영원한 그날입니다.

**출가와 재가의 차이**

**질문** 우리가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서 공부하는 것과 그냥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의 근기와 마음에 달려 있겠지만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변**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예전에도 그 살림을 해서 애를 낳고 이럭하고선 입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깐 이게 나고 죽고 이런 생사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모든 걸 떼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자식을 낳곤 그래 가지고 그거를 떼게 되면 그냥 자식도 다 버리고 그냥 입산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그러한 인연을 가졌기 때문에 좀 그거는 갚아야 되겠다. 물질로다가 이렇게 줘서 갚는 게 아니에요. 요다음에 그것이 다 불어서 그 값어치가, 즉 말하자면 선생님 노릇을 했는데, 제 아버지의 선생님 노릇을 했는데 선생으로 가르친 값을 못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나중에 그 선생님 값을 다 받게끔 하고도 넘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깐 지금 현재만, 죽는다 산다 이것만 가지고 야단들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다 잘못되면 유전이 되고 그럽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사는 게. 그러니깐 유전되지 않고 그냥 곱게 부모도 다시 환생하는 이치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 환생을 하려고 중들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이지 에너지 주장자로서의 땅과 하늘을 그냥, 허공신으로서 그 공신이 돼서, 공용이 돼서, 공심으로서 공체로서 이 모든 사람 요만한 거 하나, 지구의 권리 있는 것들은 생명체를 위해서 다 살고 이렇게 하죠. 때로는 자기의 모습을 그냥 돌로 만들든지 때로는 물로 하든지 때로는 산으로 하든지 때로는 뭐 아무걸로나, 따뜻한 태양으로 해도 되고, 그 모두를 걸림 없이, 자기 집을 때에 따라서 찰나찰나 바꿔 가면서, 그렇게 살기 위함입니다, 자유스럽게. 그런데 그렇게들 자유스럽게 못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말입니다.

**아버지의 병이 빨리 쾌유되려면**

**질문** 저희 아버지가 한 달 전에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관을 해야 아버지의 병이 빨리 쾌유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듯이 뿌리가 있으니까 살지 뿌리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듯이 우리 사람도 뿌리와 같은 겁니다. 뿌리가 달린 거죠. 그래서 달마 대사도 그 모두 알라고 신 한 짝을 주장자에다 걸고 돌아가셨는데 신 한 짝은 거기 두고 한 짝만 걸고 나오셨지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신 한 짝은 항상 이 원소가, 자기 생명력이 붙어 있어서 살듯이 그냥 항상 있어요. 죽어도 그건 있는 거고 살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아버지가 진짜로, 죽는다 산다를 떠나서 그냥, 나를 그냥 패대기쳐서 버리고 그냥 믿으시게 하라는 겁니다. 나란 모습은 누구나가 다 공했습니다. 이 생명의 원소는 영원히 살지만 이 모습은 공해서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깐 이 모습이 살게 하려면 바로 자기 주인공의 심부름꾼이 되면서 진짜로 자기가 마음을 다 놔야 돼요. 아버지께 '너만이 살릴 수 있어!' 하고 지극하게 관하시라고 말씀드리세요.

**우주떡의 장 수에 대해서**

**질문** 선원에서 재를 지낼 때 우주떡을 올리는데 1장, 3장, 5장, 7장 그렇게 장 수마다의 어떤 그 뜻이 있는지. 그리고 왜 꼭 홀수로 올리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이 세상만사가 변해서 돌아가긴 해도, 돌아가는 거는 천차만별로 돌아가지만 돌아가는 원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돌아갑니

☞ 26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 생각을 해서 체험을 한 번씩들 해보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 25면에서 계속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때는 3개가 될 수도 있고, 이 때는 2개가 될 수도 있고, 이 때는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집는 데도 보는 거를 크게 볼 수도 있고 작은 걸 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걸 볼 수도 있고, 들더라도 작은 걸 들 수도 있고 큰 걸 들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걸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때는 작은 걸 들 때 한 손으로 집고 조금 큰 걸 들 때는 두 손으로 들고 더 큰 걸 들 땐 같이 들고 이러죠? 그러니까 어떤 집은 그저 한 조각을 부쳐 놓더라도 세 조각이 될 수 있고 일곱 조각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는 거는 한 조각이지마는 보이지 않는 데선 수만 수천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이는 데서 볼 때 너무 소홀하지 않습니까? 먹는 사람도 그것 한 조각 가지고는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곱 조각씩 이렇게 그냥, 일곱 조각을 한 조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깐 자유권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산 사람이 먹기 위해서 물건들을 합니다, 반찬을 하든 떡을 하든. 또 살기 위해서 물건을 한다 하더라도, 그 물건 아니라도 될 건데도 물건을 해야만 되죠. 육체가 없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무효예요. 보이는 데서도, 저 물 자체가 이 컵만 있어도 안 되고 컵 안에 물이 담겨 있어야 이게 되죠. 시시때때로 빈 컵에다가 물을 담아 먹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무엇을 할 때는 그것을 일곱 개든지 세 개든지 한 개든지, 모두가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을 여러분한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영령들이 전부 한마음을 통해서 일체 우주천 세계에, 도리천 세계에 모두가 한자리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한마음으로 공식(共食)한다는 뜻을 여러분한테 알리기도 하거니와 그 영령들은 그 자리에 바로 출현하시기 때문에, 한자리를 하기 때문에 그 영령은 어느 한 상 차려 놓은 것만이 아니라 전체를 한 도량으로 삼아서 한 방석에 앉으시니 그렇게 좋은 일이다 이거죠. 벗어날 수 있다. 영령들이, 조상들이, 즉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재를 지낼 때, 우리가 스님네들이 안 차려 놓고 지내든 차려 놓고 지내든 스님네들이 아는 것만큼 영령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스님네들이 아, 요거를 그 사람이 얼마 내 가지고 차렸다 요런 거를 스님네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그 조상들이, 영령들이 들어와서 그 스님네 마음을 탁 보니까 그것만 알고 있거든. 그거 아는 것만치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날 길이 없죠.

그러나 여기 스님네들은 우주떡 하나 턱 해놓고, 이 떡은 이 우주의 삼천대천세계의 천차만별의 중생들이, 부처님과 중생이 둘 아니게 다 잡숫고도 이 우주떡 하나가 되남는다. 이렇게 마음이 크니까 영령들이, 조상들이 들어와서 이 스님네 마음속에 탁 들어와 보니까 '아이고, 내 것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랬을 때에 그 안도감과 그 시원하고 좋은 마음과 천도되는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정말 깨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의와 선이 땅에 떨어진 것만 같습니다. 나라 간의 문제를 봐도 정말 힘의 논리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궁리를 하고 애를 써 봐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빨리 깨쳐서, 나라는 생각 없이 공심으로 함이 없이 실천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깨치지 못해서 능력이 없고 실천이 되지 않기에 답답합니다.

**답변** 우리가 빨리 깨쳐야겠다 해도 그것이 착이 되는 거니까 빨리 깨쳐야겠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아닌, 그대로 자기를 믿으라는 얘깁니다. 욕심이 생겼다는 얘깁니다. 욕심이 생겼는데 내가 항상 말을 하듯이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면, 자기 자신(自信)이 있다면 그것을 밀고 나가고 자신이 없다면 밀고 나가지 말아야 하겠죠. 이것이 자기 분수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을 할 때 처음에는 요기밖엔 못 디뎠는데 나중에는 저기까지 디디게 됐다 이겁니다, 지혜가 넓어져서. 그랬을 때 차츰차츰 뛰어야 되는 거지 이걸 한꺼번에 뛰려면 안 되니까 살면서 체험을,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체험을 해 나가시라 이겁니다. 체험을 해 나가시다 보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을 볼 때 오관을 통해서 오신통(五神通)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100프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의 법만 활용을 하지 무의 법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을 욕심 없이,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해야만 된다. 즉 습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얘깁니다. 모든 걸, 선한 일을 했어도 내가 한 일이 아니요,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두루 편하기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했다면 악한 일이 아닙니다. 거짓도 남을 위해서 거짓을 했다면 잠시만 거짓으로 한 거지 그건 거짓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잘 생각한다면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고 또 나를, 나의 중생에게도 이익 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타인의 육체나 내 육체나 똑같은 중생이지만 말입니다. 자기 중생을 자기가 이익 하게 만들 수 있어야 남을 이익 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 이겁니다. 잘 생각해야 할 점은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 그거를 마음으로 규정지어 놓고선 '얼마쯤이나 가야 될 것인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을 해 봐 가면서 탁탁 밀고 나가 보시라 이겁니다, 의심을 하지 말고. 그렇게 탁탁 밀고 나가다 보면 어떤 거는 자기에게 감촉이 온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감응이 와서 느껴진단 말입니다. 점점 점점 점점 아주 굳어지는 겁니다. 굳어지는 반면에 큰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밀치고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살기 위한 욕심으로, 가난 때문에, 병고 때문에, 잘 살아야지,**
**위대하게 돼야지, 이런 것 때문에 이 공부 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도 꿈을 꾸어 보셨지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살면서 즐거운 것도 순간 돌아가고,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논 것도 순간적입니다. 그렇게 즐거웠는데 그만 돌아서면 순간 허전하고 허황한 게 말할 수 없죠. 또 좋은 집에서 잘사는 것도 금방 망해서 돌아갔을 땐 그 허전함이 말할 수도 없고요. 꿈에 참 좋은 데 가서 즐겁게 놀고 즐겁게 살고 하는데도 그게 꿈을 깨고 나면 그렇게 허황될 수가 없죠. 목을 눌러서 죽이려고 하는데 꿈을 깼다. 야! 꿈이기에 망정이지 이거 생시 같으면 죽을 뻔했다고 할 겁니다. 이게 모두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꿈도 생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꿈이 생시요, 생시가 꿈이듯이 우리가 허황되지 않은 진실을 알아서 그대로 법을 행하는 것이 부처이자 법신이자 보신(報身)이자 화신(化身)입니다. 용왕도 거기 들어 있고 모두가 다 거기 들어 있는데 왜 그 능력을 내지 못합니까? 그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한 것입니다. 공했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공하지 못했다면 능력을 그렇게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부처 될 가능성도 없고요. 그래서 '짐승들이 사람을 거치지 않는다면 부처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참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말입니다, 역시 부처는 말이 없는 것이 부처입니다. 우리가 또 설법을 하는 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고 듣는다고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즉 교법이죠. 그건 유의 법이죠. 그리고 말없이 걸레를 빨아서 탁 닦는 것도, 말없이 걸어가는 것도, 말없이 행하는 것도 모두가 부처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말을 하는 것도, 말을 안 하고 하는 것도 그것이 둘입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돌아가는데, 이걸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 잘 생각해 보시란 뜻입니다. 여러 가지로 자꾸 변해서 돌아가면서 행하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해 가면서, 일부러 지어서보다도 생활 속에서 그냥 문득문득 다가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건 장난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실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할 때 한번 해 보는 거, 하나하나 해 보다 보면 거기에서 완벽하게 자기에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이 생겨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을 자신 있게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사회 ·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을 볼 때 과학이 철학이고 철학이 과학이고 과학이 문학이고, 이것이 둘이 아니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물질과학으로서 우리의 다섯 가지 능력만 해도 이 도리를 체험해서 아신다면 우리나라에 급작스럽게 미사일이 건너와서 폭파될 처지라 하더라도 '여기는 안 돼! 못 와!' 하고 못 박으면 못 오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자꾸 체험을 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오게 되고 안으로 굴리게 됩니다. 이게 참선입니다. 안으로 굴리게 되고 자꾸 돌아가다 보면 느낌으로 무슨 소리를 들어도 '아,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됐을 때에는 '여기는 안 돼! 못 와!' 하면 미사일이라도 그건 못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5년 후에 이렇게 된다 하고 예언을 해 놓은 것을 들었는데 '그렇게 해선 안 돼! 5년 있다가 하면 이게 될 법한 일인가?' 이렇게 해놓으면 5년 있다가 그 말이 한데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는 소인이라고 한 게 그런 데서 오는 거다 이겁니다. 이건 자신이 자신을 발견해서 자유스럽게 그냥 자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한 걸 지워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어저께도 없고 내일도 없이 하루살이로 사느니라.' 왜?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죠. 내가 콩씨 얘기도 많이 했고,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는가 하면은 흘러 나가고, 흘러 나가서 다시 돌아서 또 흘러 들어오고 이러는데 두드러지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마음으로서 전달되는 한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으로서 우리가 일을 행해 나갈 때 미사일이든 폭탄이든 그게 마음대로 못하죠. 절대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무전도 그렇습니다. 우주간 법계에 그 무전줄이 있어서 '이거는 안 돼!' 하고 차단을 시켜 놓으면 그건 안 되는 법입니다. 급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것을 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신통이라 하는 건 신통입니다. 신통은 급할 때 쓰는 겁니다. 무전기도 급할 때 쓰는 거고, 미사일이라는 것도 급할 때, 한생각이면 다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다 탐지기도 쓸 수 있고, 컴퓨터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런 생각이 이 오신통으로 들어오고, 눈으로 귀로 상응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이러는 그 자체를 누가 만들었느냐는 얘깁니다. 그거 생각나기 이전 영원한 자기 생명이, 그 근원이 바로 그렇게 융합하고 또 돌아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고 내주고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본이 아니라면 오신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신통이라는 것은 말로 오신통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체험을 한 번씩들 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급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피난처가 따로 있습니까? 내 앉은 자리가 피난처지. 육신이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피하려고 애를 써 봐도 되지 않습니다.

생활면에 있어서 체험을 해 본 분들은 거기에서 또 능력을 얻는 수도 많습니다. 또 남을 위해서도 조그마한 체험이라도 해 보시고 자꾸자꾸 들어간다면 처음에는 조금 조금 먹다가 나중에는 큰 바다의 물을 다 삼켰다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삼키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삼켰다 내주고 내줬다 삼키기도 하는, 아주 다양하게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그걸 진짜 사람이라고 했고 부처라고 했고 선각자라고 했습니다.




해수관음보살님

## 금년 정월방생은 3월 1일 봉행하는 해수관음보살님 점안법회에 오세요

보타락가사는 삼사참배와 용왕재, 방생에 적합한 최고의 도량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보타락가사가 접해 있는 바다 전면에는 금실 좋은 부부 두꺼비 바위가 있어
자손 번성을 상징하며, 그 옆으로는 '훈장 복(福) 두꺼비 바위'가 선생님처럼 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 대학 입시생들의 합격발원 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대웅전 위로 관세음보살님의 원만상이 매일 정오에 10분간 출현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에 오시는 분마다 환희심에 가득 차 법열을 안고 돌아갑니다.

양력 3월 1일(음력 정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그동안 원력을 세워 조성하던 해수관음보살님을 청양바위로 웅장하게 조성을 하여 바닷가에 모시고 거룩한 점안식을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해수관음보살님은 고해중생의 간절한 염원에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고 업력을 닦아 불안과 공포가 없는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부처님이며 중생이 겪는 어려움과 장애, 난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을 주시는 자비로운 부처님이십니다.

● 주 소 : 충남 태안군 원북면 청산길 231-28 보타락가사
전화 041-672-1550, 010-2389-0600 (주지스님)

● 문 의 : 회주 법진스님 010-8947-6142



법진스님



보타락가사 앞 바다의 '훈장 복(福) 두꺼비 바위'.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는듯한 형상이다



와불님이 모셔져 있는 적멸보궁

불자 세상보기

# 시간의 바다 어떻게 항해 하나?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이번 연 말 연 시는 호들갑을 떨지 말고 진득하게 보내자고 내심 작정한 모양인가? 한해를 마감한 날에는 제야의 종소리를 듣는 것을 포기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새해 첫날에도 늘어지게 꾸물거리다가 8시가 넘어서야 이불에서 나왔다.

바로 집 뒤의 산등성에서 첫 해의 떠오름을 보는 이벤트도 무시해 버린 것이다.

이런 나의 행위는 시간이 주는 희망을 포기한 나이 먹은 사람의 자기방어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어 자신이 께름칙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일찍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누가 묻는다면 설명할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아직 시간을 모르겠다. 나는 현대 물리학 등 현대학문을 통해 시간에 대한 지식을 4세기에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잘 모르겠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의해 절대적이고 직선적으로 간주해 왔던 '시간'이란 존재가 상대적이고 곡선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시간과 공간이 한 단위로 통합되고, 시간의 길이와 속도 등이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우주여행을 하고 오니 사랑하는 어린 딸이 할머니가 되어 있기도 한다.

시간과 인간 삶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인간의 삶은 '시간의 바다' 위에서 항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시간의 바다위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물결과 파도가 뒤섞여 넘실거리고 있다. 이 시간의 바다를 어떻게 항해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것임이다.

시간의 파고를 넘어 항해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의 파도에 밀려 부평초처럼 떠돌 것인가. 그 동안의 나의 삶이 시간에 의해 소비당해 왔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이 든다. 13세기 기계 시계가 발명된 이래 인간은 시간을 인수분해 하면서 스스로를 시간의 노예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인간은 시간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시간에 의해 소비당해 오지는 않았는지. 연말 년초의 나의 행위는 이러한 시간에 대한 저항의 몸짓일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지나간 시간에 얼마나 소비당해 왔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 얼마나 소비당해 왔는가. 어찌하리오.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붓다의 지혜를 수없이 되뇌면서도.

'시간의 바다'는 연기의 장이 펼쳐지는 곳이리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엉켜서 다양한 파도의 형상이 넘실대는 곳이다. 그 파도의 형상은 결국은 '무상'이다.

시간의 바다 속에서 연기와 무상을 본다면 우리는 시간의 바다를 멋지게 행복하게 항해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바다위에서 연기와 무상을 본다는 것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언어를 가지고 연기와 무상을 이야기하기는 쉽다. 그러나 이것을 시간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체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수행이 나오는 것이다.

시간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각 종 항해 기술과 도전 정신을 필요로 한다. 지도와 나침반은 연기와 무상의 지혜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방법을 찾는 것이 수행이다. 이 수행은 결국 삼독심(三毒心), 즉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어이쿠, 어려워라. 어찌 이를 넘을 수 있을까. 다만 삼독심에 빠진 자신을 서글프게 바라보는 것만이라도 실천해 보자. 그러면 시간의 파고에 휩쓸려도 익사하지는 않으리라. 가끔 파고를 타는 서핑을 즐길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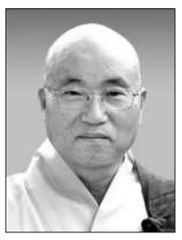
시간의 바다를 항해하는 지혜와 기술은 이미 붓다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구나. 이제야 시간을 좀 알 것 같다. 시간은 연기의 장이고 시간을 넘어 가는 길이 대자유의 길, 니르바나의 길일 것이다.

## 발언대

### 부처님 성도절 의미는

음력 12월 8일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성도재일이다. 부처님오신날, 출가 · 열반재일과 함께 불교 4대 명절로 꼽히는 날로 부처님과 같이 정각을 얻기 위해 많은 이들이 정진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행정진의 열기가 다소 식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성도재일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 부처님오신날 만큼 성도절 기념하자



법산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납월 8일, 즉 음력 12월 8일은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신 가장 기쁜 날이다. 부처님이 인간 싯다르타로 태어나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셨기에 중생들은 비로소 삶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삶의 괴로움을 달게 받아들이고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삶을 갈무리해 가며 다음 생에 복되게 살 수 있음을 일러주셨다. 또 이 같은 자세로 생을 거듭해 가면 중생인 우리도 능히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절을 맞아 부처님 수행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 함께 바래야 할 일이다.

한국불교에서 최근에는 이런 성도절이 의례적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예전에는 성도절 마다 연극과 공연 등이 펼쳐지고 철야정진 또한 각 사찰에서 활발히 진행됐다. 선원에서도 섣달 초하루부터 성도재일까지 정진하는 전통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정진 사찰도 줄고 있다고 하니 씁쓸하기 그지없다.

또 불교계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은 성대히 기념하지만 출가, 열반일, 성도일은 비교적 조용히 지나간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자로서 부처님 일생 중 하나인 날을 특별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남방불교 국가서는 탄생과 출가, 성도, 열반을 모두 한 날로 정해 국가적인 축제를 열기도 한다.

성도절을 맞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정진해가자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해마다 오는 성도절 기간 진실된 마음을 내어 부처님 염원을 나의 염원으로 삼아 실천 수행해보았으면 한다. 삶에 끄달리느라 다소 늦춰졌던 수행의 고삐를 성도절을 기해 단단히 추슬러야 한다. 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성도 의미 · 내용 이해 선행돼야"



이제열
불교경전연구원장

불교는 부처님의 성도로부터 시작된다. 왕자의 신분을 가진 한 인간이 가장 뛰어난 인류의 스승으로 발돋움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위대한 구제자로 올라서게 된 것은 바로 성도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는 성도로 출발했기 때문에 성도재일에는 부처님오신날 못지않은 기념법석이 열려야 한다. 성도재일은 기독교로 말하면 부활절과 같다. 부활 없는 예수가 존재할 수 없듯이 성도 없는 불교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한국불교사회에서는 성도에 대한 의미라거나 과정, 내용들이 잘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성도재일에 불자들은 성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에 앞서 철야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물론 보리수 아래서 정진하며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을 따라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근본적인 성도의 의미를 고찰하지 않는 것은 불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설법을 들으면서 배우게 되는 사성제 · 삼법인 · 12연기 등은 이론적인 가르침이다. 하지만 싯다르타 태자가 고행을 하고, 정각을 이뤄 부처님이 되는 과정은 사건이자 실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성도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성도한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해해야 한다.

불교계는 성도의 올바른 의미 확산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는 피상적인 얘기나 일방적인 설법 · 정진보다 역사적 사실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대대적인 성도주간 또는 성도의 달 선포 등을 통해 성도의 의미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성도와 관련된 세미나와 정진대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부처님 오도송을 보급하는 운동도 필요하다.

社說

# 출가 진흥 종책, 기대와 우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를 우려할 때 사용되는 말로 '인구 절벽'이라는 용어가 있다. 국가 인구 통계 그래프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는 구간을 비유한 것이다.

현재 한국불교 역시 '출가 절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출가자 수는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의 경우 2000년 이후 출가자는 매년 200~300명 수준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제 1년에 200명 출가도 어렵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출가 진흥을 위해 조계종은 그간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 2012년 청년출가 학교를 비롯해 출가 사이트 개설, '청소년 출가, 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까지 다양했다. 교육원도 올해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출가 진흥을 최대 목표로 삼은 듯하다. 첫 사업의 포문으로는 출가 홍보 포스터가 제작 · 발표됐다. 총 6종이 나왔으며, 전국 사찰과 대학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출가 콘서트와 종립학교 대상 출가 강연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어렵고 고행'이라는 출가의 대중적 이미지를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자구책들이다.

미래세대에게 불교를 친숙하게 다가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고 장려해야 할 사업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 방편이다. 장기적으로는 계층포교 부활과 발심자를 위한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예비 출가군부터 행자 · 사미(니)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출가 전담 부서 구성도 필요하다.

불교계는 항상 출가자 감소를 우려하고 걱정한다. 걱정만 할 일이 아니다. 이제는 머리를 맞댐과 동시에 행동과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 죠세이탄광 희생자 유골 발굴 촉구를

죠세이탄광은 시모노세키 남쪽 61킬로미터 지점 야마구찌현 우베시에 있는 해저탄광이다. 이 곳에서는 1942년 2월 3일 갱도붕괴로 탄광이 수몰되면서 183여명이 모두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건의 희생자 가운데 136명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조선인 징용자들이다. 하지만 희생자들은 오늘날까지도 수몰된 갱도에 수장된 채로 유골조차 수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죠세이탄광은 '조선탄광'을 일본인이 부르던 호칭으로 채탄광부의 대부분이 조선인 징용자들이었기에 붙은 명칭이다.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고, 하루 12시간씩 2교대의 높은 노동 강도 등 최악의 노동 조건으로 유명해 일본인 광부들조차 외면하던 장소다. 조선인들의 다수는 독신의 젊은 남성으로 3.6m 높이의 울타리로 둘러싼 숙소에 감금돼 채탄작업에 투입됐다. 이 아픈 역사가 세상밖으로 드러난 것은 故 야마구치 다케노부 우베여고 교사가 1976년 탄광 사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다. 이후 1991년 일본시민단체인 '죠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 결성됐다.

이 모임은 지속적인 연구조사로 희생자 유가족들을 찾아내고, 추모비 건립을 위한 성금모금 및 사고현장서 유가족들과 1993년부터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벌써 24년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월 30일 일본 야마구찌현 우베시에 위치한 조세이 탄광(長生) 추모비 및 피아 앞에서 '일제강점기 죠세이 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수몰희생자 위령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차디찬 바다속서 한맺힌 삶을 살다간 영령들의 유골이라도 하루빨리 발굴돼 넋이라도 위로받길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삽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 혼 의 세 계 ( 빙 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대!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 제품명 | 신묘장구대다라니 | 42수진언 |
|---|---|---|
| 크기 및 가격 | 사찰용 100,000원<br>가정용 70,000원 | |
| | 사찰용 65×145㎝<br>가정용 45×110㎝ | |
| 색상 | 그린 · 레드 | 그린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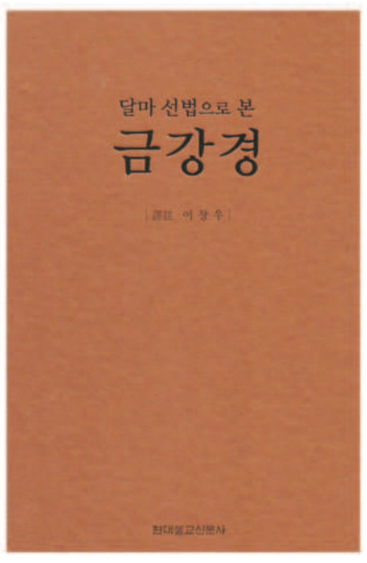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
19,000원 | 여시아문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 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에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탈의 돈법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의 염불론과 정혜쌍수(定慧雙修)




담허대사 저 · 송상섭 편역 | 신국판 | 부분컬라 | 232쪽 | 12,000원 | 여시아문
전국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출판 및 구입 문의 : (02)2632-8739

중국의 고승 담허(倓虛,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은 법문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왕생극락하여 해탈하게 되어있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연관스님 · 보정거사 번역 |
46배판 | 부분컬라 | 250쪽 |
10,000원 | 비움과소통

곧바로 불퇴전지에 올라 성불하는 묘법!

이 책은 『무량수경』 상권의 아미타부처님의 48대원을 서술한 한문과 번역문 및 해설, 보정 서길수 박사가 산스크리트어로 옮긴 『아미타경』 한문 원문과 번역문,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법을 개술한 대만 방륜거사의 『정법개술(淨法概述)』 번역문으로 이뤄져 있다. 『정법개술』은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을 역임한 연관스님이 번역한 염불수행의 중요한 지침서이다.

염불이 살아나야 불교가 살아납니다!
비움과소통은 정토불서 발행을 통해
아미타부처님의 대원大願을 일깨우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도서출판 비움과소통
비움과소통은 여시아문의 자매 브랜드입니다.
불교쇼핑몰 비움과소통 몰(www.bns-mall.co.kr)
불서전문 책방 비움과소통(02-2632-8739)

여시아문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화 : 02-2004-8200 | 팩스 02-737-0698